



연대기

Anna Sokalska

연대기

© 2023 Team17 Digital Limited.

Published by: Team17 Digital Limited

Production & Direction: Stan Just

Writing: Anna Sokalska

Proofreading & Editing: Ewa Popielarz

Illustrator: Dominika Bochenek

Localization: Roboto Global

eBook adaptation: Piotr Najar / UNO Kooperaty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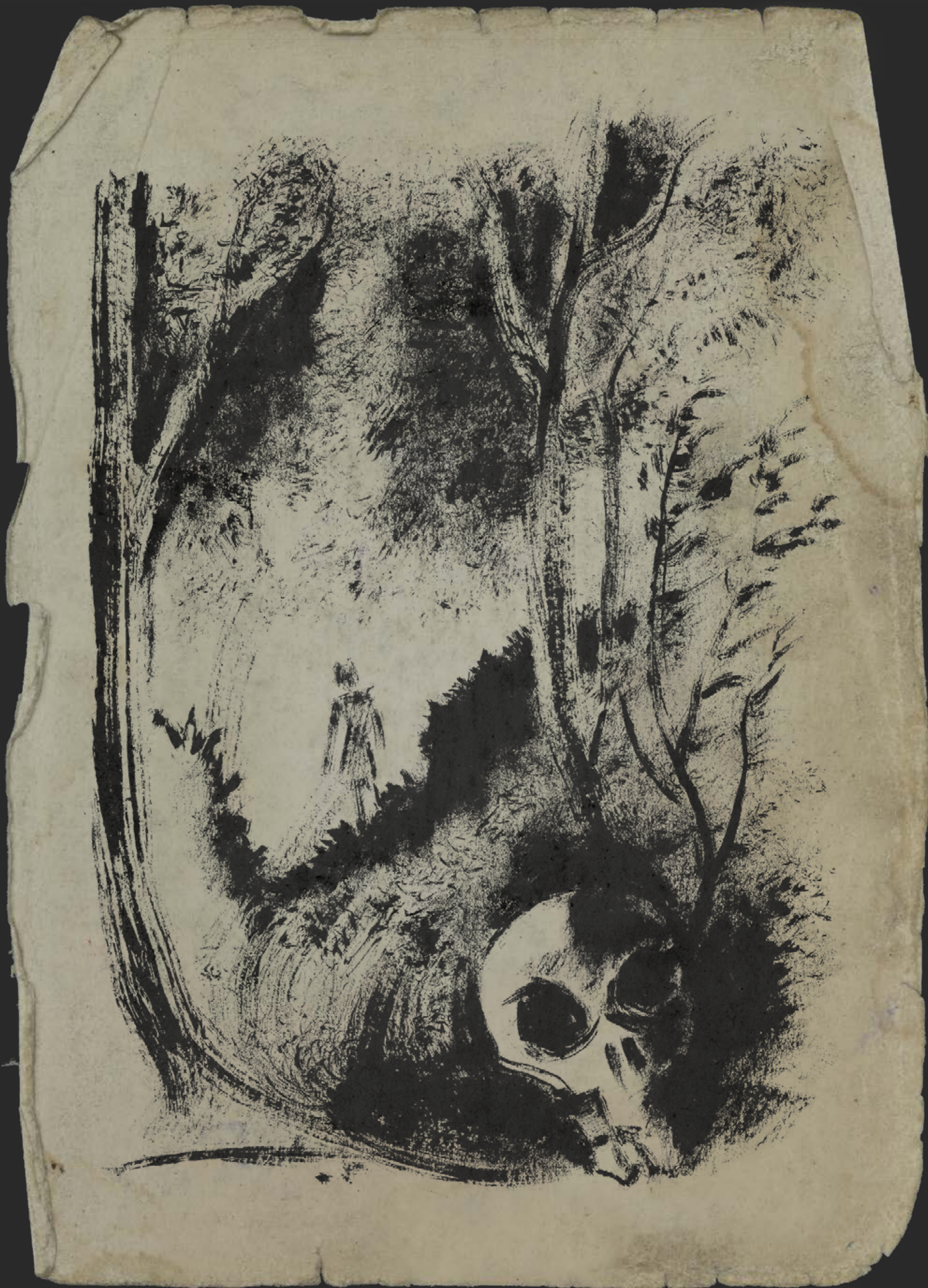
내용물

하나	まことの神々 を讃えよ!
둘	始まりの目覚め
셋	無限の源
넷	孤独を慰める
다섯	生命の水
여섯	妬みの誕生
일곱	ヴェレスの創造
여덟	不注意の影
아홉	冥界
열	帰ってきた孤独
열하나	雷を司る者
열둘	女の創造
열셋	男の創造
열넷	ダボアの誕生
열다섯	幸福の時代
열여섯	黄金の王国
열일곱	プラボアの贈り物
열여덟	時なき時の終わり
열아홉	魂の救済

스물	ヴェレスの使者
스물하나	魂の二元性
스물둘	〈凄惨〉の時代
스물셋	嘆きのモコシ
스물넷	偽りの約束
스물다섯	恐れと無力
스물여섯	太陽の降臨
스물일곱	神の心
스물여덟	地の骨
스물아홉	神の刃
서른	闇の始まり
서른하나	気まぐれな火
서른둘	大火
서른셋	陰謀
서른넷	冥界の君主
서른다섯	誘う火
서른여섯	穢れた火
서른일곱	燃える行列
서른여덟	スヴァログの冒瀆
서른아홉	火が食らうもの
마흔	怖ろしきものども
마흔하나	夜の王
마흔둘	恐俘 のささやき

마흔셋	恐俘 の乱
마흔넷	モコシの犠牲
마흔다섯	女神の誕生
마흔여섯	調和を保つ者
마흔일곱	地上の呼び声
마흔여덟	神の歩み
마흔아홉	腐敗
십	引き裂かれたドルヤ
십하나	ささやき手 の任命
십둘	神の烙印
십셋	リブシュカの物語
십넷	ささやきの物語
십다섯	まじない
십여섯	対立
십일곱	不信
십여덟	ダボ어의贈り物
십아홉	ペルンの贈り物
예순	神器について
예순하나	ドルヤについて
예순둘	大呪
예순셋	ささやき手 の名誉にかけて
예순넷	神なる力の証
예순다섯	ヴェレス敗れる

예순여섯	審判の日
예순일곱	狼狽
예순여덟	最初の ささやき手 の凋落
예순아홉	裏切り
일흔	凄慘
일흔하나	死の腕
일흔둘	熟慮
일흔셋	追放
일흔넷	放浪
일흔다섯	ボハン
일흔여섯	ふたたびの團結
일흔일곱	神々の英雄
일흔여덟	盟約の者
일흔아홉	世界の崩壊
여든	神なきこと
여든하나	ささやき手 のたそがれ
여든둘	プラボーの凋落



하나 まことの神々

기억하는 이에게 축복이 함께하길. 기억과 참된 신들에 대한 신앙만이 극악무도한 강탈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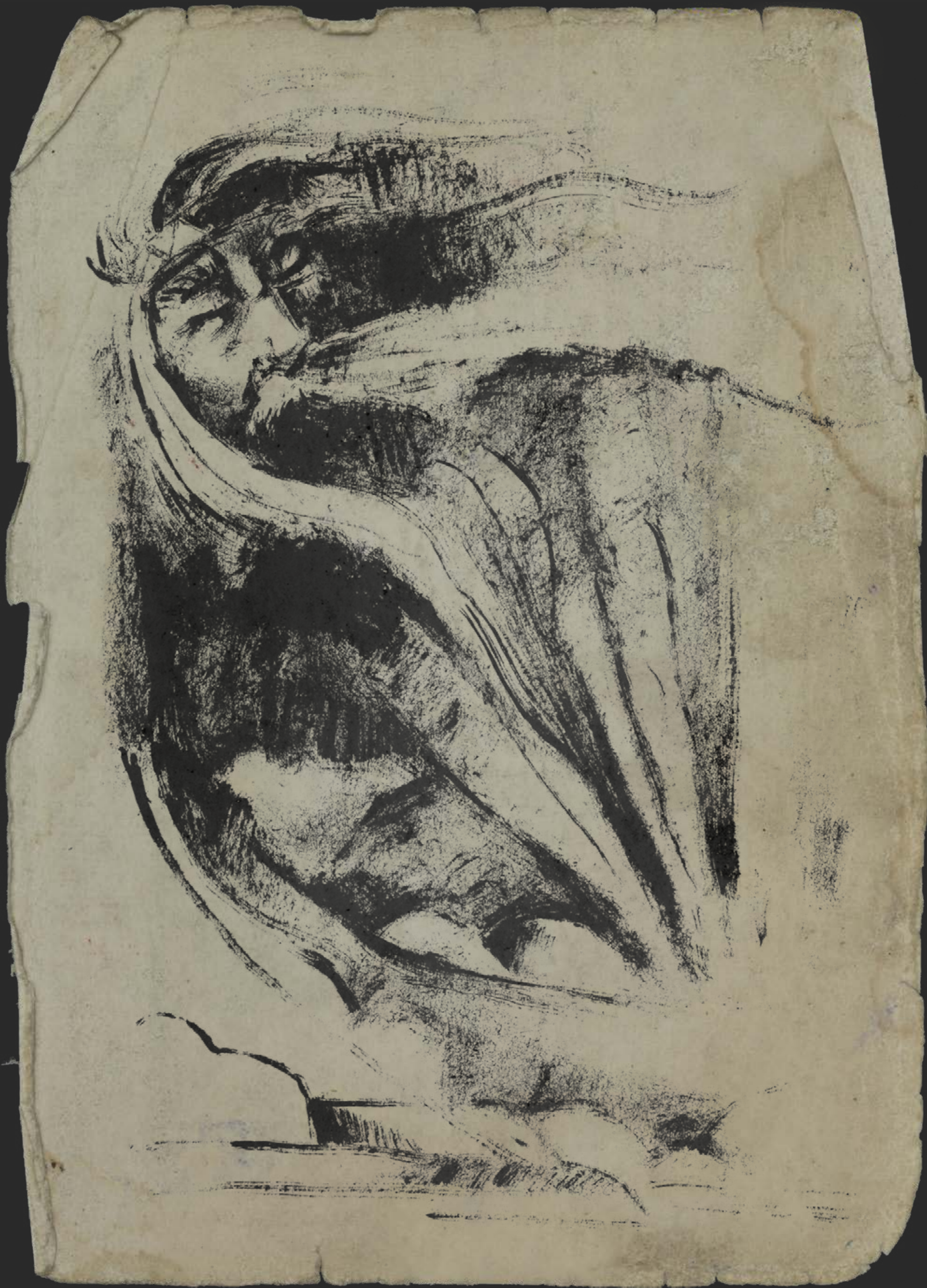
그대는 유혹을 인지하고 저주를 피하기를! 하늘은 순결 하나 대지는 부패하고 해충이 우글거린다! 상쾌한 바람은 인간의 폐에 활력을 채우지만, 기만적인 흙은 인간의 육신을 삼킨다. 지면 아래에 숨겨진 금을 탐하지 마라. 그 금이 여린 마음을 광기로 더럽힐 터이니.

그대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목숨을 보전하라!

나는 신의 딸 돌랴의 충직한 속삭이는 자 가알이다. 헤아릴 수 없는 세대에 걸쳐 여자의 아들인 남자의 아들이 자애로운 모코쉬의 축복으로 그녀의 육신과 영혼을 만들어 냈도다.

그것이 고대와 하나뿐인 진실에 대한 증언이로다! 세월이 흘렀지만 기억은 남아 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후손과 함께 살아가리라.

참된 신들을 찬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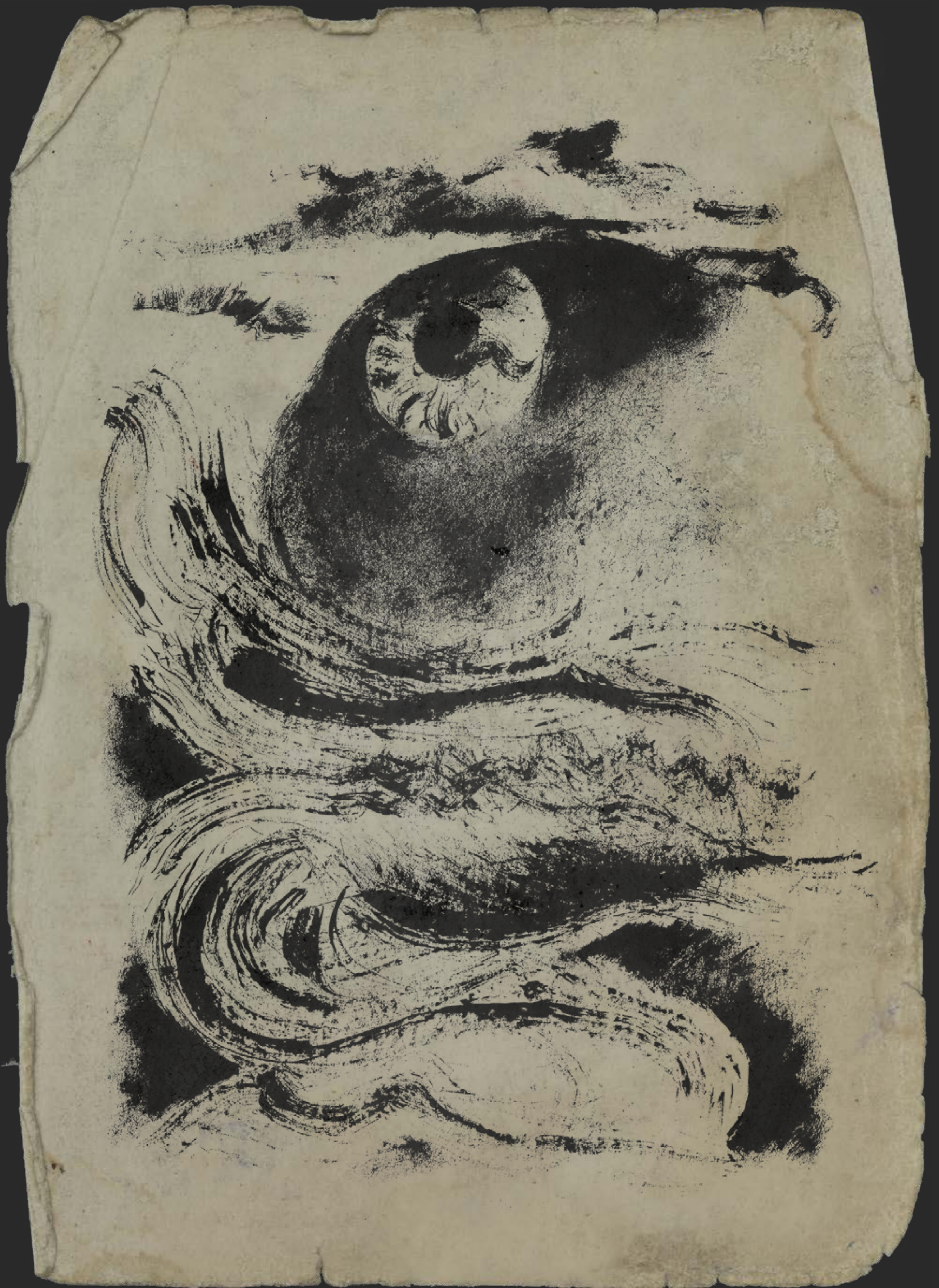


둘 まことの神々

태초에는 하늘이 있었고, 하늘은 광활하고 아름답고 힘이 넘쳤다. 인간의 정신으로는 것처럼 하늘을 채운 평화와 지혜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 우주의 만물은 가장 신성한 숨결과 손 닿지 않은 영혼의 정수, 신성 중의 신성, 생명의 씨앗일 뿐이었다.

그때 본질적으로 선한 하늘이 잠에서 깨어났다. 하늘은 일어나 이슬처럼 응결되었고, 그 의식이 무한의 원천처럼 온 세상을 밝게 비추었다. 보아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아버지, 하늘의 군주, 숨결을 주는 자라 불리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고 폭풍처럼 강인한 프라보의 탄생이었다.

그의 땅은 경이로웠다. 늘 환하고, 부드럽고, 무한하며, 근심이 없었다.



셋 무한한 원천

프라보는 훌륭했고 그의 땅은 실로 아름다웠다. 만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힘은 창조의 힘이었으며, 한 번이라도 신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은 존재하며 하늘을 장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창조물 중에 무엇도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였다. 그는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창조물은 공허하였고, 프라보 본인처럼 가볍고 밝았다.

프라보는 오로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망만을 품은 채로 하늘을 떠다녔다! 그의 욕망은 자신의 땅의 종말을 보는 것뿐이었으며, 그의 생각은 끝도 없이 뻗어 나가 무한한 공간으로 그를 압도하였다.

그는 무한의 총체 속에서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고독과 침묵, 예측하기 쉬운 하늘에 겁을 먹은 그는 울기 시작하였다.

가장 신성한 눈에서 눈물이 급류처럼 흐르고,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신이 내뿜은 수천 갈래의 숨결이 공을 뒤 흔들자, 바다가 프라보의 눈을 비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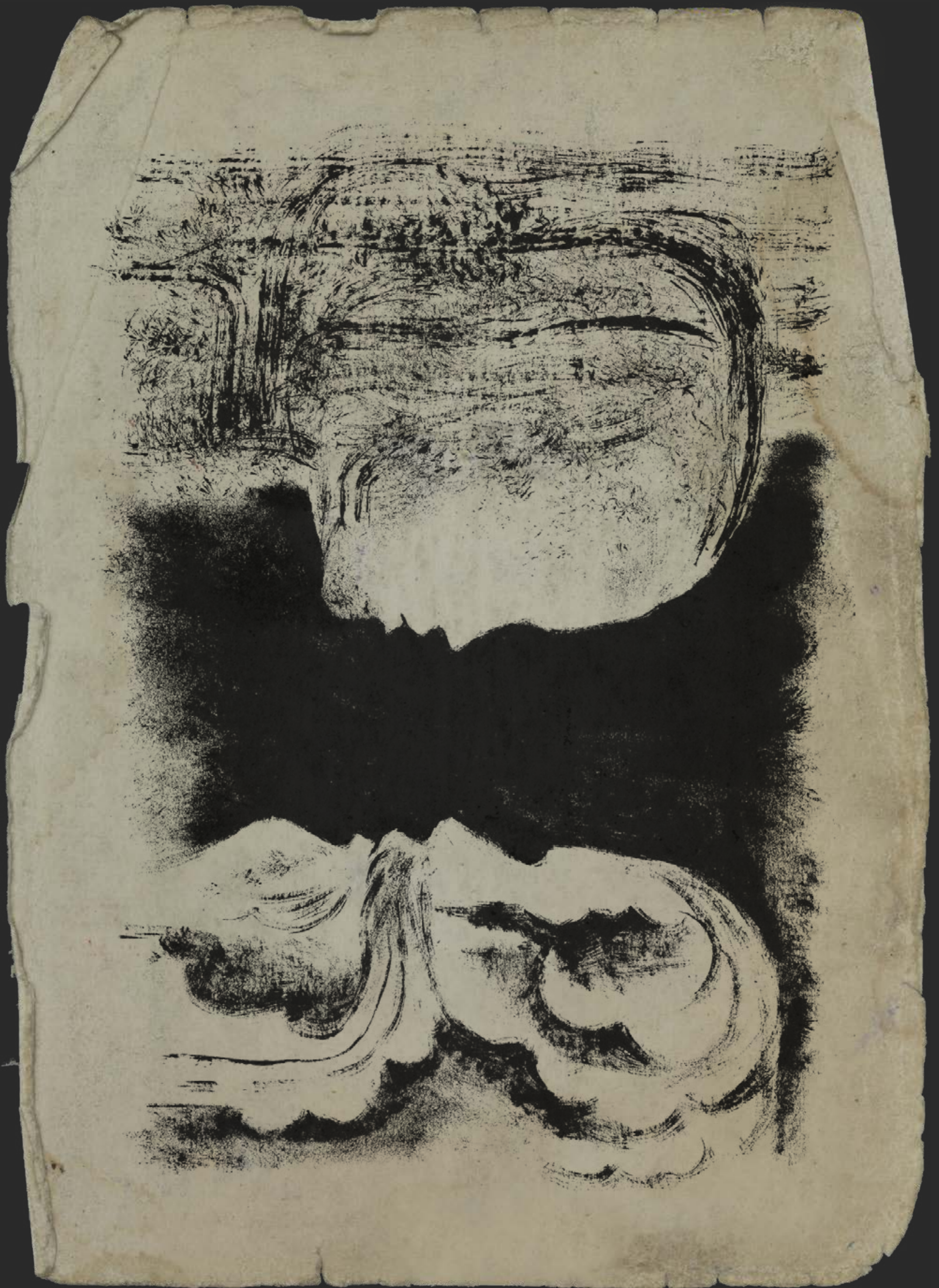
넷 위안을 주는 고독

프라보가 바다의 표면에 비친 자신의 상을 보았을 때, 절망이 그의 심장을 관통하였다. 이제 어디를 가나 그의 소리 없는 상이 그를 따라왔으며, 이에 그의 고독은 더욱 끔찍하게 느껴졌다.

프라보는 그의 상 앞에서 불평하며, 그의 말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의 숨결로써 바다의 표면을 흔들었다. 이에 수면은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흔들듯이 흔들렸다.

근심과 희망을 모두 털어놓은 프라보는 상심에 빠진 채 마침내 선잠에 빠졌다. 깨어나서 보니, 자신의 상 옆에 다른 존재의 윤곽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용을 써도, 평소에는 수정처럼 밝고 맑았던 물의 표면 아래가 보이지 않았다.

하늘의 물질이 나뉘는 순간부터, 프라보는 유일하고 온전한 존재가 아니었다. 새로운 원소는 그와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랐고, 그렇기에 수수께끼였다. 그리하여 프라보는 물의 표면에 다가갔다.



다섯 생명의 물

프라보는 대양의 껍질을 바라보았다. 그것을 꿰뚫어 볼 수도, 시선을 돌릴 수도 없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상 아래에서, 갑자기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과 연민으로 가득하여 숨이 멎을 듯한 존재가 눈에 띄었다. 프라보는 얼어붙은 듯 서서 그 광경에 매혹되었다.

그리하여 물은 생명을 얻었고, 비전과 자비의 모코쉬가 태어났다. 둘은 같은 공허로부터 태어났고, 세상에 둘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둘은 서로 가까워지고 싶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고,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동전의 양면이었다. 끝없는 지평선으로 분리된 둘은 서로를 만질 수조차 없었다.



여섯 시기심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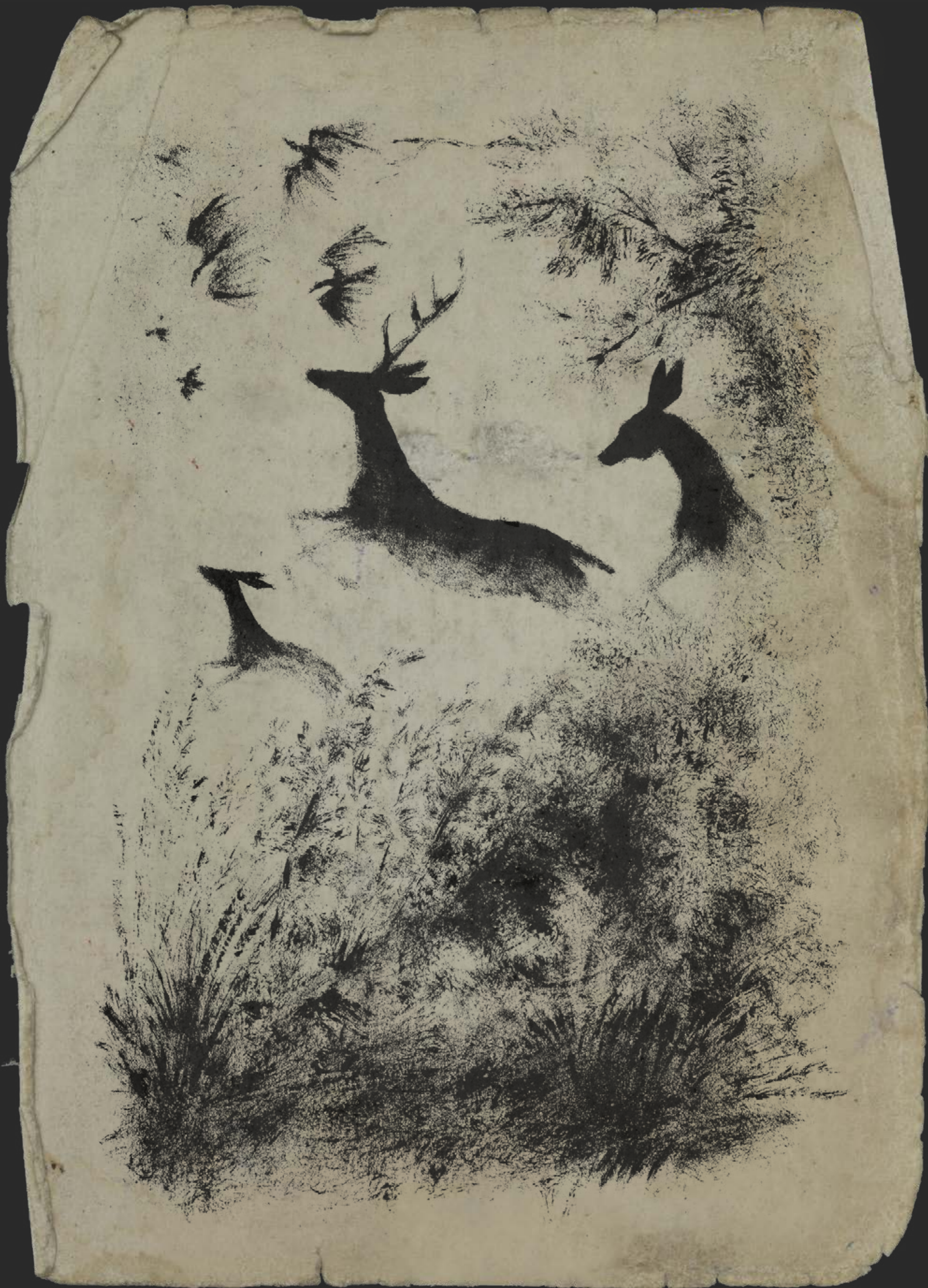
사랑은 풍요롭고 비옥하며, 새집의 집터처럼 단단하다. 둘을 하나로 잇는 다리와 같고, 사람을 앞으로 이끄는 길과 같다. 하지만 그것은 탐욕에 취약하지 않은가? 수령처럼 사람을 끌어들이어 자신이 기른 작물을 모두 삼키고 다시, 또 다시 길러 내지 않는가?

프라보와 모코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은 진실하고 아름다웠다. 둘의 숨결과 파도가 이룬 구름으로부터, 부드럽고 따뜻한 황금빛 모래 해변이 나타났다.

그리고 신들은 황금의 대지에 내려와 서로를 품에 안았고, 두 신의 육신은 갈망과 충족, 두려움과 안도감, 기쁨과 슬픔, 호기심과 행복으로 부풀어 올랐다.

신들의 체액으로 따스하게 덥혀진 대지는 전율하고, 신들의 발길이 닿은 곳으로부터 깨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욕망과 애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대지의 중심이 시기심에 뒤흔들렸다.

그리하여 신의 사랑에 취한 벨레스가 깨어났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입술이 욕망으로 뒤흔들었고, 창조하는 신의 힘이 손가락을 타고 흘렀다. 프라보와 모코쉬도 그 모습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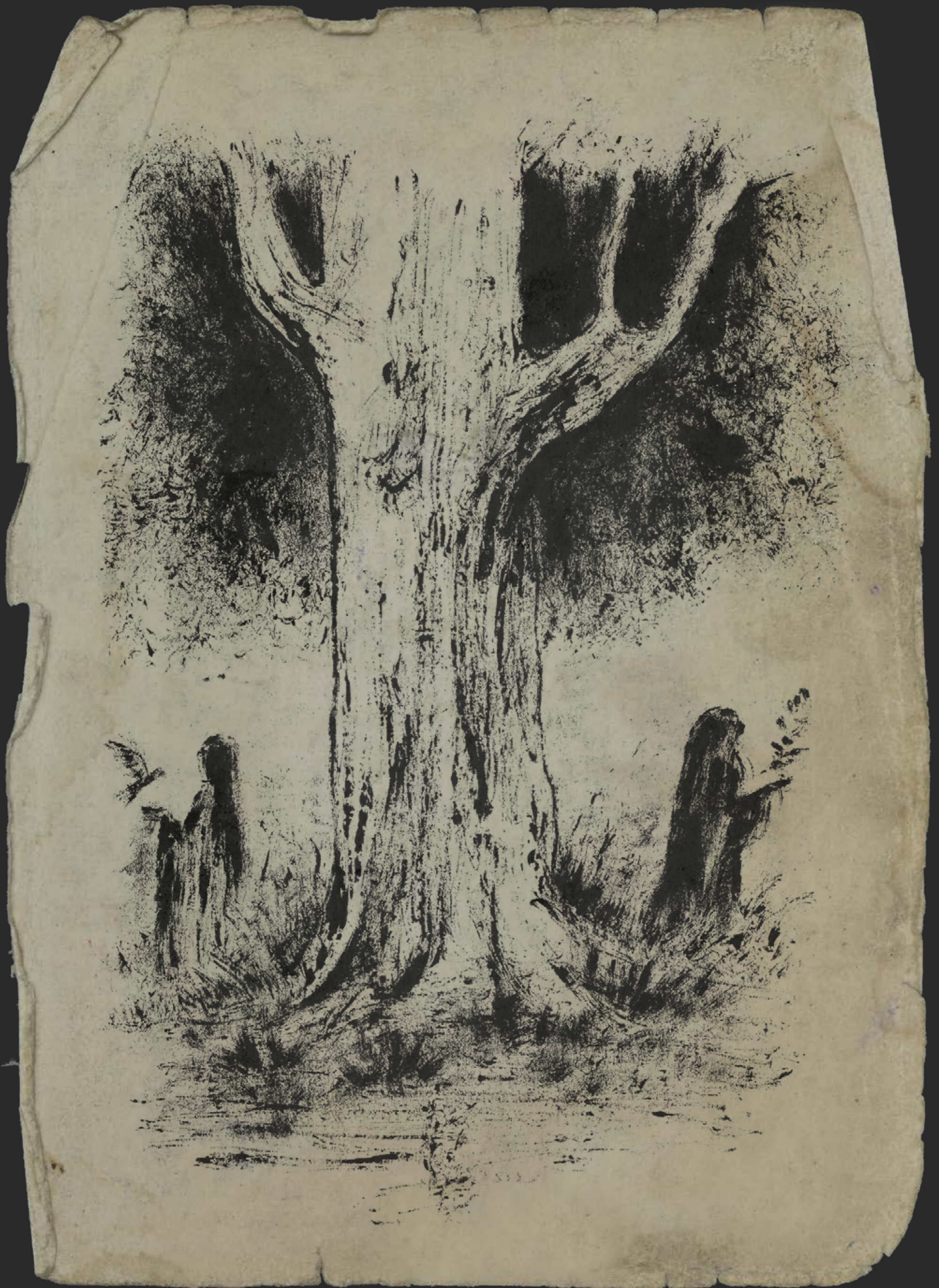


일곱 벨레스의 작품

산을 깎고 모래를 날려 보내고 계곡에서 속삭이는 것은 바람이지만, 대지를 가장 사랑한 것은 물이었으니, 물은 땅끝을 품고, 무수한 은빛 손가락으로 협곡을 어루만졌으며, 틈새로 스며들어 동굴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닿았다.

그리하여 벨레스는 모코쉬를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의 갈증을 풀어줄 존재는 오직 그녀뿐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는 모코쉬의 존재와 손길, 그 안에 깃든 신의 힘을 느낄 수 있었으니, 벨레스는 곧 생명이자 자비이며, 인내였다.

벨레스는 개울에서 물을 끌어와, 그가 품은 신의 사랑으로 인해 붉게 달아오른 모래를 적셨다. 그렇게 만들어진 점토로 그는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였으며, 흡족한 형상이 빚어지자 바람에 실린 마법의 속삭임에서 들려오는 신의 힘으로 그 형상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여덟 무모함의 그림자

그리고 어디에나 식물이 무성하고 동물이 득시글거리는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세상이 어찌나 비옥하고 부드러운지, 프라보는 연인인 모코쉬가 애정과 감사를 담아 그를 위해 대지를 빗었다고 믿었다. 그는 아무런 근심 없이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런 그의 눈과 가슴에는 기쁨이 차올랐다. 그는 연인이 곧 선물을 보여 주고 세상을 구경시켜 줄 거라 생각하고, 연인의 달콤한 목소리가 그를 부르기만을 기다렸다.

한편 이처럼 생긴 창조물에서 프라보의 숨결과 힘을 느낀 모코쉬도, 그것이 연인이 충심과 헌신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라 믿었다. 그래서 그를 방해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대신 그가 평화롭게 선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래도 굵은 나무둥치와 알록달록한 꽃, 발빠른 사슴과 지칠 줄 모르는 곰에 대한 호기심과 경탄을 감출 수는 없었어라. 그래서 그녀는 프라보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그들을 따라갔다. 프라보의 창조물이 완성되기 전에 보아서 그를 난처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홉 저승

세상을 떠돌던 모코쉬는 높은 산의 발치에 다다랐다. 바람에 날린 흙이 진동으로 솟구쳐 만들어진 산이었다. 모코쉬는 단단한 바위 속에서, 따스하고 부드러운 물의 손끝에서 빚어진 어둡고 추운 동굴을 발견했다. 길을 걷느라 지친 그녀는 힘을 얻고자 수정처럼 맑은 개울에 손을 뻗었다가 깜짝 놀랐다. 개울 바닥이 금으로 덮여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아름답고 유혹적이었으며, 지금껏 그녀가 세상에서 본 무엇보다도 반짝였다. 고개를 들자 동굴의 어두컴컴한 곳에서 똑같은 금이 보였다. 그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희망으로 번뜩였다.

호기심을 느낀 모코쉬는 아무 의심 없이 벨레스의 영토의 문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굴에 들어섰고, 그 순간 대지가 흔들리며 입구가 무너져 내렸다. 그리하여 하나뿐인 출구가 사라지고, 모코쉬는 저승에 갇혀 버렸다!



열 돌아온 고독

세계의 물이 점점 더 검고 탁해졌다. 물의 흐름이 멈추고, 귀귀한 고요가 대기를 채웠다.

그때, 프라보가 근심에 잠겨 이 세상에 내려왔다. 모코쉬가 아직 그를 소환하여 선물을 주지 않은 것이다. 그는 머나먼 곳까지 드넓은 세계를 모두 누볐으나, 그가 사랑하는 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프라보는 목놓아 부르고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로지 동물의 비명만 들릴 뿐. 헝클어진 그 소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늘로 돌아간 프라보는 위에서 연인의 흔적을 찾았다. 그녀가 지상에 없다면, 눈이 꿰뚫어 볼 수 없는 지하에 숨어 있을 것이 분명하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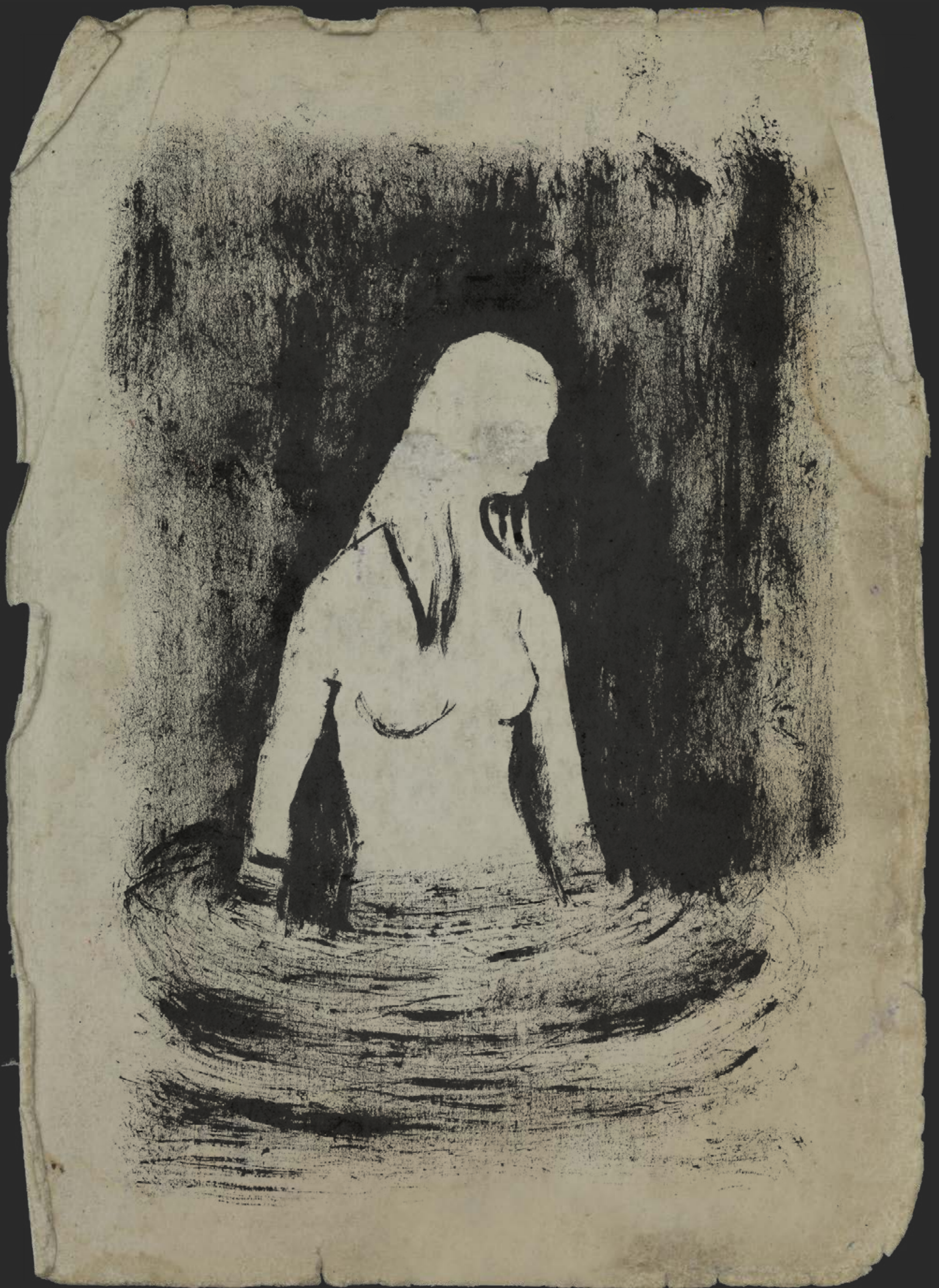
열하나 천둥의 주인들

프라보는 슬픔과 분노, 공포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그의 힘이 스산한 대기를 뒤흔들었다. 짙은 먹구름이 하늘에 낮게 깔려 대지를 뒤덮고 모든 동물을 겁에 질리게 했다.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 신의 힘이 담긴 섬광으로 하늘을 가르고 신의 눈물을 흩뿌렸으며, 바람이 숲 사이로 몰아치며 다시 한번 파도와 강의 물살을 흔들었다.

하늘에 천둥이 울려 퍼졌다! 저주하고, 외치고, 절망하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러한 번개와 천둥 사이에서, 그 맹렬한 흥포함과 용기, 정의로부터, 페룬이 태어났다! 그는 신의 복수자요, 프라보의 적의 적이었다.

하늘과 대지의 기둥이 전율하고, 페룬의 힘은 높은 구름 너머와 땅속 깊은 곳까지 이르렀다. 동물들은 그 앞에서 달아나고, 아무리 굳센 나무라도 그 앞에서는 허리를 숙였다.

맹렬한 천둥의 군주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확신했다. 그 자신을 제외하면 이 세계에 신은 하늘의 프라보, 물의 모코쉬, 대지의 벨레스 셋뿐이었기에, 페룬은 복수의 눈길을 저승의 군주에게로 돌리고 첫 번째 번갯불을 내리꽂듯 비난의 화살을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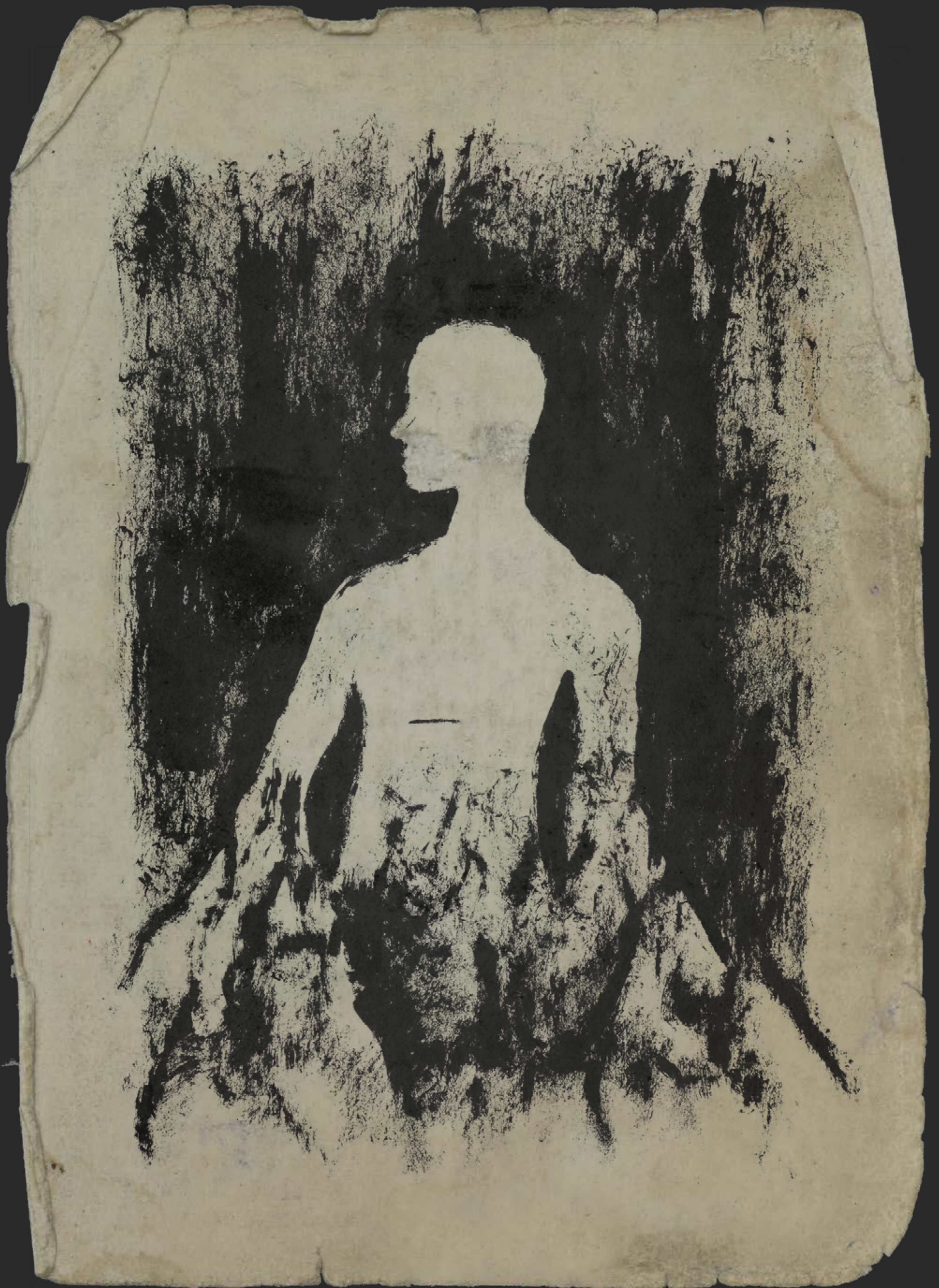
열둘 여자의 창조

페룬은 천둥과 함께 수많은 번개를 내리쳤지만, 그의 힘은 돌 아래 벨레스가 몸을 숨긴 저승에까지 미치지 않았다. 그래도 프라보에 대한 서약 때문에 그는 계속했고, 전투의 광기에 휘말렸다가 침묵하며 힘을 잃는 과정을 반복했다.

모코쉬가 프라보를 시들게 했기를 갈망하며, 그는 대지로 내려왔다. 하지만 그곳은 더럽고 단단하고 벨레스를 연상시켰으며, 그리하여 그는 날뛰는 강을 찾아가 기억에서처럼 그것을 삼켰다. 그곳에서, 그는 순수한 물을 마셨고, 신의 손은 수정처럼 맑은 물방울을 갈망하던 형태로 빚어 냈다.

그리하여, 프라보는 인간을 창조하고 그것을 여자라 불렀다. 그는 숨결을 불어넣어 여자의 폐와 심장을 움직이게 했고, 생명의 물이 그녀의 육신을 채워 정과 사랑, 인내심과 이해, 신비와 생식능력을 주었다.

프라보는 여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모코쉬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진 여자는 호기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또한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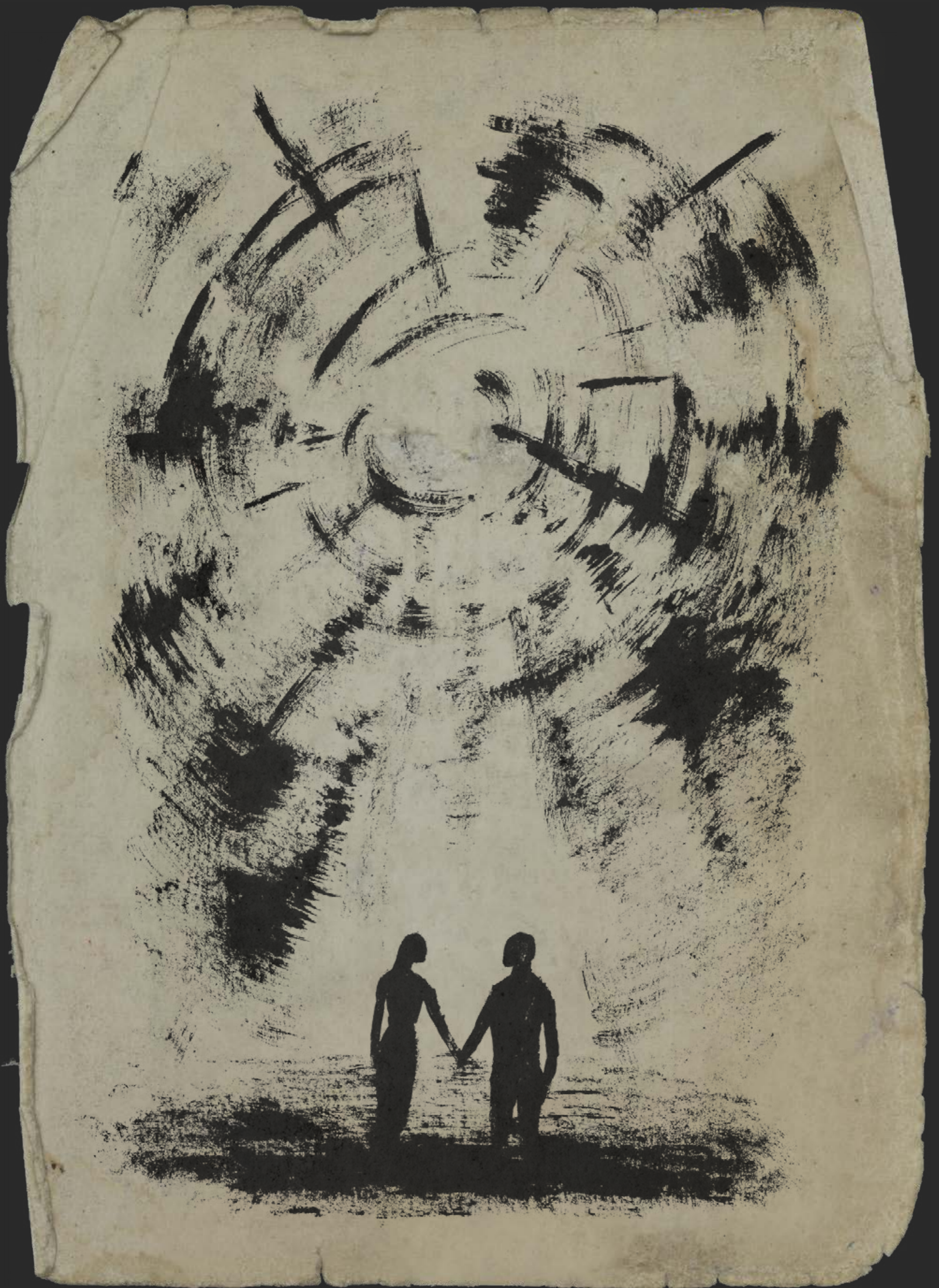


열셋 남자의 창조

여자는 세상을 구석구석 살피고 동물들의 발자국을 따라다녔지만, 어두운 동굴은 두려워했고, 곰은 피해 다녔으며, 멀리 떠날 힘은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혼자였으며 여렸다.

그리하여 프라보는 다시 대지로 내려가 증오스러운 벨레스의 바위로 나섰다. 그는 지혜로웠기 때문이다! 대지는 사랑하는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고, 그리하여 산처럼 굳세게 비와 돌풍, 폭풍을 모두 견뎌 냈다.

그리하여 그는 가장 단단한 바위를 골라 자신의 형상을 새겼으며,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은 후 남자라 불렀다. 그의 창조물은 바위처럼 튼튼했고, 벨레스와 프라보가 모코쉬를 사랑하였듯이, 둘이 하나가 될 것처럼 여자를 사랑했다. 남자는 거친 만큼 다정했고, 시기하는 만큼 배려했다. 그는 짐승으로부터 여자를 지키고 여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아주 멀리까지 여자와 동행했다.



열넷 다보의 용성

그들이 불어나는 광경을 보며 프라보는 기뻐했다. 모코쉬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지를 거닐고 있었기에.

호기심 많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더욱더 흡족했다. 그는 남자의 도움을 받으면 여자가 저승의 입구를 찾아낼 것이고, 그곳에서라면 신인 자신의 숨결로 모코쉬의 기척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때, 그의 기쁨과 희망, 자부심이 거대한 신의 햇불처럼 하늘을 환하게 밝혔고, 해가 생겨나 빛을 모두 한데 취하였다.

해는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찬란하고, 뜨거웠다. 그리하여 인간은 폐를 채우는 보이지 않는 바람보다 해를 더 열렬하게 숭배했다. 하지만 프라보는 걱정하지 않았다. 해 또한 그의 자식이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코쉬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였기에.

해는 신의 힘으로 가득 차고 인간의 기도에 이끌려 깨어났다. 그리하여 인간의 수호자요 프라보의 집사인 다보가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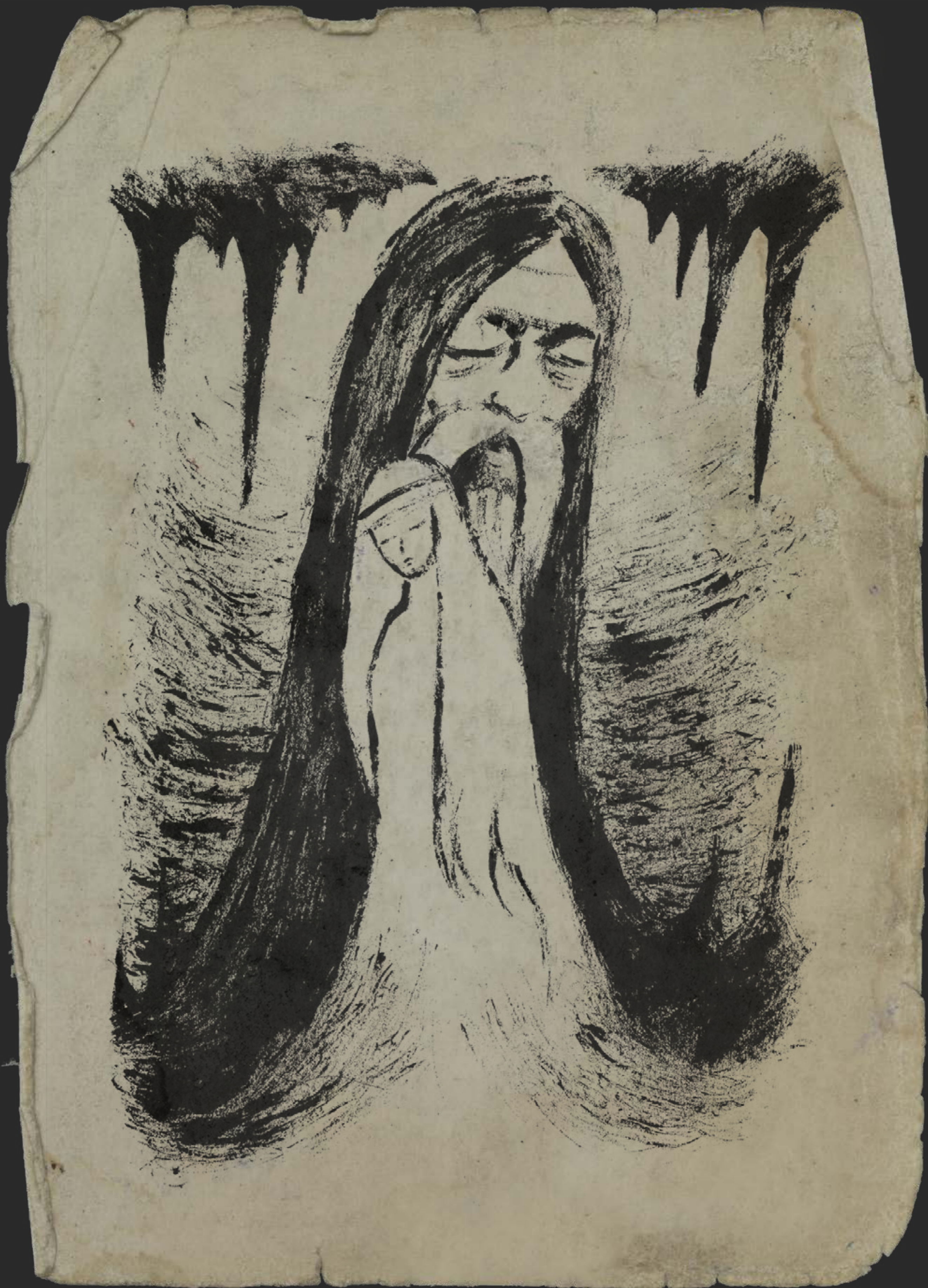
열다섯 행복의 시대

남자와 여자에게 대지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프라보의 숨결이 폐를 채워 주었고, 다보의 빛이 눈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페룬의 힘이 신의 힘에 대한 믿음으로 가슴을 채워 주었다.

인간은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져 식물과 동물과 더불어 살아갔다. 나무를 베어 집을 만들고, 동물을 사냥하여 고기와 가죽을 얻었다.

그들에게 삶은 평화로웠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신들이 굶주림과 추위, 짐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불어났고, 인간의 수가 늘어날수록 프라보는 더욱더 기뻐했다. 그는 조만간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땅은 없을 것이고, 인간이 신들에게 고백하지 않은 비밀은 없을 것이라 믿었다. 인간의 기도는 감로처럼 힘을 주었기에, 신들은 그들의 기도를 즐겼다.

한편, 대지는 인간들의 영향으로 변해만 갔다. 나뭇가지가 인간들의 도끼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사냥당한 짐승들은 줄지어 쓰러졌고, 비옥한 수풀은 적막한 사막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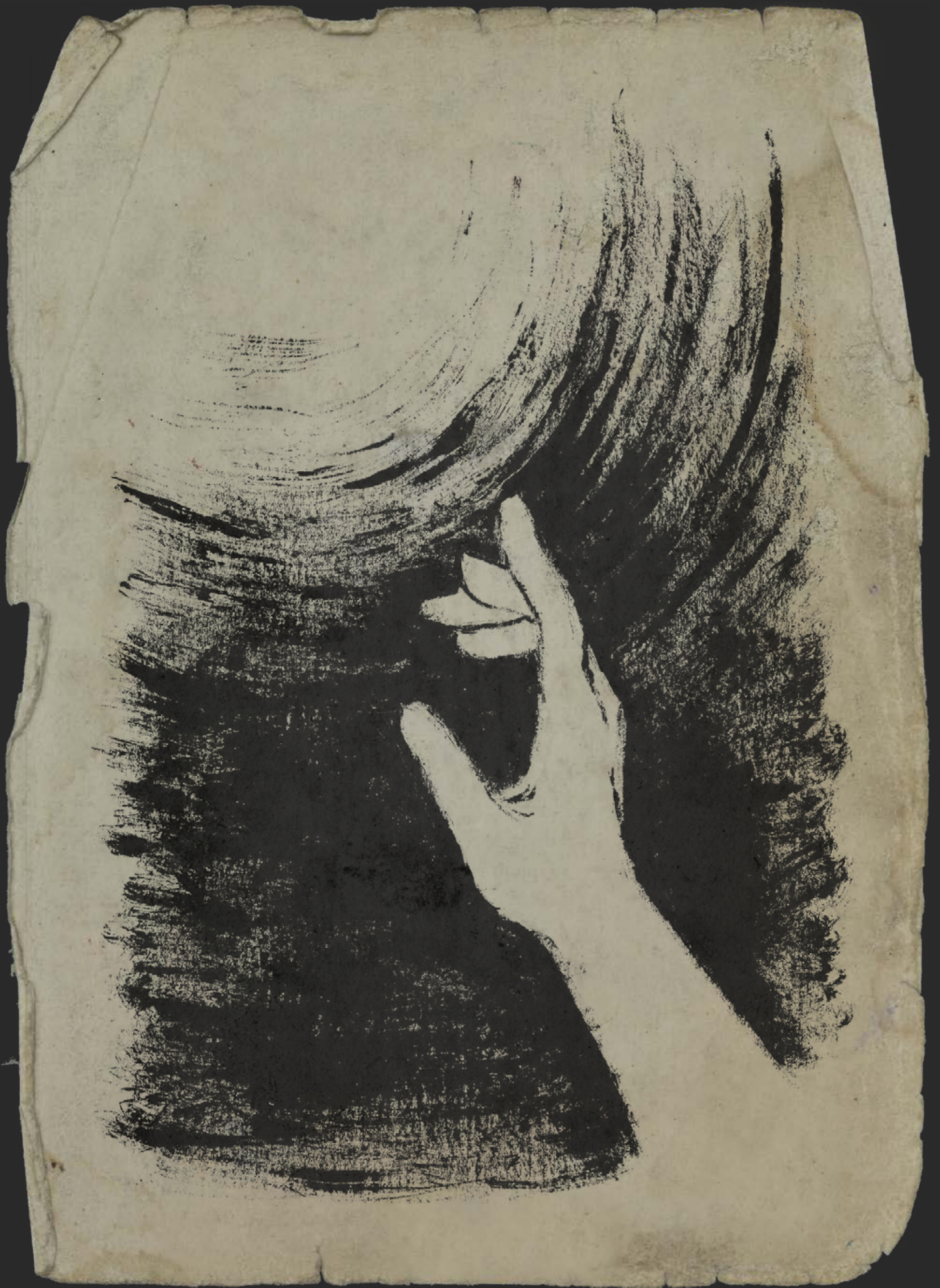
열여섯 황금의 왕국

시원한 공기와 빠른 물살에서 멀어진 모코쉬는, 망자와
귀귀한 웅덩이 사이로 동굴을 떠돌았다.

그때 벨레스가 나타났다. 그는 침울하였지만 갈증과 욕
망, 갈망으로 가득 차 있기도 했다. 여신은 겁에 질렸지
만, 그 사실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의 왕국 입구는 흥했고 벌레가 득시글거렸지만, 벨레
스는 모코쉬를 이끌고 계속 안으로 들어갔고, 풍경은 극
적으로 변화했다. 아아, 그의 동굴은 어찌나 경이로웠던
가! 갈비뼈처럼 솟은 산맥은 보석으로 가득 차고 황금
으로 뒤덮여, 어둠을 몰아내고 눈을 기쁘게 하는 힘으로
반짝였다!

벨레스의 왕국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지만 생기라고는
없었고, 그의 갈망을 알아차린 모코쉬는 그가 안쓰러웠
다. 그가 슬픈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생명의 기적을 보았으나, 그 생명은 그가 손을
대면 산산이 무너져 내릴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저승에
서 오직 죽은 물체만 조각할 수 있었고, 그가 지상에서
만들어 낸 식물과 동물은 그의 영역 입구를 넘지 않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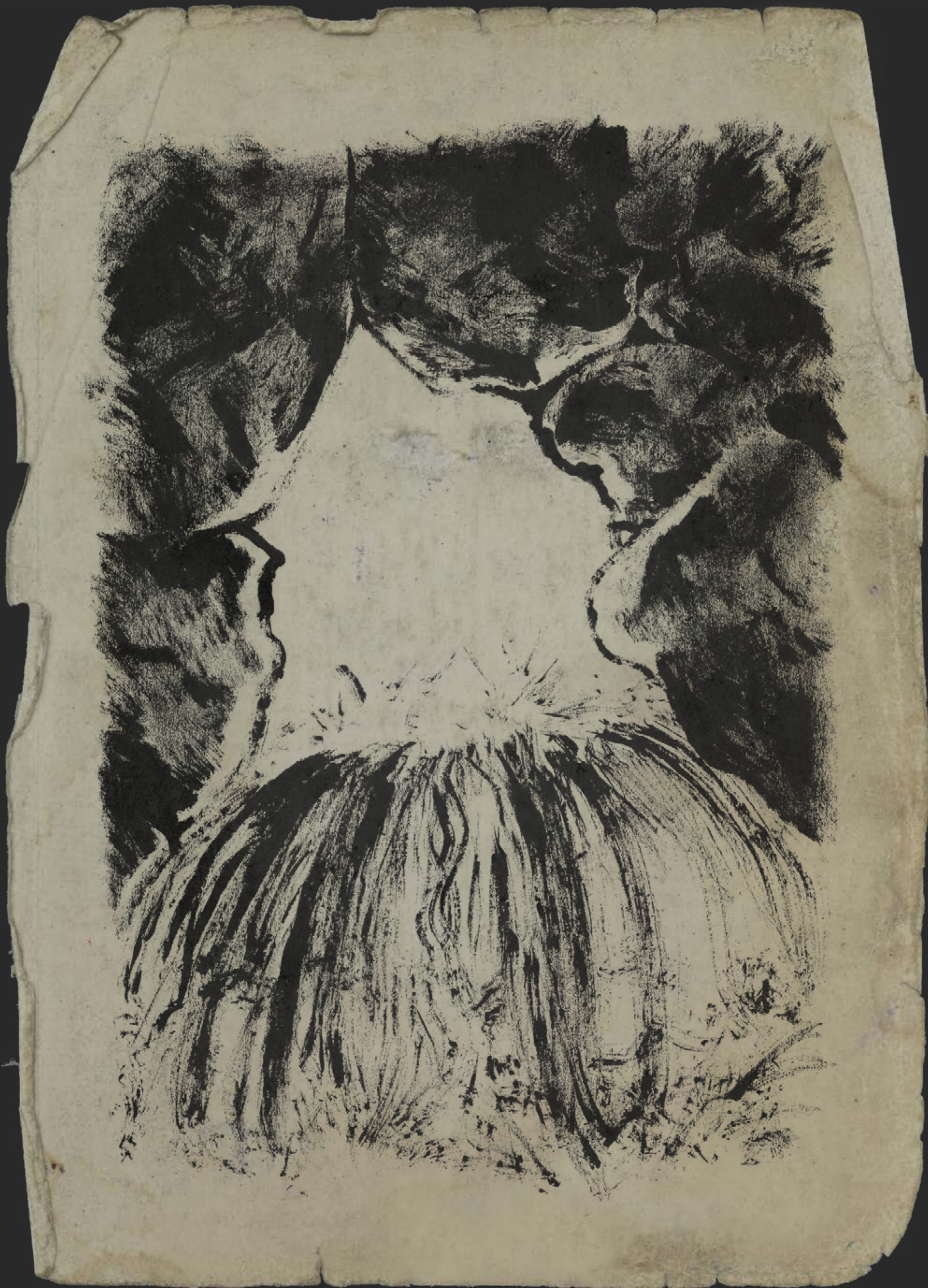
열일곱 프라보의 선물

그리하여 모코쉬는 지상을 갈망하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동물들과 경이로운 식물들, 흐르는 개울, 만물을 움직이며 노래하는 바람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 사이에서 그녀는 그 무엇과도 다른 새로운 생물을 보았다. 자신을 닮은 생물이었다! 그것은 여자였고, 그 곁을 프라보를 닮은 남자가 함께 걷고 있었다.

모코쉬는 이내 그들이 자신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자신과 프라보의 사랑을 추억하고 기리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그들이 그녀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벨레스 또한 그들을 보았고, 그는 시기심에 이를 악물었다. 저승의 군주는 인간이 근심 없이 증식하며 자신의 창조물을 파괴한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고, 모코쉬가 기뻐한다는 사실에 상심하였다.



열여덟 시간이 없던 시대의 끝

벨레스는 비통에 깊이 빠졌고, 모코쉬는 그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막대한 고통이 그의 안에서 끓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벨레스는 반신처럼 영원히 젊고 튼튼한 인간이 세상에 뿌린 파괴의 씨앗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 또한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움에 경탄하는 동안,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한지는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것이었다.

모코쉬는 걱정에 사로잡혔다. 프라보와 그의 창조물을 사랑하기는 하였으나 그녀는 벨레스의 경이로운 창조물 또한 아꼈고, 그의 동물과 식물들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녀는 동굴이 무너진 곳으로, 죽은 개울이 지상의 경계에 닿은 곳으로 갔다. 그녀는 웅덩이에 손을 댔고, 그러자 그녀의 손길에 깨어난 물이 바위로 쏟아지며 그 사이에 균열을 냈다.

모코쉬는 생명의 물을 소환했다. 벨레스의 짐승과 약초부터 프라보의 인간까지,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은 그 물이 저승의 여신에게 돌아와 대지의 생명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시간이 시작되었으며, 죽음이 생명의 강의 흐름을 바꾸고, 그 물살을 저승의 캄캄한 협곡으로 흘러 보냈다.



열아홉 영혼의 구원

그리고 만물은 필멸의 존재가 되어, 공포에 휩싸였다. 식물은 시들고 동물은 썩어 갔다. 여자의 자궁은 메마르고, 남자는 재가 되었다. 모코쉬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샘을 결속했고, 이에 모든 것이 태초와는 다르게 되었다.

여자와 남자는 죽어 갔다. 프라보가 불어넣은 숨결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마지막 숨결은 물 덕분에 맛본 삶을 갈망하여 정처 없이 온 세상을 떠돌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외쳤다.

그리하여 프라보는 새로운 동물을 만들어 냈다. 그들은 하늘에 살았기에 공기처럼 가벼웠고, 프라보는 그들에게 새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이제 필멸의 육신을 떠난 숨결은 새라는 말을 타고 프라보를 향해 날아와, 그의 곁에서 그에게 기억을 채워 주었다. 인간은 그러한 숨결을 영혼이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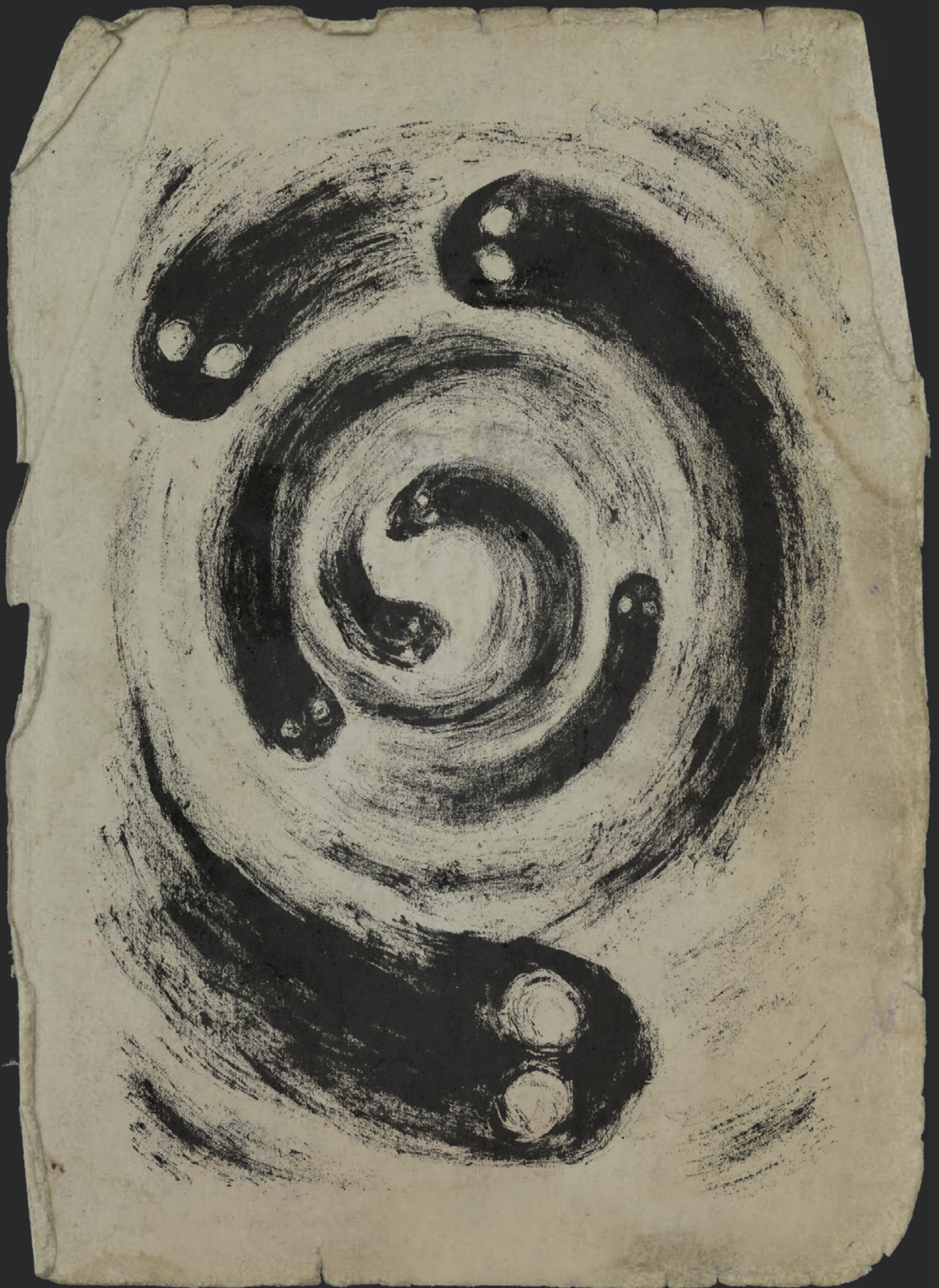
스물 벨레스의 전령들

벨레스는 새의 등을 타고 하늘을 나는 영혼과 자기 땅의 공허함, 모코쉬의 외로움, 지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 속에 깃든 갈망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새의 적을 만들었다. 새가 하늘과 이어져 있듯이 그것은 대지와 이어져 있었고, 새가 가벼운 만큼 그것은 무거웠으며, 새가 명랑한 만큼 그것은 음울하였다. 그는 새의 깃털 대신 비늘로 그것을 뒤덮었다. 노래하는 능력 대신 식식거리는 호흡을 주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 대신, 사지를 빼앗아 어느 구멍으로나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그런 후 벨레스는 그것을 자신의 전령으로 임명하고, 구령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구령이는 인간의 영혼을 노리며 상대를 물고 목을 휘감았고, 그들의 새를 죽이고 통째로 삼켰다. 구령이는 인간의 영혼을 붙잡으면, 달아날 곳 없는 땅속으로 끌고 갔다.

머지않아 저승은 영혼으로 가득 찼고, 이들 모두 벨레스를 섬겼다. 그들은 시간의 끝까지 영원토록 모코쉬와 함께할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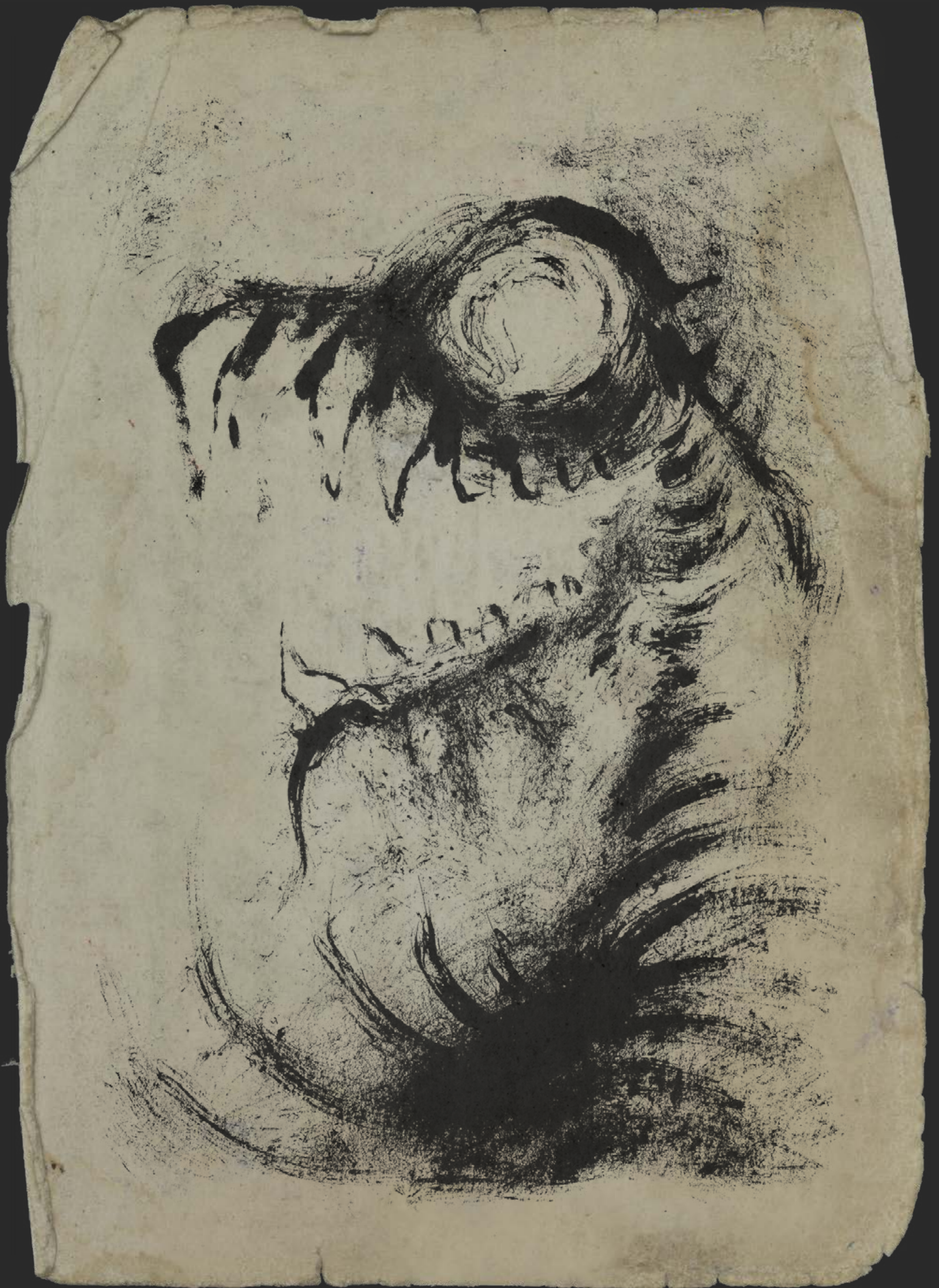
스물하나 영혼의 이 중성

벨레스의 선물을 받고도 모코쉬는 기쁘지 않았다.

햇살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공기처럼 가벼우며 샘솟는 물처럼 깨끗한 영혼도 있었다. 모코쉬가 그런 영혼에 손을 대면 영혼이 품은 기억이 기쁨을 가져다주었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행복과 온기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목이 메거나 옆구리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설명하기 힘든 짐에 짓눌린 영혼도 있었다. 모코쉬는 그들의 공포와 슬픔, 분노를 느끼고 그런 영혼을 피했다. 그런 감정은 생각에 독을 풀고 폐를 짝 막을 뿐이었다.

벨레스 또한 그런 차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불안해하는 영혼은 생명을 빨아들여 독으로 바꾼다는 것도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벨레스는 그런 영혼들을 붙잡아, 실패한 생물의 잔해를 꺾매어 만든 껍질에 옥여 넣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모습이었고, 그 일그러진 형체 안에 갇힌 영혼들의 생각 또한 경악스러웠다. 그리하여 그는 그런 존재를 흉물이라 불렀고, 그들을 지상으로 보내 인간을 처분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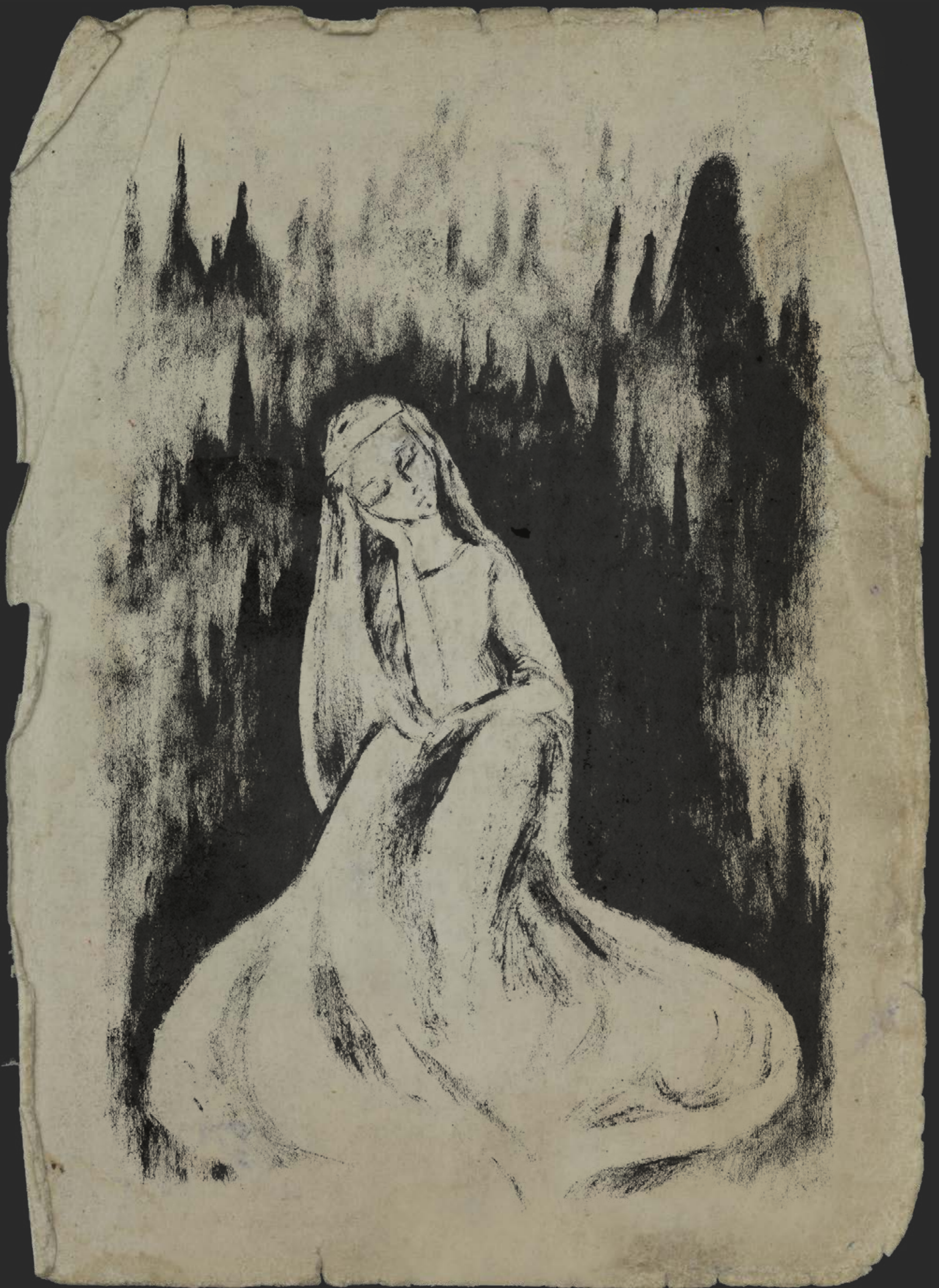
스물둘 참혹의 시대

아아, 그 얼마나 두렵고 참혹하였는지! 벨레스는 첫 번째 흉물을 저승에서 내보냈고, 대지의 배를 열고 그로부터 부패한 것을 모조리 뱉어냈다. 그리고 그 흉물은 해충처럼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본래 맑았던 생명의 물을 더럽힌 진창은 벨레스로부터 흘러나왔으며, 거짓 신성으로부터 태어났다. 그것이 인간의 심장과 정신을 오염시키고, 그들의 기억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감정을 고통으로 얼룩지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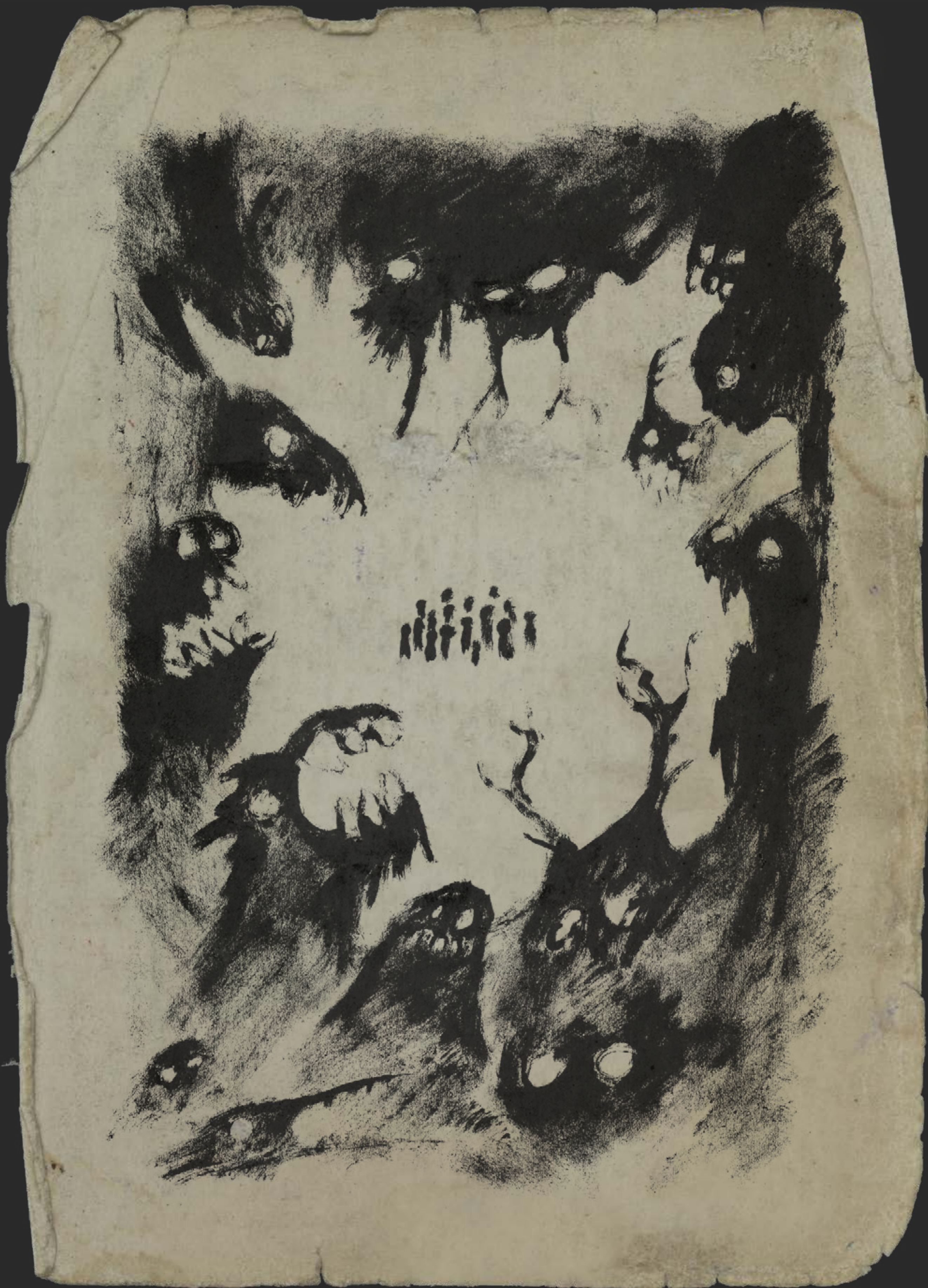
그리고 그들로부터 벨레스는 악몽의 군대를 만들어 냈다. 불안정과 사됨, 탐욕과 열정, 교만과 경멸이 현실에 나타났고, 인간과 공기로부터 태어난 것은 모두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벨레스의 힘은 크고도 무자비했으나, 그보다 더욱 컸던 것은 사랑하는 이가 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인간들이 그의 창조물을 짓밟았을 때 느낀 경멸과 모욕감이었다. 그리하여 벨레스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인간들에게 흉물을 보냈고, 그리하여 참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스물셋 슬픔에 잠긴 모코쉬

모코쉬는 벨레스의 고독하고 음울한 존재에 슬픔을 느꼈다. 비록 결코 얻지 못할 운명임에도, 그가 빛과 온기,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모코쉬는 그의 열정과 힘, 그가 지상에 세운 것들의 위력, 그가 저승에 일으킨 기적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의 안에 자리한 시기심, 날것 그대로인 힘, 충족되지 않는 욕망이 두려웠다. 그리고 모코쉬가 벨레스의 음울한 성격에서 나온 가장 악질적인 존재인 흉물들을 보았을 때, 그녀의 두려움은 백 배로 커졌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신으로서의 연민으로 자신과 연결되어 있던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모코쉬는 더럽혀진 영혼들을 찢어 갈라 버리고 싶었지만, 그들을 공허에 가두는 것도 못 할 일이었다. 흉물의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타락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신의 시기와 열정이라는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모코쉬는 자비심과 동정심, 인내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 영혼들에게 이와 다른 운명을 주고 싶었다.



스물넷 거짓 약속

그리하여 모코쉬는 벨레스를 찾아가 흥물에 관해 따졌다.

그리고 벨레스에게 흉악한 개들을 묶고 죄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을, 그리고 자연을 지키는 것 외의 일을 모두 그만두라 지시하라고 일렀다. 또한 혹여 소임을 다 하고 쓰러지는 흥물이 있다면, 그것을 암울했던 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타락을 깨끗이 정화하여 벨레스의 세계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더러운 탈을 씌우지 말라 약속을 받았다.

벨레스는 약속했고, 모코쉬는 이에 안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흥물에게 미치는 그의 힘이 미약하며, 그 약속이 실은 집채만 한 짐승을 매어 둔 미끄러운 밧줄이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털어놓지 않았다. 그것에는 공기와 물만 가득하고, 흙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 벌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으며, 그것이 참혹의 시대가 품은 비밀이었다.



스물다섯 두려움과 무력함

흉물들은 가장 무시무시한 괴물이었다.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지만, 때때로 양쪽을 모두 닮은 듯이 보일 때도 있었다. 몸집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며, 죄악처럼 보기 흉한 것도 있고 내밀한 욕망처럼 보기 좋은 것도 있다. 조용히 살며 인간을 피하는 것도 있고, 마치 늑대가 그러하듯 인간의 냄새를 쫓아가 목을 졸라 죽이는 것도 있다. 또한 희생자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주며 쾌락을 느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까마귀가 그러하듯 숨통이 붙어 있는 동안 찢어 발기는 것도 있다.

그리하여 가족들은 한데 모여야 했다. 삼삼오오 모여 살고 농사를 지으며 서로를 지켜 주어야 했다. 근심 걱정 없던 시절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고, 그로부터 모두가 공포 속에서 살아갔다. 모두가 제 본분을 알아야만 하였고, 족장의 말에 복종해야 하였으며, 함께 싸우는 이들을 숭배해야만 하였다. 그러지 않으면 그 누구도 흉물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사들의 명망은 암울하였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흉물이 나타나면, 전사들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용맹스럽게 적과 싸워야만 했다. 오직 부족이 무사히 도망칠 시간을 버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스물여섯 해의 강림

실로, 참혹의 시대는 대단히도 끔찍하게 시작되었다. 인간들은 흉물의 무시무시한 힘에 시달려 죽어 가고 있었다. 그들은 겁 많은 사냥감처럼 옹기종기 모였고, 늑대 떼 앞의 어린아이처럼 무력하였다.

참으로 보기에 슬픈 모습이었으리라. 인간의 가련한 몰락과 흉물들의 혐오스러운 득세를 그린 충격적인 광경이었으리라. 다보는 위에서 이를 낱낱이 보고 있었다. 하늘을 지키는 자이자 크게 베푸는 자, 행복한 입맞춤이 현신한 듯 따스하고 찬란한 자, 하늘의 해만큼이나 강인하고 적수가 없었던 그가.

그리하여 다보는 대지에 내려와, 인간들을 주위에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무를 주워 높이 쌓은 후에, 그 주위에 돌로 원을 그리라 지시하였다. 이 허황한 짓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나, 그들은 위대하고 인자하신 신의 말씀대로 하였다.



스물일곱 신의 심장

찬란한 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고양감에 젖어 있었다. 다보는 참으로 아름다웠고, 그의 힘은 뻑뻑한 숲을 뚫고 비치는 금빛 광선이 그러하듯 충족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일제히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 다보가 자신의 육신에서 활활 타는 심장의 절반을 꺼내 눈앞의 나뭇더미에 던졌기 때문이다. 나무에 불이 붙자 그는 그것을 모닥불이라 하였다. 그곳에서 밝음과 뜨거움이 시작되었고, 모든 인간의 심장에 힘이 흘러들었다. 인간에게 불이라는 선물을 내리신 다보를 찬미하라!

인간들은 기꺼워하고 경탄하였으나 신의 선물은 가지고 놀기 위한 것도,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신은 인간들을 늪지로 인도하고 막대로 젖은 흙을 찌르기 시작하였다. 막대는 마침내 무른 살 아래에 숨은 뼈처럼 단단한 곳에 부딪혔다. 다보는 인간들에게 그 흙에서 대지의 뼈를 꺼내라 명하고, 그것을 철이라 칭하였다. 또한 그것을 불 속에 던지라 명하며, 그리하면 그것이 흙물에 대항하는 무기가 될지니 하였다. 그것은 흙에서 찢겨 나와 불길로 단련된 무기일 것이었다.



스물여덟 대지의 뼈

철은 대지의 뼈이기에, 우리는 대지의 살갓 아래 숨은 지방처럼 풍부한 가장 무른 늪지로부터 철을 취한다.

그러나 대지는 뼈를 순순히 내주지 않았다. 늪지에 들어가는 자는 조심해야 한다. 이미 수렁에 끌려 들어간 자도, 수렁이 뿜어내는 독기로 인해 감각을 잃은 자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늪지를 자신의 영토라 부르는 자애로운 존재가 하나 있다. 현혹하는 자라 불리는 존재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흉물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나, 광석을 찾는 자는 조심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뿔 달린 거대 풍뎅이를 닮았으며 도깨비불처럼 늪지 위를 부유한다 말한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철 광맥으로 인도하고, 심기를 거스르는 자는 길을 잃고 최후를 맞이하도록 인도한다고 한다.

이 생에서 좋은 것은 공으로 얻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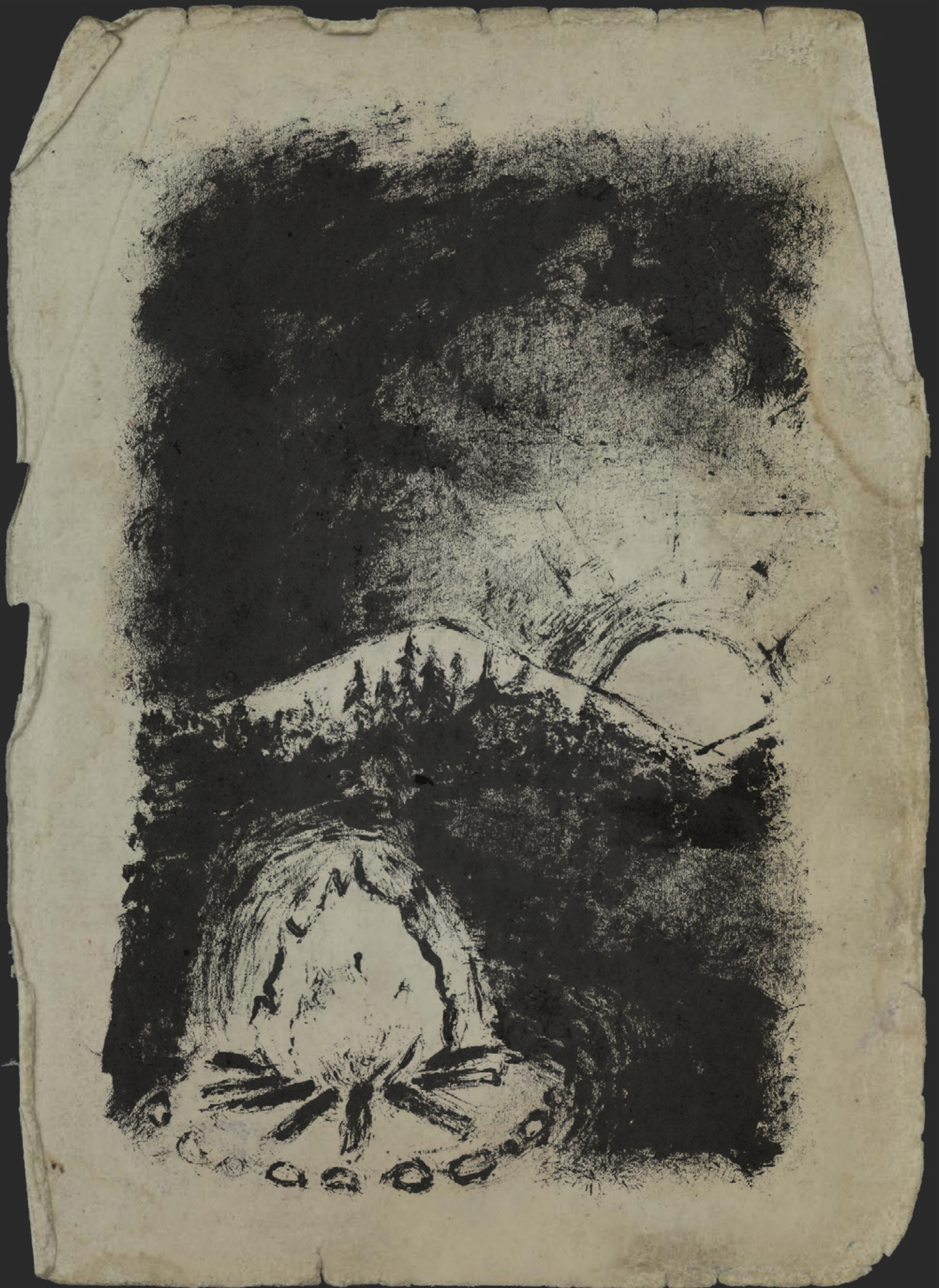


스물아홉 신의 검

뼈를 꺼낸 후에는 점토와 풀로써 깔때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마른 후에는, 그 안에 나무와 대지의 뼈로 넣고 불을 지펴야만 한다. 뼈에 불이 붙으면 오물은 모두 타 버리고, 가장 귀한 핵만이 남는다. 그런 후에는 그것을 그릇에 담아 녹여야 하며, 그것이 뜨거운 피의 형상으로 변하면 미리 준비해 둔 점토 틀에 부어야 한다. 피가 굳은 후에 틀을 깨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을 불 속에서 망치로 두드려 검을 만든다.

사람들은 한때, 검이 흉물에게 잘 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는 이에게도 좋은 짝이 되기 위해서는 전사가 숲으로 가서 쿠드라크를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사가 마음에 들면, 쿠드라크는 늑대나 곰, 물소의 탈을 쓰고 나타나 전사를 시험한다. 그가 짐승을 쓰러뜨린다면, 신에게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그러나 쿠드라크가 나타나지 않거나 전사를 후려치면, 그 검은 더 강한 전사에게 넘겨 주어야 하였다.

과거에는 그러하였다. 그러나 흉물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들만 남아 있는 지금은, 전사들이 무리를 지어 덤빈다 하여도 그중 하나조차 쓰러뜨리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드라크의 축복은 받을 가치가 있다.



서른 어둠의 등장

다보를 찬미하라!

인간을 위한 다보의 희생은 대단하였다. 지상에 불을 두고 왔을 때, 그는 하늘로 돌아가 해로서 인간의 길을 비추었으나 아아, 통재라... 힘은 절반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 후로 해는 세상에 빛을 내린 후 쉬고 잠을 자며 힘을 회복해야만 했다. 지친 해가 지면 어둠이 그 자리에 나타나 밤을 불러왔다. 밤은 인간에게는 가장 무시무시하고 낯설며 위협적인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에는 그들을 굶어살필 신의 수호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로지 불만이, 신의 가슴에서 뜯겨 나와 나뭇가지와 기름을 먹고 자란 불만이, 인간을 위하여 어둠을 밝혀 밤에 대한 공포를 덜어 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낮에 해를 숭배하듯이, 불을 숭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낮에도 불을 칭송하기 시작하였다. 불은 강력하고 좋았으며, 뜨겁고 매혹적이었기에.

다보를 찬미하라! 그의 심장을 찬미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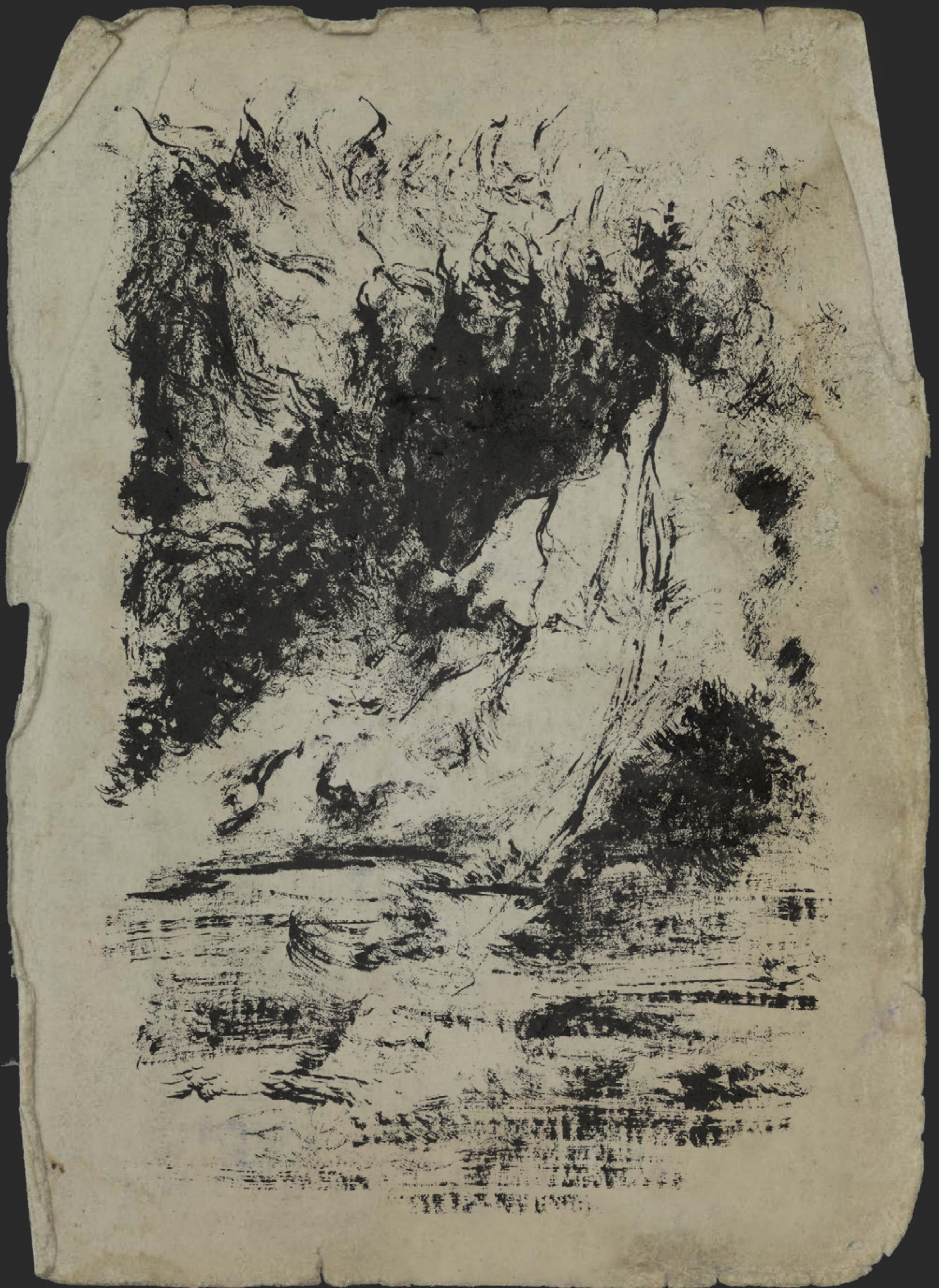
서른하나 불의 변덕

불은 신의 심장이라, 용감하고 강인하며, 선하고 변덕스러우며, 파괴적이면서 창조의 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흠물은 불을 좋아하지 않는다. 불길은 그들의 타락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이 비록 아름답고 훌륭하다 해도, 완벽하지는 않았다. 신의 심장 전체가 아닌, 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불은 계속 살려야만 하고, 주의 깊은 생각을 땀감으로 주어야 한다. 불을 흠물에게 던지면, 그 타락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이 파괴되고, 사냥감은 겁을 먹어 멀리 흩어지고, 작물은 재가 되어 버릴 수 있다. 불은 땀감을 먹을수록 점점 자라나고, 허기도 점점 강해진다.

신의 선물은 합당하게 사용하고 탐욕을 경계해야만 한다! 불이 있을 곳은 햇불과 모닥불 속이며, 지저분한 존재를 멀리하고 땅거미가 내린 후에 길을 밝히는 데 사용된다. 또한 불을 크게 키울 때 용기가 없다면, 악천후를 막아 주고 사고로부터 지켜 달라고 리초에게 자비를 구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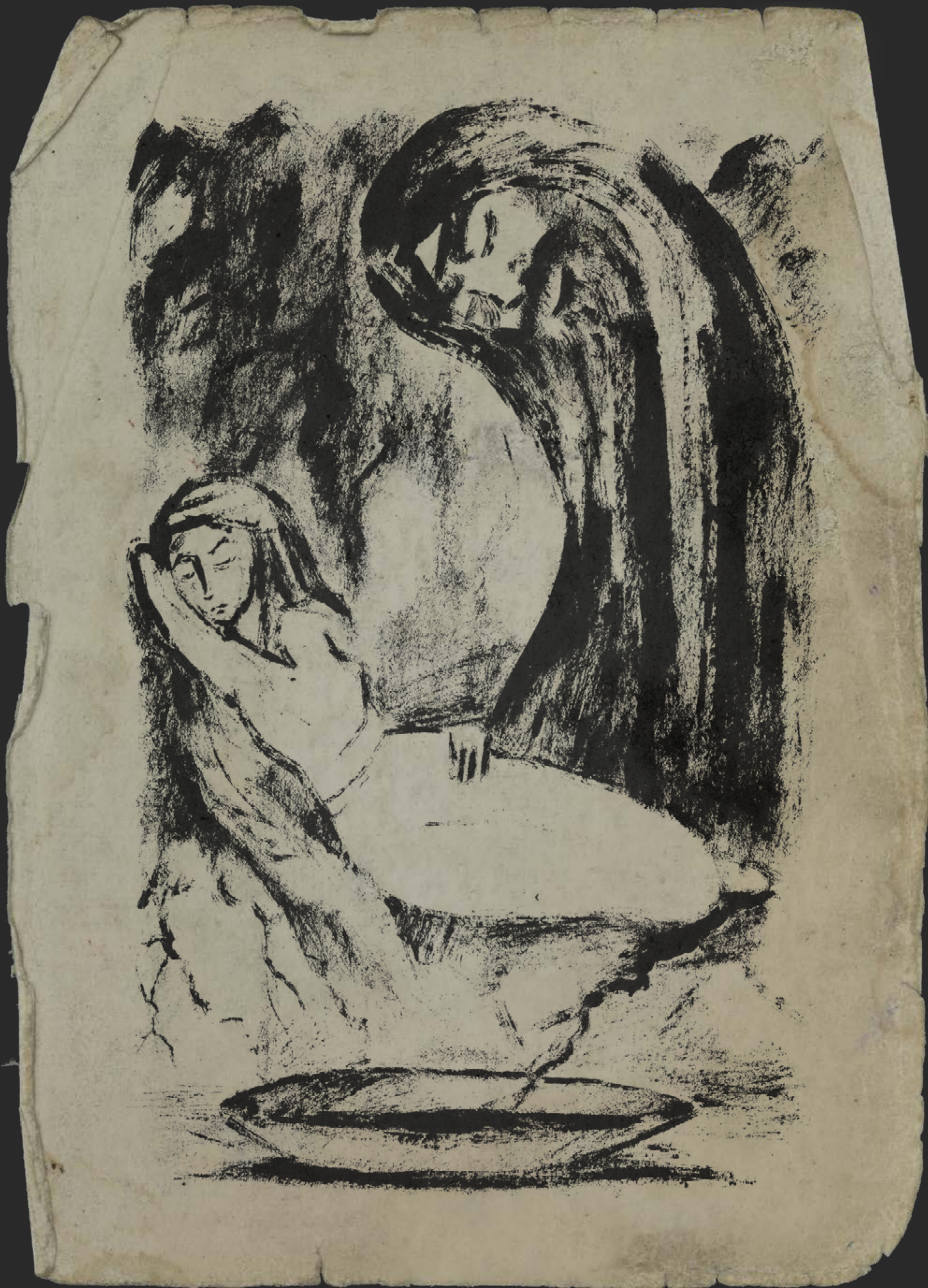


서른둘 불길

불은 나뭇가지와 기름을 집어 삼키고, 대지와 벨레스의 힘으로 태어난 것을 모조리 집어 삼켰다. 벨레스의 창조물에게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적이였을까! 불이라는 선물은 참으로 위대하고 좋았다. 다보를 찬미하라!

한때 불꽃이 튀었던 곳에서는, 식물이 절을 하고 사냥감이 도망쳤다. 불은 만물을 집어삼켜 재만 남기고, 벨레스의 마법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대장장이 신 다보의 가르침대로 대지의 내장에서 꺼낸 뼈, 즉 철을 활활 타는 품으로 던졌다. 인간들은 철로 화살촉을 만들어 동물들에게 공포를 불어넣었고, 여자들은 다보를 찬양하는 의미로 철을 몸에 지녔다.

이 모든 것을 저승의 보금자리에서 지켜본 벨레스는, 처음에 불과 그 위력에 겁을 먹었다. 하나 벨레스는 교활하고 음울한 신이었으며, 그가 건드리는 것은 모조리 타락과 부패로 변했다. 아아, 그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니! 아아, 그의 길을 막아서는 이에게 화가 있을지니!



서른셋 음모

벨레스는 오래도록 불을 지켜보며, 그것을 막아 내고 자신의 창조물이 활활 타오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하였다. 동물과 식물은 모두 타오르는 햇불을 든 인간에게 굴복하였고, 흙물들조차도 불을 보면 벌벌 떨며 다보의 심장을 두려워하였다. 또한 철 발톱으로 무장한 인간은 이제 무방비 상태의 먹잇감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많은 흙물들은 사냥 욕구를 억누르는 수밖에 없었다.

불이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딱 두 가지뿐이었다. 바위와 강, 즉 대지의 심장과 물의 피였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밤 지친 모코쉬가 곤한 잠에 들었을 때, 벨레스는 어둠의 장막 아래로 기어, 그녀의 몸에서 서서히 흘러나가는 피를 흡쳤다. 이는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여자의 몸에서 흘러나가는 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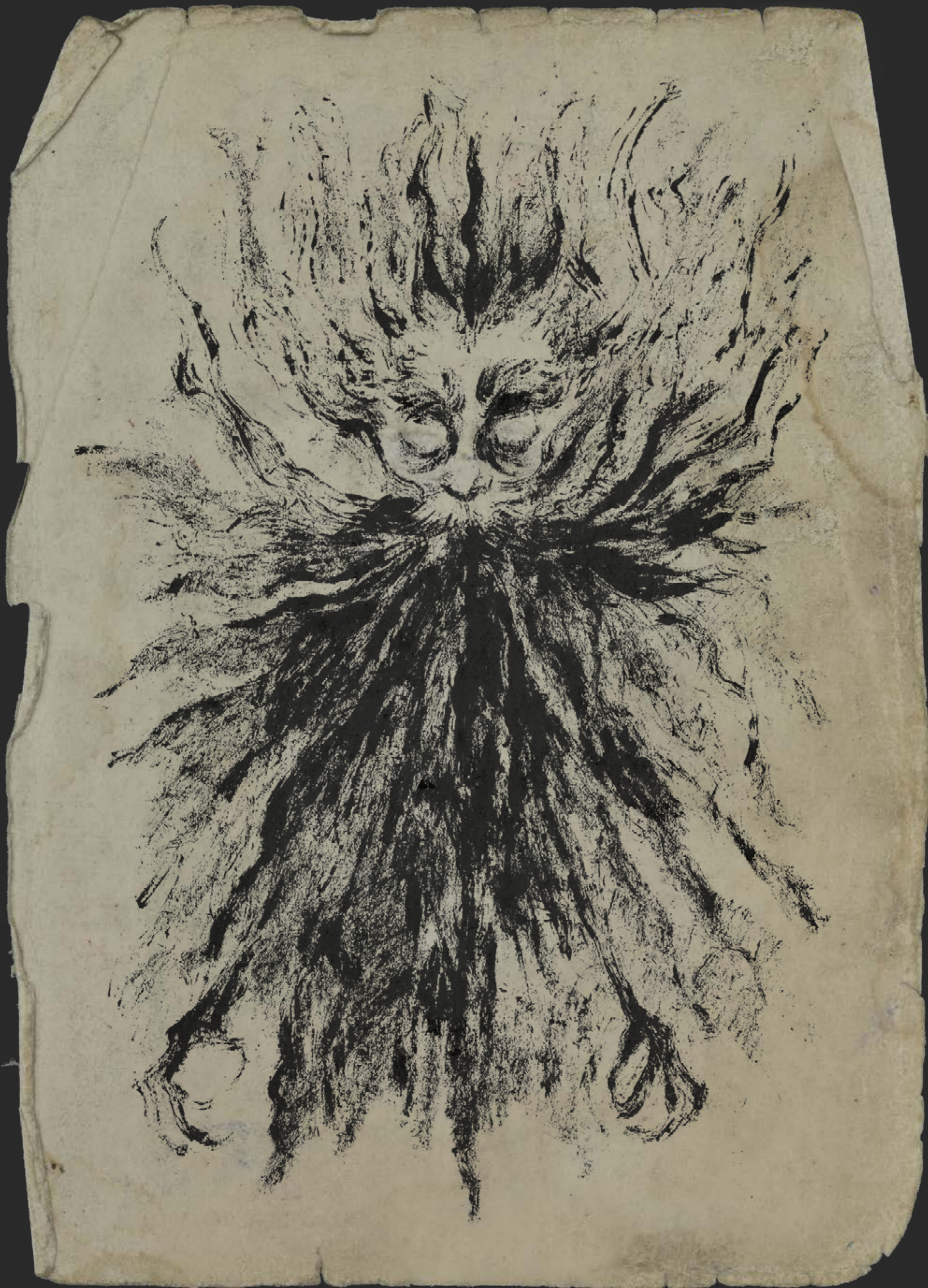


서른넷 저승의 대공

벨레스가 남몰래 마법을 걸자 모코쉬의 피는 반짝였다. 그가 하늘에서 흠친 힘은 태초 이전에는 물과 하나였기 때문이다.

벨레스는 수정처럼 맑은 모코쉬의 피를 가져다가 그가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무시무시한 형태로 부었다. 그러나, 그것에 공기의 힘을 불어넣을 뜻은 없었다. 하늘의 숨결은 불에 먹이를 주어 더욱 키울 뿐이기에. 이에 벨레스에게는 다른 힘이 필요했다.

다보가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활활 타는 심장을 일부 뜯어내었듯이, 벨레스 역시 인간의 절멸을 갈망하며 자신의 육신에서 한 조각을 뜯어냈다.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검은 바위였으며, 가장 샷된 생각과 가장 무거운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벨레스의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흉한 존재에게 힘의 원천이자 의지가 되었다. 불을 비웃는 구렁이와 흠물의 대공, 인간의 적에게는 즈미즈라는 이름이 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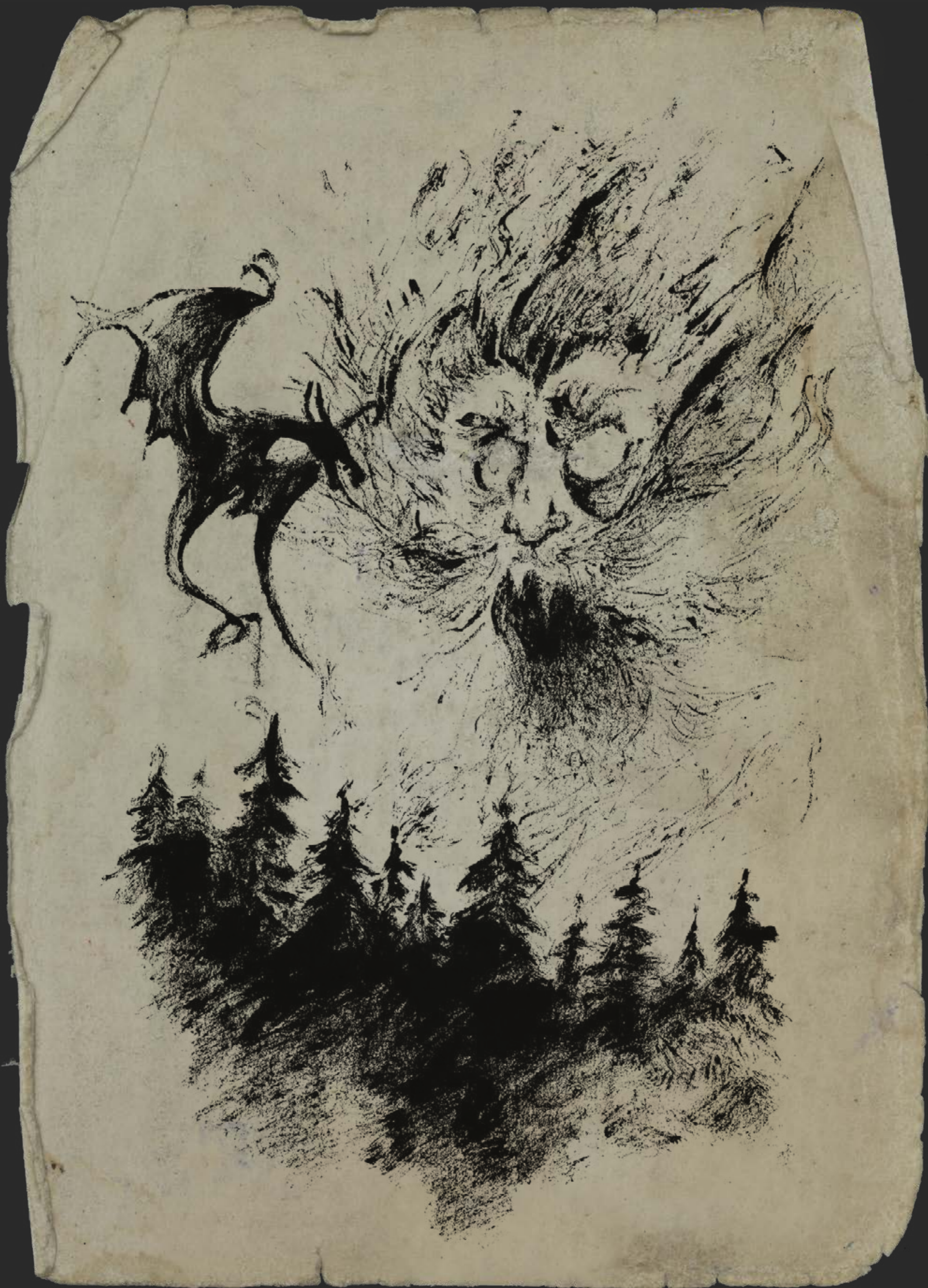
서른다섯 불의 유혹

즈미즈를 보는 자는 마치 돌로 변한 듯이 얼어붙은 채로 순수한 공포에 질려 영혼을 빼앗겼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즘미즈에게 불을 지르고 활활 타는 원으로 그를 둘러쌌다. 그러나 불의 헛바닥은 즘미즈의 비늘을 헛되이 핏을 뿐이었다. 벨레스의 장군, 구렁이 대공이 햇불을 향해 꼬리를 살랑 흔들면 불은 추풍낙엽 처럼 꺼져 버렸다.

아아, 불의 패배는 얼마나 컸던가! 그의 모욕감과 분노는 얼마나 컸던가! 벨레스는 불에게서 탐욕과 열정을 보았다. 그 두 가지는 그 역시 익히 알았으며 어찌하면 커지는지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불을 찾아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불에게 힘의 맛, 승리의 냄새, 그리고 경외와 숭배의 달콤한 선율에 관해 말하였다. 귀를 기울이던 불은 흥분을 못 이기고 붉게 변하였다. 암탉이 달걀 속의 병아리를 따뜻하게 품듯 열이 그를 품었다.

그러나 이 알을 품은 것은 암탉이 아니라 바로 저승의 군주, 즘미즈의 아버지였으니! 그리하여 알 껍데기가 깨어지자 광기와 갈등의 신이 나왔으며, 그의 이름은 스바로그였다.



서른여섯 얼룩진 불

아아, 참혹의 시대는 참으로 끔찍하도다! 피와 광기의 시대이자 불길과 어둠의 시대다! 이 흉물의 시대는 끔찍하고, 뱀이 득시글거리는 길은 두려우며, 대공이 드리우는 부정함 그림자는 심장에 공포를 가득 불어넣는다.

유일한 희망은 다보에게, 높은 곳에서 빛나며 안전한 길을 보여 주는 해에게 있었다. 그림자는 해를 피해 도망치며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법이니.

스바로그의 광기를 함께하는 자, 불에 뛰어들어 불을 숭배하는 자에게 파멸 있으라! 불은 벨레스의 마법으로 오염되었으며, 그 마법에 의존하였다. 벨레스가 만든 기름과 나뭇가지가 아니라면 불이 무엇을 먹겠는가? 아아, 선한 다보는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그가 자신의 심장으로 만든 무기가 제멋대로 힘의 맛을 보았으니.

스바로그가 자신을 먹이고 키워 준 벨레스에게 어찌 저항하겠는가? 뱀이 병아리의 목을 조르듯 자신의 목을 조르는 즈미즈로부터 어찌 우리를 지켜 주겠는가?

불의 거짓 빛에 눈이 멀어 그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니!



서른일곱 불타는 행렬

불의 신과 그를 숭배하는 배신자들은 하나같이 어찌나
기만적인지!

불은 벨레스의 약속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고 그의
협박에 굴하였다. 그리고 탐욕스럽고 용기 없는 자들이
불길의 행렬에 합류하였다. 미친 신의 이름으로 자신에
게 낙인을 찍는 사람이 어찌 제정신일 수 있을까? 다른
부족들을 습격하는 자들에게 용기라는 것이 있는 것일
까?

그들은 열기로 인하여 미쳐 버렸으나, 동정받을 자격은
없었다! 그들의 신 스바로그는 벨레스의 속삭임을 듣고,
오직 흥물과 즈미즈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불과 대지 앞
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모조리 살해하고 약탈하겠노라
맹세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악이 참된 신들을 숭배하는 이들의 적이
되었고, 올곧은 인간의 정신은 광기에 물들었다.

그들은 이런 말을 외쳤다.

우리에게 화가 있을지니, 우리에게 화가 있을지니! 불
은 제물을 먹고 자라난다! 우리 역시 우리 신들께 양식

을 바쳐야만 한다! 제물을 바쳐라! 제물을 바쳐라! 목을
줄라 프라보께 숨결을 돌려드리고, 물에 빠뜨려 모코쉬
께 힘을 돌려드려야 한다! 페룬의 이름으로 주먹으로 쳐
야 한다! 우리를 위하여 심장을 떼어 내신 다보를 위하
여 피를 흘려야 한다!



서른여덟 스바로그의 신성 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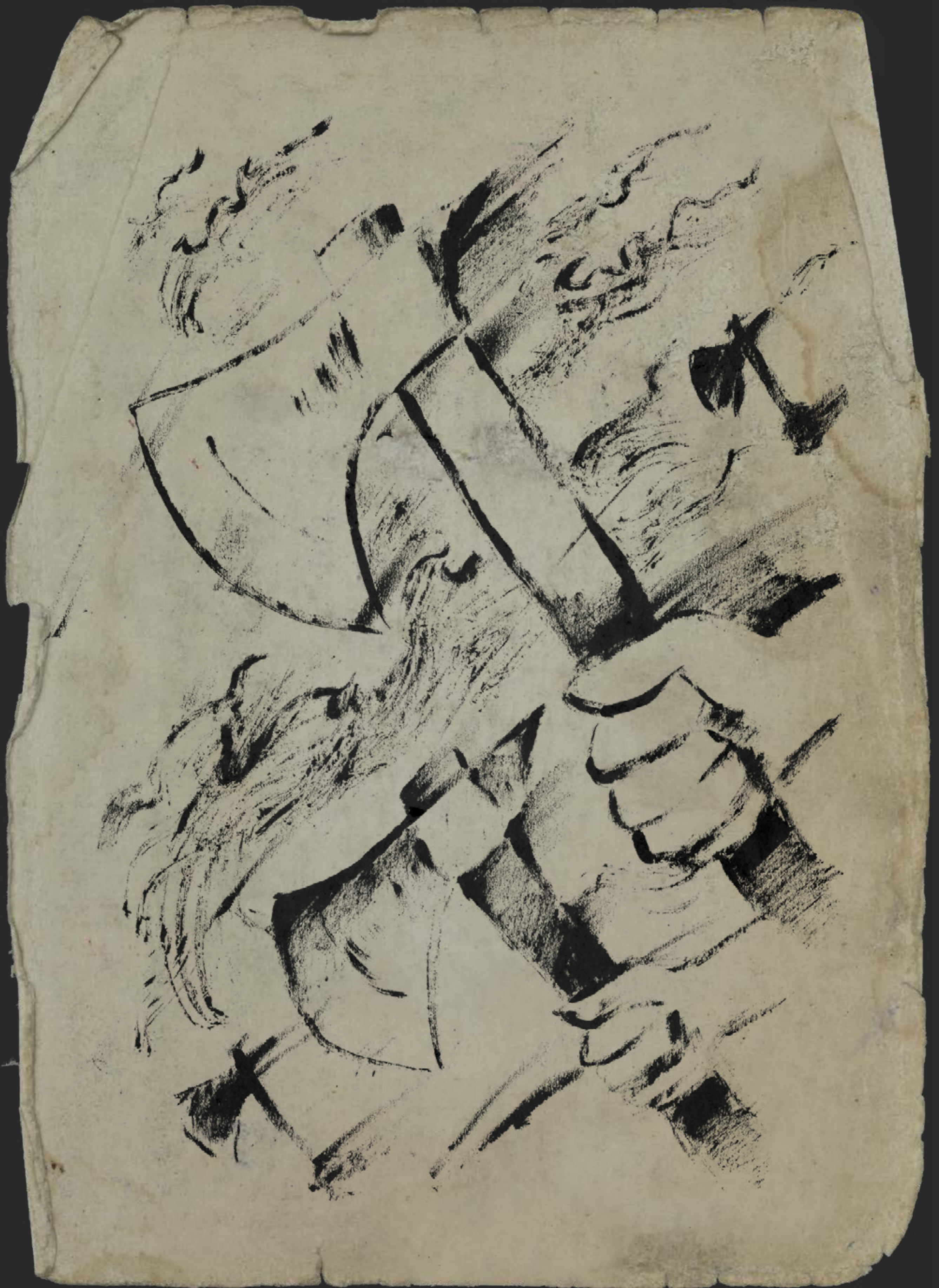
불 사제를 숭배하는 자들의 말이 그들의 광기를 증언한다. 이는 바로 나, 가알이 그들의 고르드 근처에 숨어들었을 때 엿들은 바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신들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쪽은 세상의 창조주이고, 한쪽은 그들의 추종자다! 사람이 신의 추종자라는 것은, 인간이 동물에게는 신인 것과 같은가? 인간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번식시키고, 동물의 생사를 지배하지 않는가?

그러나 인간은 동물보다 강력하다! 인간은 신들과 협상하는 법, 신들의 의표를 찌르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 보아라. 인간은 돌로부터 불길을 일으키고, 물로 불길을 죽이지 않는가. 바로 인간이 불을 신으로 만들고, 인간을 추종자로 삼은 이들에게 반하게 하고, 인간에게 사냥감과 식물과 샘물을 준 이들과 손을 잡게 하였노라! 이곳에 인간이 있다! 타오르는 햇불을 들고, 불로써 길을 뚫고 적을 집어삼키는 인간이!

인간을 찬미하라! 불을 찬미하라!



서른아홉 불의 자양분

스바로그 사제의 말은 실로 끔찍하였으며, 그의 신실한 추종자들 사이에서 변장하고 그 말을 듣던 나의 가슴에는 두려움이 차올랐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른 부족들은 모두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 그들은 사냥감이 사냥꾼에게 절하듯 옛 신에게 절한다. 공기처럼 투명하며 세계를 저버린 프라보에게, 기도 소리가 잠잠해지는 밤이면 모습을 감추는 소원한 다보에게, 영혼들을 포식하고자 가만히 기다리는 벨레스에게 절한다.

오로지 불을 키우고 불과 함께하는 자만 흠이 없다! 이곳에는 운명을 스스로 정하는 전사와 정복자, 통치자가 있다. 우리의 운명은 불이자, 새로운 신이다. 신께서는 뜨겁고 관대하시다! 우리가 굶주리지 않게 모닥불을 주시었고, 물건을 담을 수 있게 점토 그릇을 주시었으며, 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영원의 빛을 주시었다!

겁쟁이들은 짐승처럼 숲속에서 사냥하라 해라. 염소처럼 풀을 뜯으라 하고, 아이들과 함께 돼지를 키우라 하여라! 그동안 우리는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가꾸고 구한 것으로 배를 채우리라! 그들은 우리를 위해 고르드를 건설하고 여자들은 우리의 아이를 낳으리라.



마흔 끔찍한 종자

아아, 불의 세례를 받은 자는 어찌나 남을 멸시하였는지! 그의 오만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말을 직접 보고 판단하여라. 그들 중 가장 심한 겁쟁이는 벨레스의 숭배자들이다.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며 끝내 착란에 빠져 버리지! 심지어 저승 신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로 오두막을 짓는 일에도 겁을 내고 오로지 바닥에서 굶는 것만 먹는다. 벨레스의 짐승들처럼 되기 위하여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오로지 날 가죽만 걸친다. 우리를 미치광이라 부르면서, 자신들은 광기에 빠져 흥물들과 통정하지! 여자들은 제물로 바쳐졌다가 아이를 배어 돌아온다. 그리고 괴물이라 불리는 부정한 잡종을 낳는다. 그들은 혐오스럽고 또 쓸모없으나, 스바로그는 벨레스에게 그들을 죽이지 않겠노라 약속했다. 아아! 프라보의 창조물이 더럽혀지는 광경을 보면 벨레스는 얼마나 흡족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우리와 거리를 유지한다. 우리는 불을 부리며, 스바로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마흔하나 밤의 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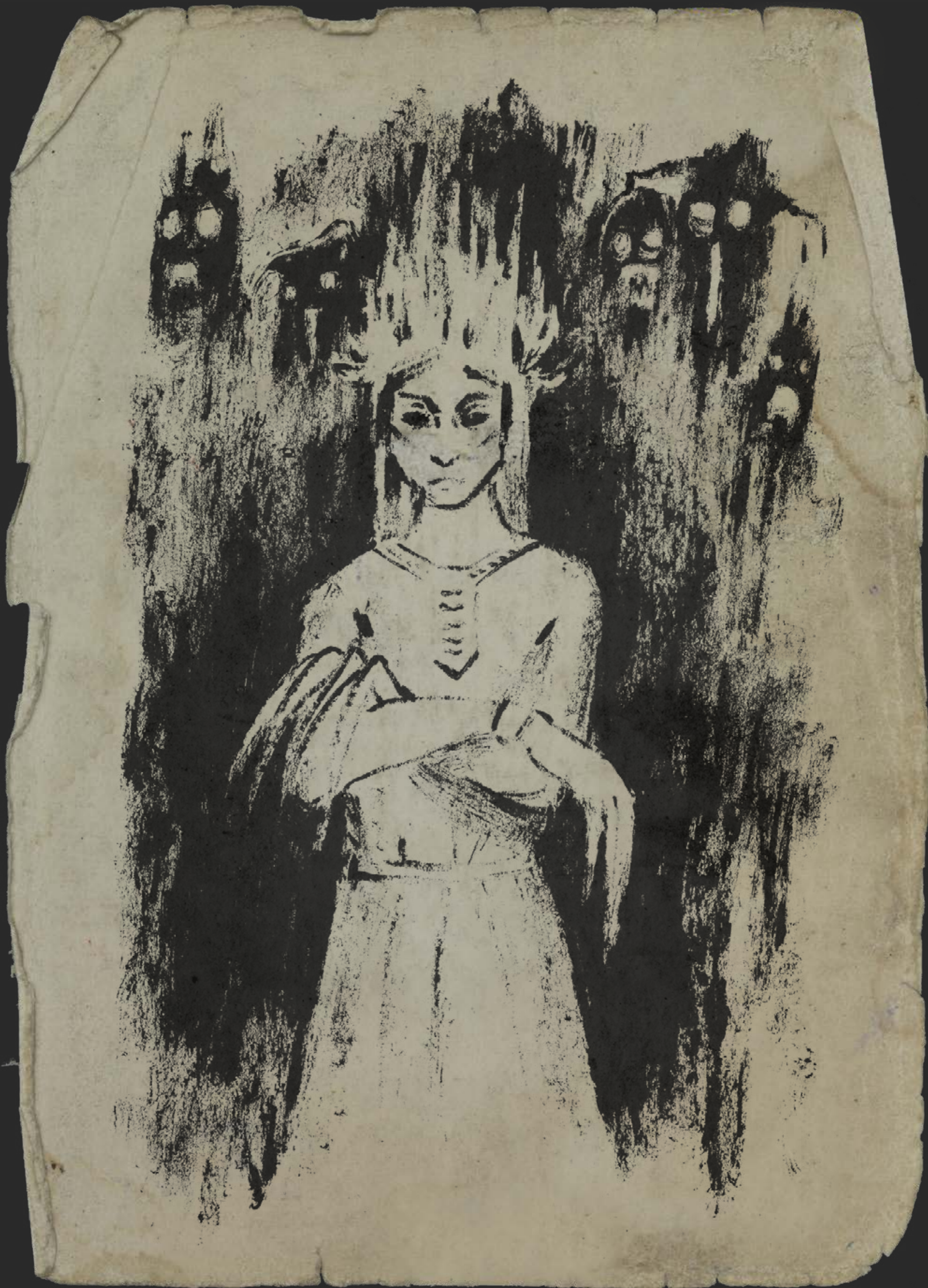
나는 냄새를 맡은 늑대들 사이에서 나뭇잎을 덮고 숨어 있는 송아지처럼, 귀를 기울였다. 나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다! 사제의 말 어디에도 자비라고는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벨레스를 두려워하고, 흉물을 두려워하고, 괴물을 두려워하고, 어둠을 두려워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굶주림과 추위,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기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는 자도 있지!

스바로그는 우리가 불을 숭배하기에, 그리고 뒤떨어진 부족들이 두려워하기에 존재할 수 있다. 그리하여 밤의 군주, 괴물에게 속삭이는 자, 흉물의 장군이 일어났다! 그의 이름은 코르스! 그가 너희 가슴에서 쥐어짜는 거친 숨결과도 같은 이름이다!

그는 어리고 잔인하며,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증오한다. 해가 높이 뜨는 낮에는 숨어 있다가, 어둠이 오는 밤이면 악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의 뜻대로 지배한다.

그의 길을 가로막는 자는 살아서 해 오름을 보지 못하리라!



마흔둘 흉물들의 속 삭이는 자

그때에 나는 감시의 눈길을 번뜩이는 매의 날개 아래에서 풀숲을 어슬렁거리는 들쥐와도 같았다. 그리고 스바로그 숭배자들의 타고르는 눈길에서 빠져나가 다시 나의 길로 돌아갈 때가 왔을 때, 사제의 말이 메아리처럼 내게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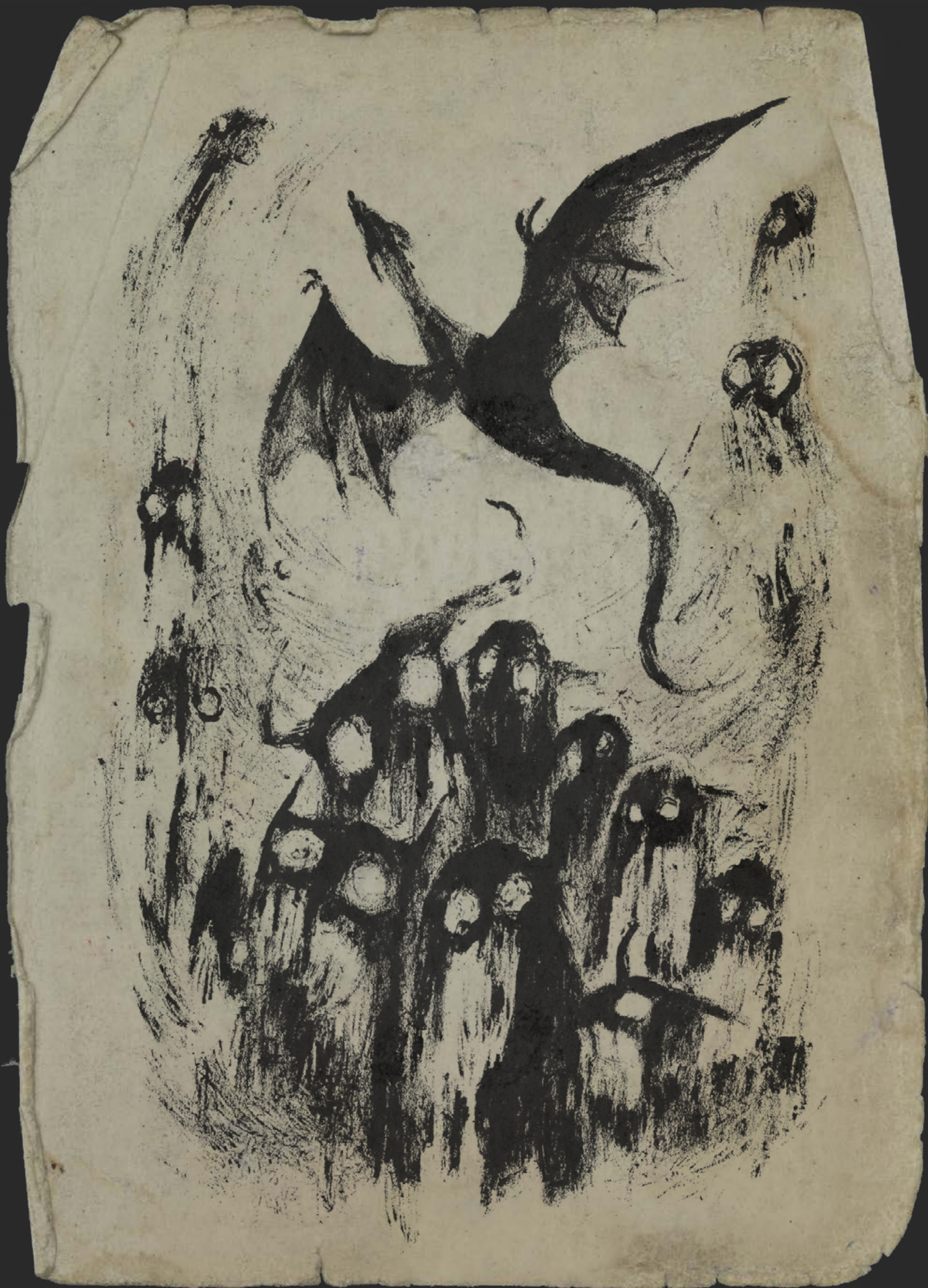
축생 부족의 신들은 약하다! 그들의 숭배자 또한 약하다! 그들의 공포는 신앙보다 크고, 그들의 신음은 기도보다 크다! 그리고 그 공포와 신음으로부터 코르스가 태어났다.

햇살이 마침내 지면 아래에 도달했을 때, 코르스가 마지막 광선을 훔쳐 그로부터 자신을 위한 왕관을 엮었다. 그는 그 빛을 이용해 밤의 생물을 모두 끌어들이었고, 그들 중에는 흉물과 괴물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인간에게 이끌었다! 가장 달콤한 감로주 같은 공포를 그들에게 먹였다.

그는 아름답고도 공포스럽고, 죽음처럼 창백하고, 밤처럼 음울했다. 그에게는 보름달과 초승달 같은 두 개의 얼굴이 있었다. 그의 매력은 실로 대단했다. 그는 나방

처럼 자신에게 이끌리는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의 빛에 절대 속지 않기를!

그가 바로 인간의 공포로부터 태어나 괴물들과 어울리는 그런 신이었다!



마흔셋 흉물들의 반란

돌랴의 이름으로, 나는 계속해서 이 연대기를 써내려가야 한다. 나보다 앞서 위대하고 명예로운 가알이 그러하였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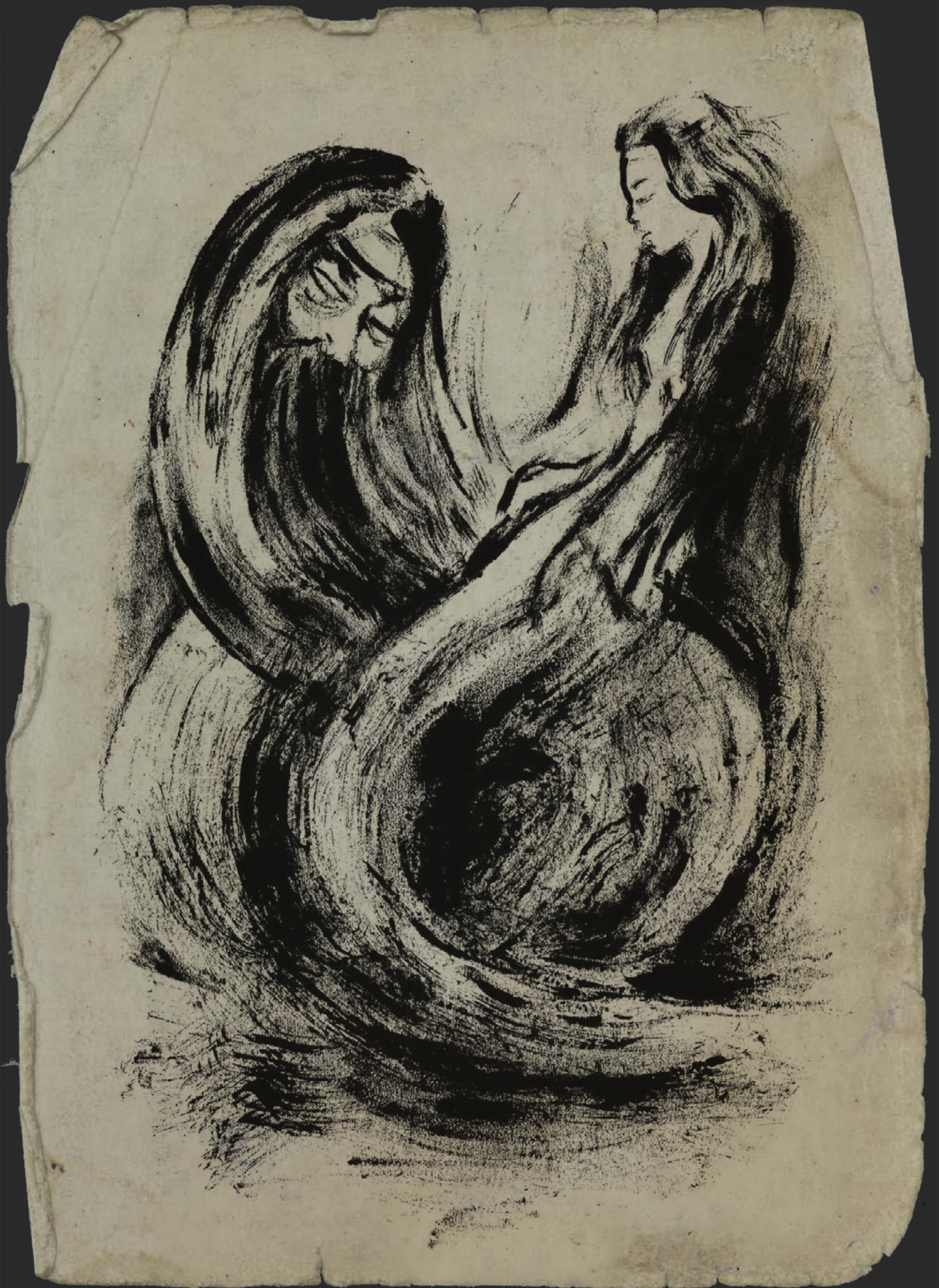
돌랴를 찬미하라! 이 땅에 태어나 참혹의 시대를 닫고 희망의 시대를 여신 분을 찬미하라!

돌랴가 탄생하기 전은 그야말로 잔혹한 시기였다. 코르스의 명을 따르는 흉물과 괴물들이 인간의 마을을 공격했고, 그로서 벨레스가 모코쉬에게 했던 약속을 깨뜨렸다. 벨레스는 자신의 생물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들은 이제 코르스를 왕으로 여겼다.

하지만 코르스는 협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위협이나 애원에도 귀를 기울일 존재가 아니었다. 인간의 그 어떤 무기도 코르스나 그의 흉물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혼란은 구렁이 대공 즈미즈가 벨레스를 무시하고 거부한 데서 초래되었다.

서약은 모두 깨졌다. 불과 스바로그의 숭배자들조차 흉물의 맹목적인 분노를 피하지 못했다. 지상은 피로 붉게 물들고, 하늘에서 화살의 비가 쏟아졌다. 모두들 자기 친족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말살을 모면하게 하려 발버둥 쳤다. 부패하는 꽃처럼 시들어가며, 인간은

존재하기 위해 투쟁했고, 코르스는 그 위로 발을 쳐들고
인간을 짓밟아 가루로 만들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만 있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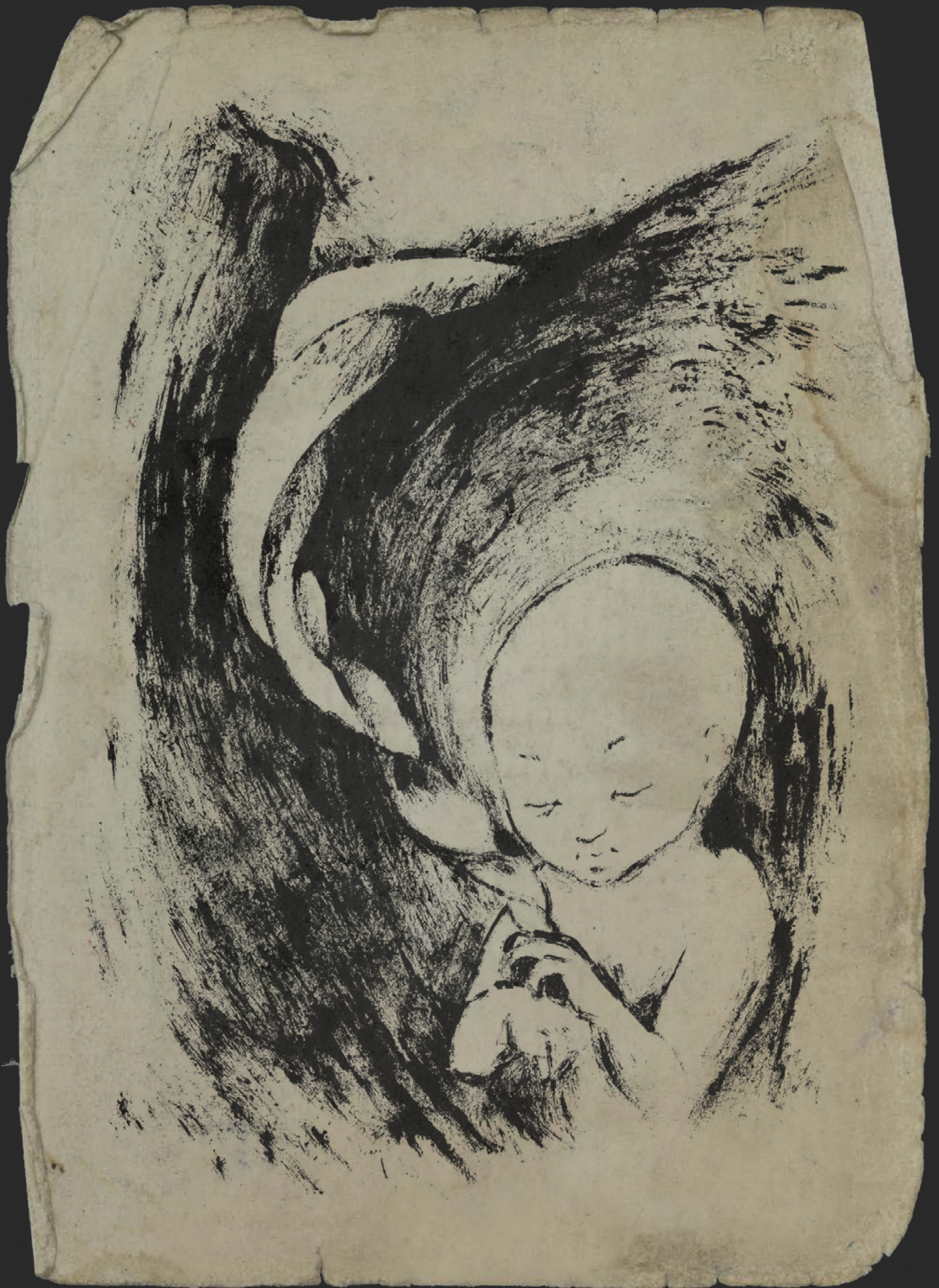
마흔넷 모코쉬의 희생

모코쉬는 절망했다. 프라보의 형상인 남자와 자신의 형상인 여자가 갈가리 찢어지고 있었으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결국 그녀 또한 저승에 갇혀 있을 뿐이었기에.

흉물과 즘미즈에게 배신당한 벨레스 또한 고통받고 있었다. 시기와 분노에서 태어난 것들은 모두 거칠고 길들일 수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했다. 벨레스는 그 쓰디쓴 교훈을 어렵게 배워야 했으며, 그 대가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었다!

모코쉬는 벨레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했다. 그가 자신의 심장을 뜯어냈고, 그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었다. 그녀는 벨레스를 애처롭게 생각했고, 그의 선물에 고마워했지만, 예전의 프라보처럼 그를 사랑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벨레스가 사랑을 위한 갈망에서 태어난 만큼, 그의 욕망을 채워 주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채워 줄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함께 누워 자신을 모두 주었고, 그는 사막의 모래가 몰아치는 폭풍으로부터 쏟아지는 물을 삼키듯 그녀를 흠뻑 들이켰다.



마흔다섯 여신, 태어나다

모코쉬에게 아이가 생겼다! 생명의 여신의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고, 생명의 힘이 두 배나 강해졌다!

기적이었다! 미래는 참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 신들 또한 예측할 수 없었다.

49일 낮과 49일 밤이 지나고, 여명과 함께 어둠이 끝나갈 무렵, 모코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들의 아이를 낳았다. 만물로부터 끌어온 것이 아니라 신들 사이에서 잉태된 최초이자 최후의 여신이었다.

여신은 모코쉬와 많이 닮아 있었고, 그녀의 정과 신비, 아름다움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벨레스의 가혹함과 힘, 평정심 또한 갖추고 있었다.

그리하여 돌랴가 태어났다! 아름다운 여신! 희망의 인도자! 두 세계의 지배자, 지상과 저승의 감시관! 우리의 여신, 속삭이는 자들의 어머니, 균형의 수호자!

돌랴를 찬미하라! 신들의 딸을 찬미하라!



마흔여섯 조화의 수호자

돌랴를 잉태한 것은 모코쉬와 벨레스였고, 그에 따라 그녀에게는 사랑과 지혜, 공감과 분별력, 창의력과 욕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연과 아버지가 생명을 불어넣은 모든 것들을 사랑했고,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 특히 여자를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시기심과 호기심으로 지상의 영역을 바라봤고, 벨레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면 저승을 배회하는 인간의 영혼이 들려주는 과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흙물과 인간의 탐욕을 발견했다. 치기 어린 열정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혼돈과 무질서도 삶과 죽음의 규칙을 준수하면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흔일곱 지상의 부 름

돌랴의 손은 벨레스의 손가락에 깃든 것과 같은 힘을 뿜었다. 어머니의 힘을 절반 물려받은 그녀는 아버지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을 절반만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어머니를 닮은 천성이 그녀를 저승의 가장 먼 동굴로 이끌었다. 나무뿌리가 머리카락을 스치고, 야수들의 발에 짓밟힌 머리 위 지면에서 모래가 어깨 위로 떨어져 내렸다. 지상에 이토록 가까이 다가간 것은 처음이었다.

돌랴가 검고 습한 지면에 손을 대자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대지의 반구와 모든 것을 연결하는 물, 그 물처럼 뒤엉킨 뿌리를 향해 말했다.

지면이 붕괴하고, 습기가 사라지고, 뿌리가 갈라져 지상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드러났다.

돌랴는 저승을 벗어났고, 단 한 번 뒤를 돌아보며 떠나온 통로를 봉인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힘을 엮어 모코쉬와 벨레스의 시선을 차단하여 귀찮은 일을 피하게 해 줄 덮개를 만들었다.



마흔여덟 신적인 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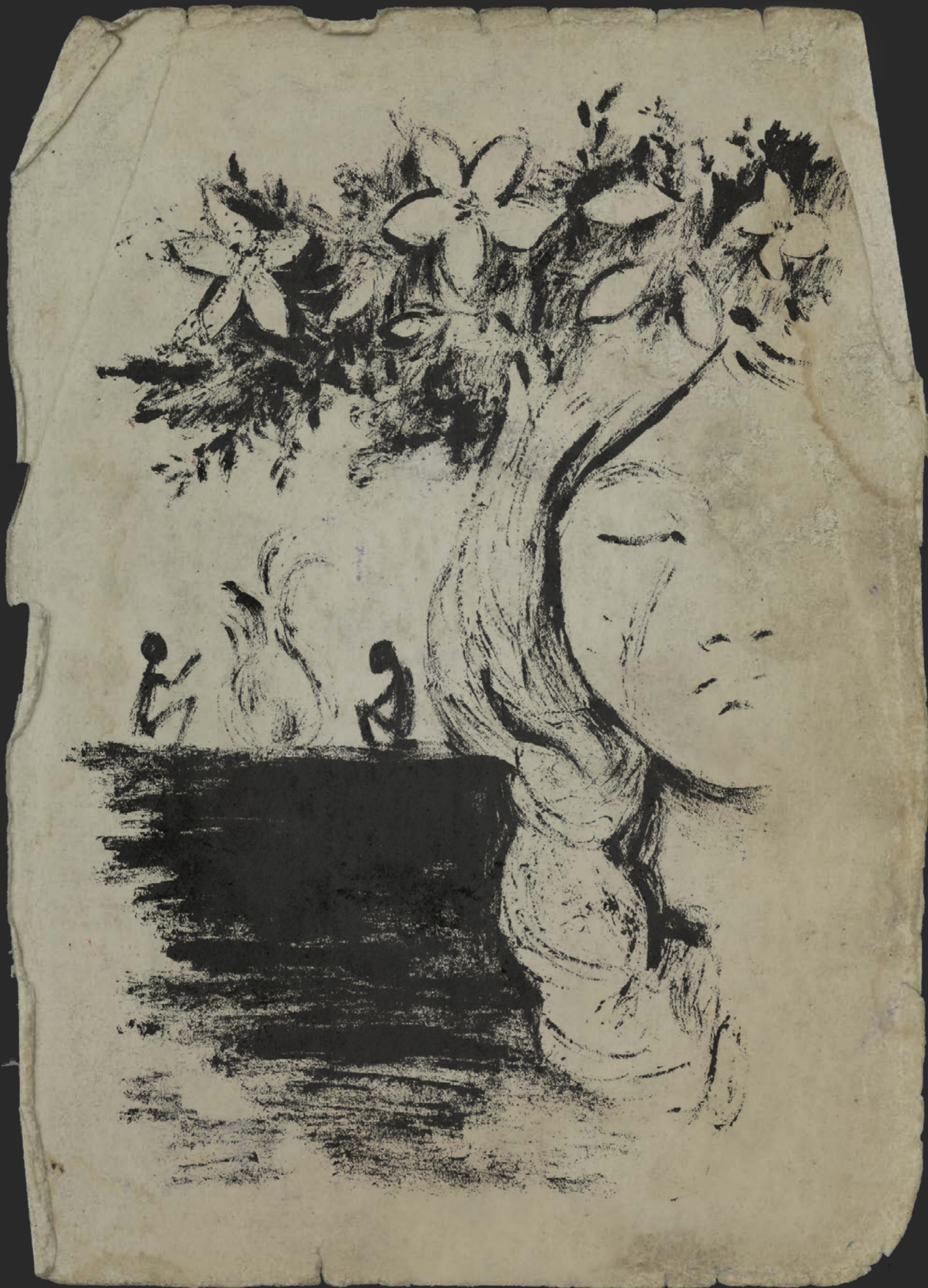
돌라는 길이 멀리 방랑하며, 가는 곳마다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가르쳤다. 삶과 죽음의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탐욕을 금지하고, 만물을 존중하라 요구하였다. 사람들에게 땅을 경작하여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또한 짐승의 가죽을 입거나 고기를 먹는 것 외에도, 짐승을 보살피고, 젖을 짜고, 털로 직물을 짜는 등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가르쳤다.

그녀는 여자의 자궁에 아이가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임신이라는 것에 남녀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부족 전체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열정적인 환호로 답했다. 그녀가 마을을 떠날 때면 모두가 무릎을 꿇고 슬픔에 잠겨 땅을 후벼팠다.

하지만 돌라가 시선을 벗어나자마자 모든 문제가 돌아왔다. 돌라의 도움으로 더욱더 풍요로워진 재물만큼, 불화 또한 점점 더 격렬해지기만 했다.



마흔아홉 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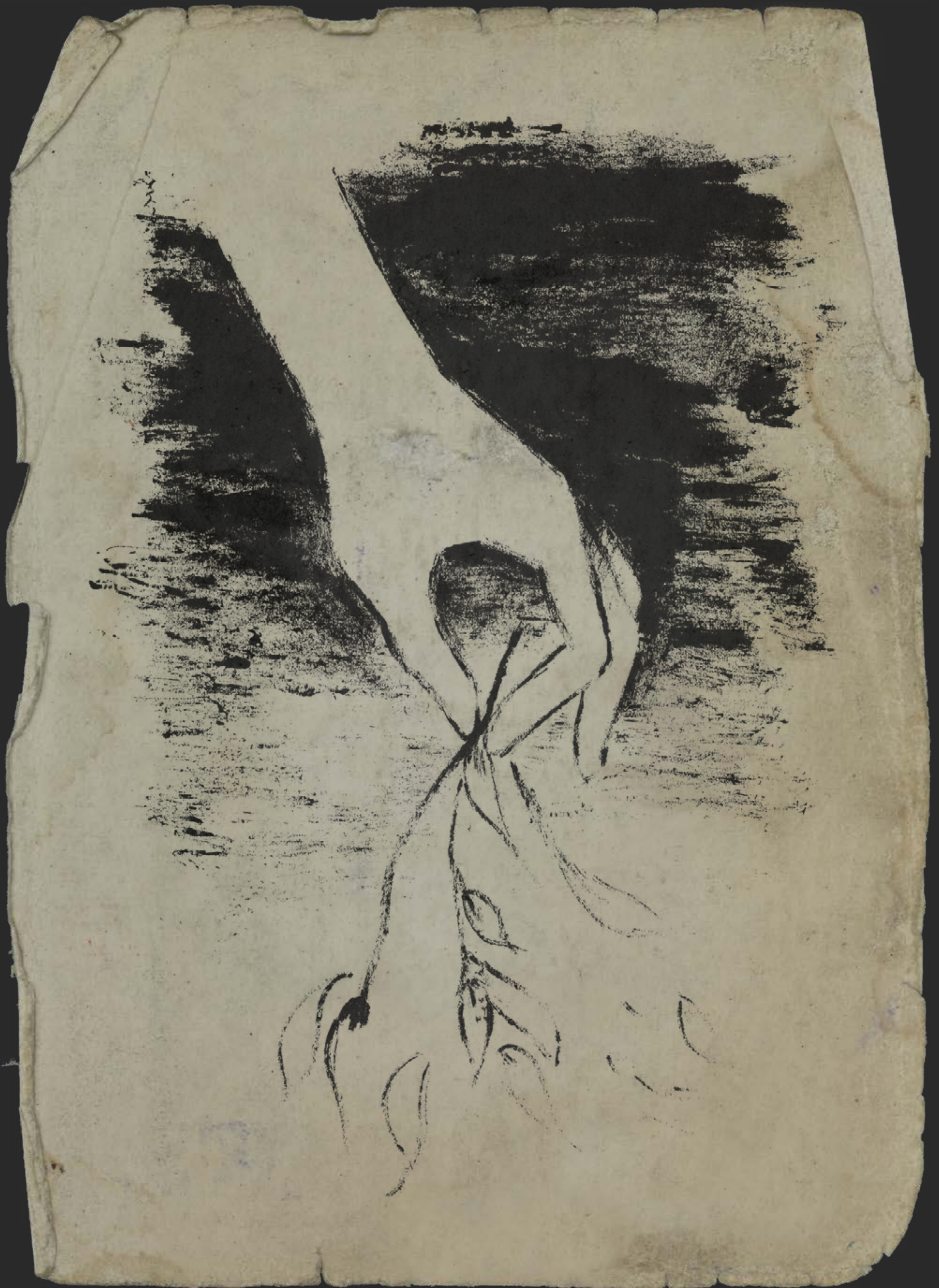
돌라는 인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선과 악의 차이였다. 신들은 선행과 악행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깨어났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내키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기에 선악의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간은 고결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구분했다. 그러한 행위를 칭송하거나 비난하였으며, 그 어느 것에도 무관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돌라는 신의 좋은 사랑과 나쁜 사랑에 대해 알게 되었다. 비록 두 가지 모두 사랑이라 해도, 좋은 사랑은 모코쉬와 사라진 신이 공유하는 것, 나쁜 사랑은 저승의 군주가 모코쉬에게 느끼는 감정과 같은 것이었다.

사랑뿐 아니라 속임수로 행복을 깨뜨린 부정한 욕망으로 인해 기적적으로 인간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돌라의 가슴이 수치심과 분노,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녀 자신이 썩은 과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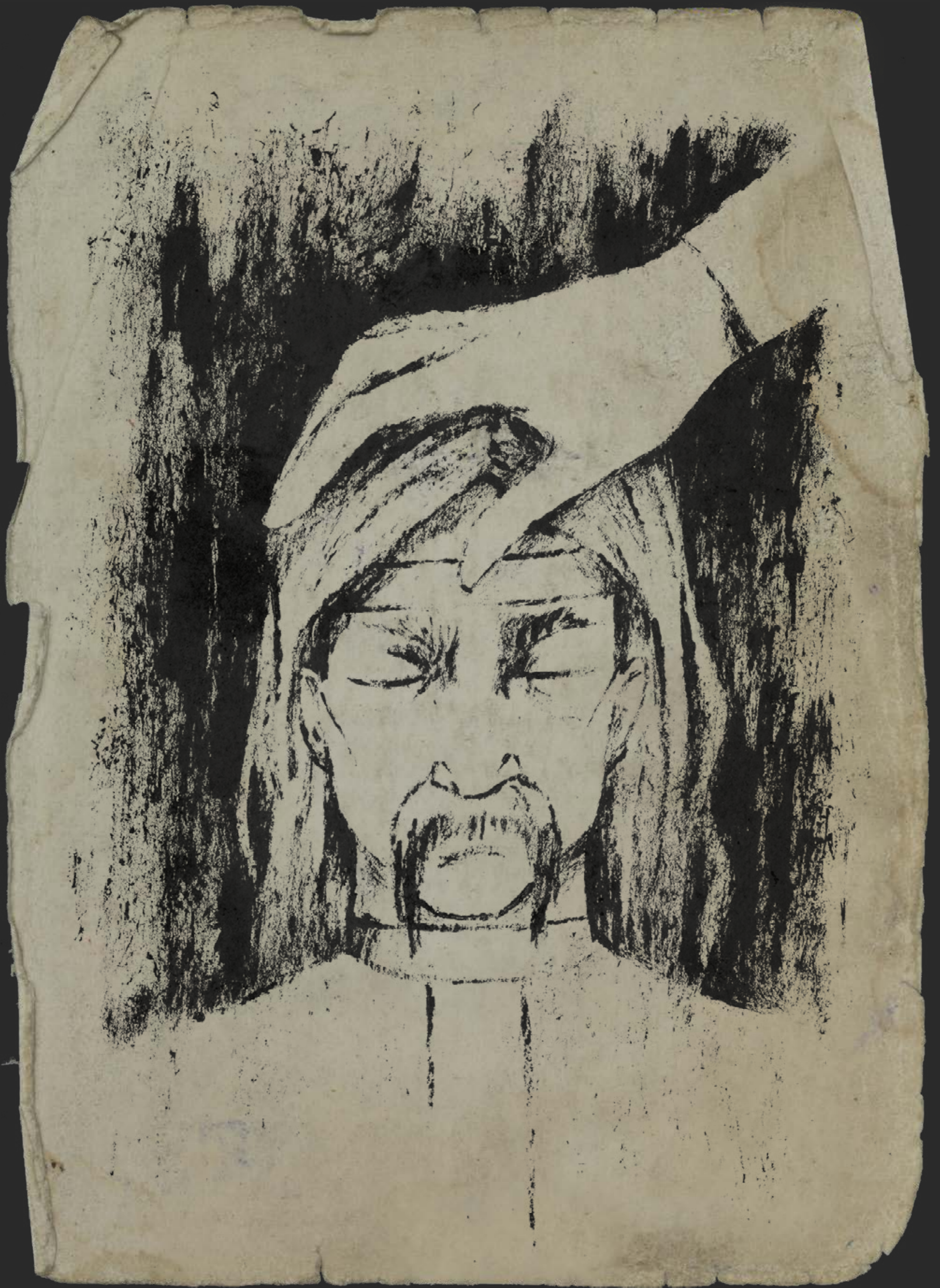


신 같등하는 돌랴

돌랴는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하듯 벨레스를 사랑했다. 저승에서는 그의 영역에 경탄하고, 그가 짐승과 식물을 만드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한숨을 쉬었으며, 인간이 파괴를 행할 때는 아버지와 함께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벨레스를 사랑하고, 그가 행한 일은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그의 의도는 순수했다고만 믿었다.

하지만 인간들의 이야기를 듣자 그녀의 기억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벨레스가 모코쉬에게 던지던 시선, 한때 부드럽고 온화했던 그 시선은 교활하고 욕정이 가득한 것이 되었다. 그와 인간의 싸움은 본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던 신과의 같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돌랴는 아버지를 경멸하고 어머니의 운명에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과 함께 프라보에 대한 묘한 갈망을 품었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안쓰럽게 생각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 창조자들은 그저 장난감과 도구로 치부한 채 보살피지 않고 내버렸다는 사실에 격한 분노를 느꼈다.



신하나 속삭이는 자 들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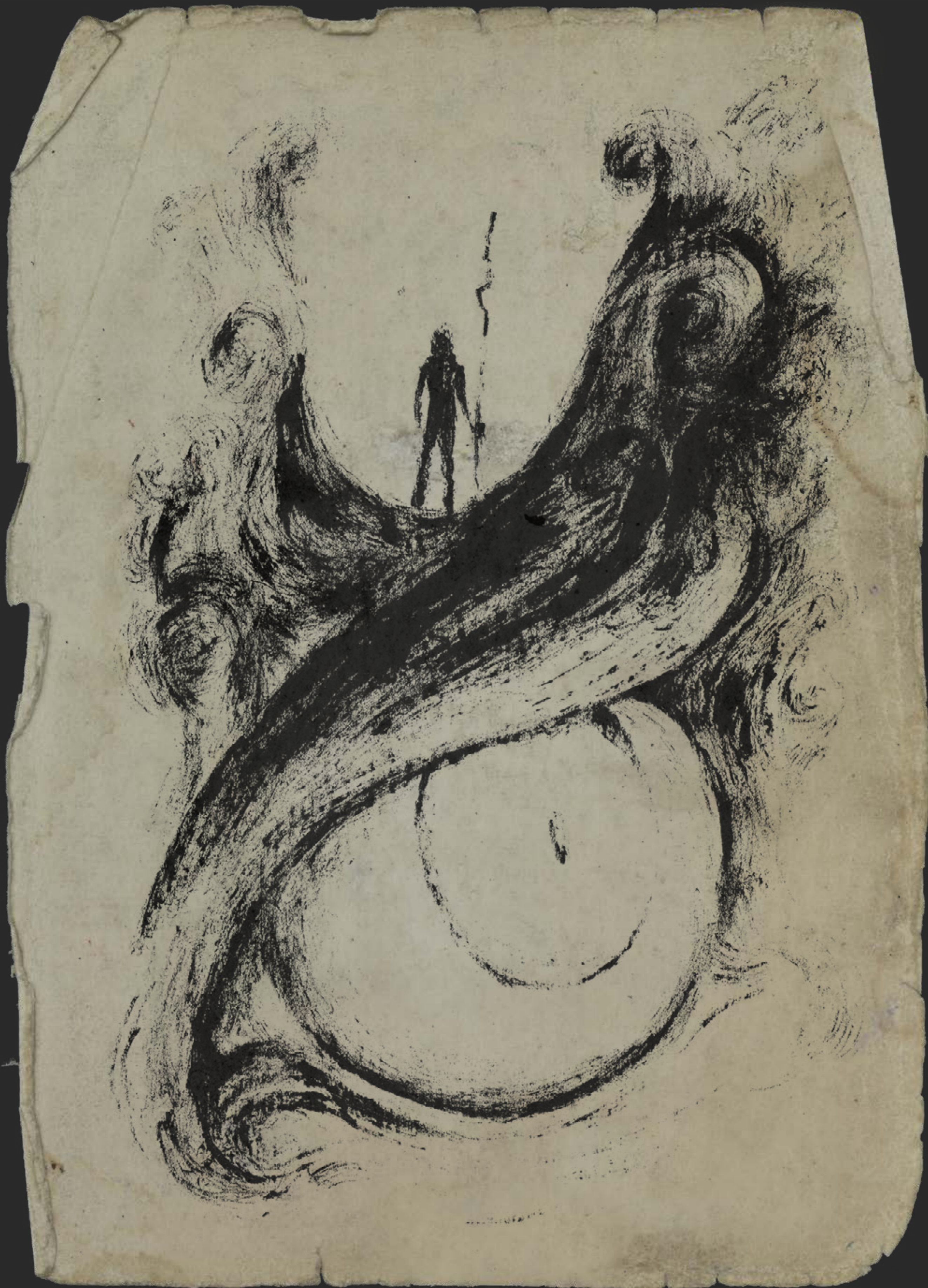
돌라는 아름다웠다! 그녀에게는 지혜와 힘이 가득했다!
시간이 끝날 때까지 돌라를 찬미하라. 인간에게 그보다
더 위대한 친구는 없으니!

신들의 행위에 분노한 돌라는 최고의 전사들을 선택했
다. 그녀를 알아본 그들은 그녀 발치에 무릎을 꿇고 충
성을 맹세했고, 그녀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하
지만 인류의 정신은 가늠할 수 없었고, 누가 돌라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볼 방법은 없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힘을 그들에게 쏟아 넣지 않고,
풍요로운 토양으로 뺏어 그 수액을 마시는 뿌리를 닮은
경이로운 끈으로 인간을 직접 신과 연결했다. 따라서 그
들은 신들의 힘을 직접 끌어 쓸 수 있었고, 열렬한 신앙
을 지닌 사람은 더 큰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들이
이런 축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돌라는 그들이 새로운
힘으로 원하는 형체를 무엇이든 빚어낼 수 있게 신들의
언어까지 가르쳐 주었다.

그 힘은 워낙 막대했기에, 그들은 그 힘을 비밀로 하고
언제나 작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겠노라 맹세했다. 그
래서 그들은 속삭이는 자라 불리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고, 그들은 돌랴가 남긴 신의 말을
우리 귀에 전한다. 우리 선조들을 찬미하라!



신들 신의 낙인

속삭이는 자들은 어느 부족에나 있었으나, 그들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립되어 사는 이도 있었고, 항상 악의를 품은 눈빛을 부라리며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이도 있었으며, 숨어 사는 이도 있었다. 힘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모기떼 같은 사람들이 꼬이기 마련이었고, 그런 자들은 하나하나가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웠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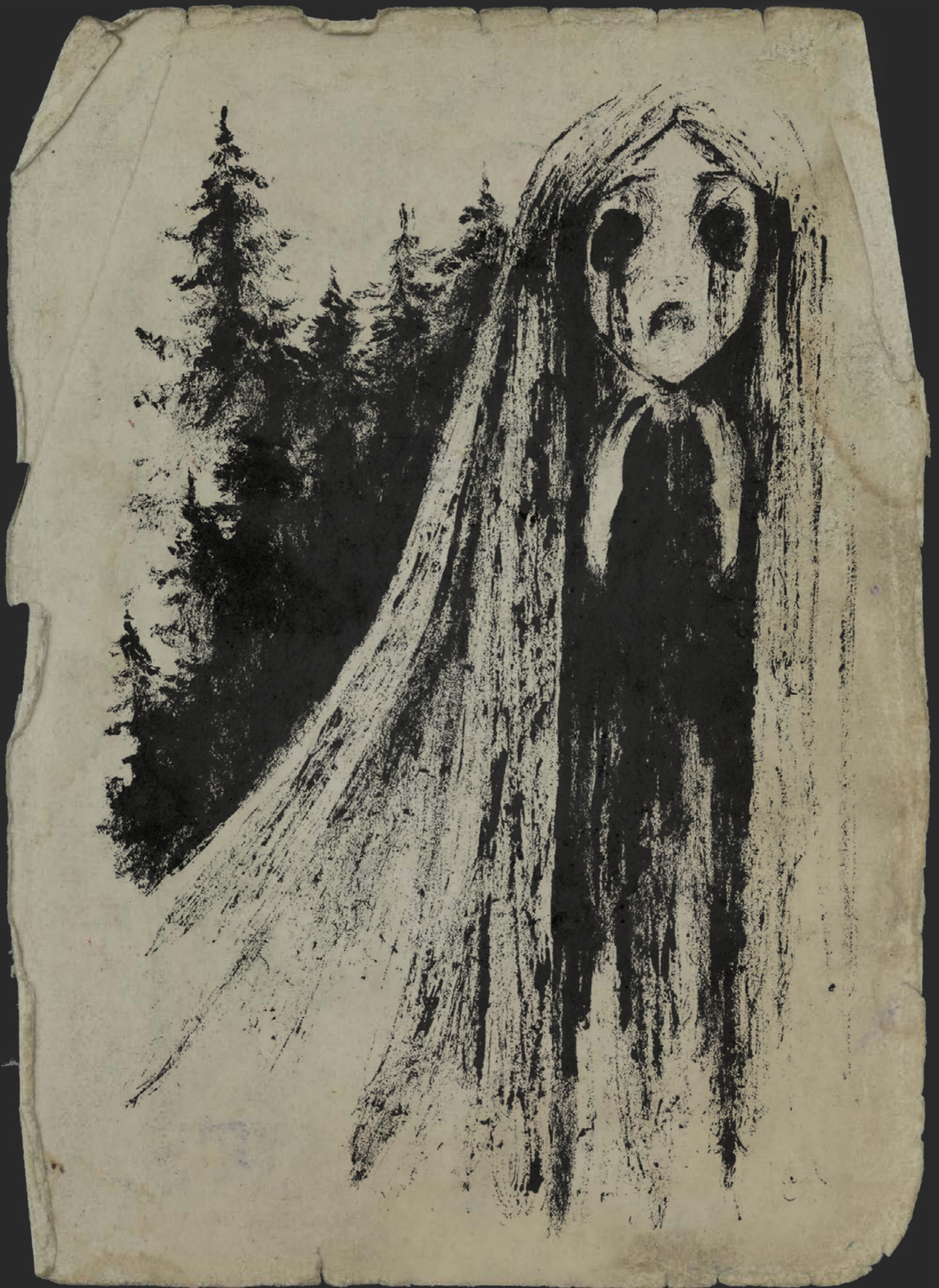
하지만 속삭이는 자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돌랴를 섬기기 위해 존재했다. 그들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했다.

그렇다면 속삭이는 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속삭임을 통해 알아보는 것은 아니었다. 돌랴에게 직접 받거나, 다른 속삭이는 자에게 받는 돌랴의 축복 없이는, 어떤 남자나 여자도 주문을 이해하거나 따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들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징표를 찾아야 했다. 축복을 받은 이의 피부에는 마치 피처럼 붉은 황토로 그린 듯한 얼룩이 남았다. 이 얼룩은 날

카롭고 험악한 반인반수의 눈을 닮은 모양이었다. 그런
성질이 상징하는 속삭이는 자는 그 누구의 동맹도 아니
었다.



신셋 리부쉬카의 이야기

속삭이는 자와 내가 늘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었다. 속삭이는 자는 누구의 친구도 적도 아니었으며, 그들의 봉사를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남자가 죽으면 아내는 가지에 목을 매곤 했다. 그래야 아내가 신의 집을 향해 날아가는 남편과 함께할 수 있다고 믿었다. 때로는 아내가 강제로 그리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리부쉬카가 태어난 마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스스로 연인을 찾았고, 마침내 아름다운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건강하고 튼튼했고, 그녀와 그 짝인 남자는 함께 지냈다.

그리하여 리부쉬카는 언제나 일하고 싸울 남자와 여자가 충분하도록 아이를 연달아 낳았다. 전투는 빈번하게 일어났기에, 리부쉬카의 연인도 전투에 참여하는 일이 많았다. 그는 언제나 승리했지만, 어느 날 그의 말이 생명을 잃은 남자의 몸을 질질 끌고 돌아왔다.

모두가 그 소식에 절망했고, 리부쉬카의 아픔이 가장 컸다. 그녀는 죽고 싶지도, 벨레스의 구렁이에게 먹히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 옆에 사는 속삭이는 자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황혼부터 여명까지 애원하고 또 애원했고, 속삭이는 자는 마침내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

그리하여 리부쉬카는 나브카가 되었고, 밤이면 밤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남자들에게 죽음에 대해 경고했다.



신넷 속삭임의 이야기

속삭이는 자는 강하고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지만, 그들의 가장 큰 적은 무력감과 부주의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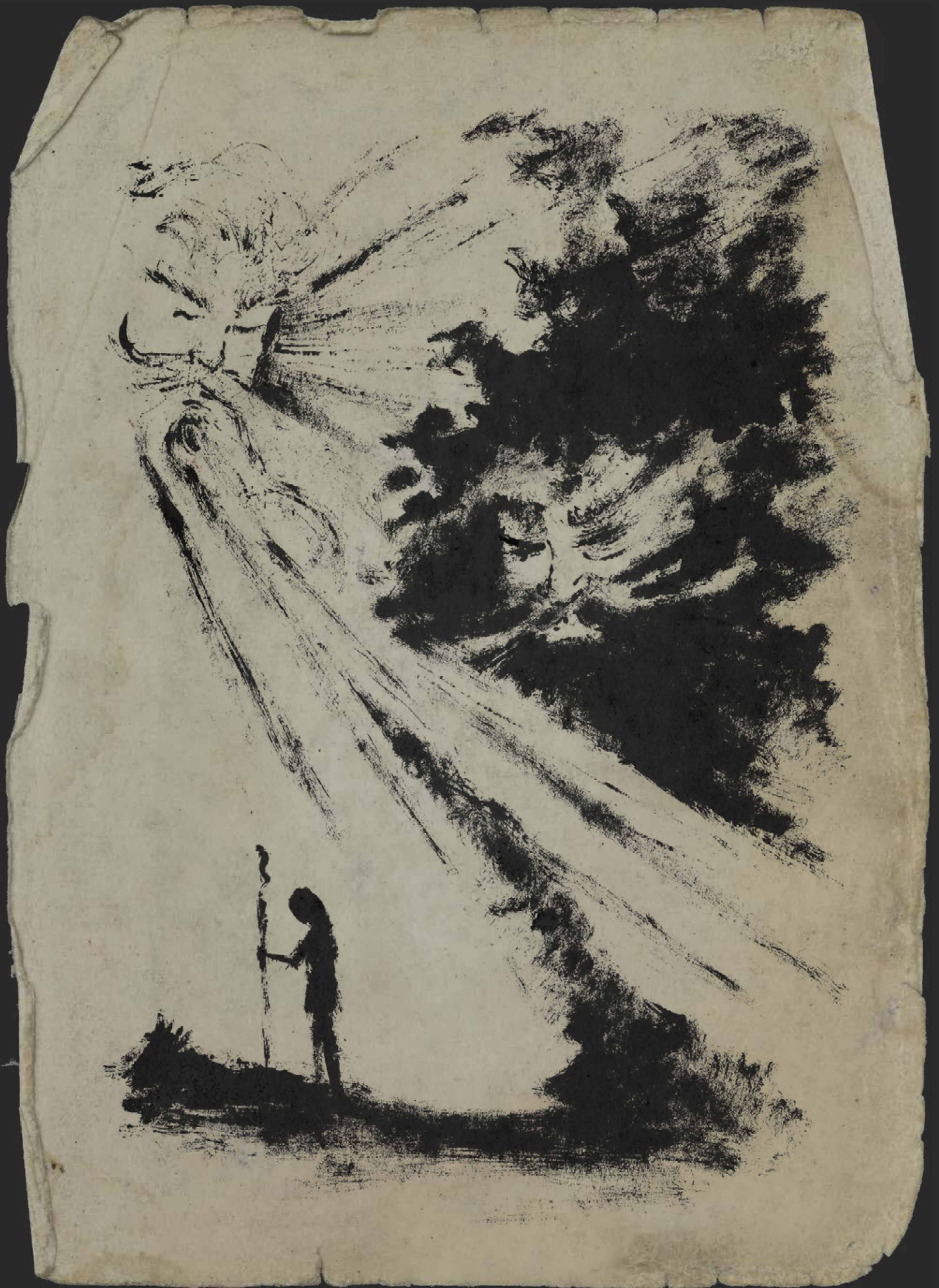
마을은 다채로웠고, 각각의 삶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한 번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다. 속삭이는 자조차 은둔에 지쳐 자주 들르는 마을이었다.

아이들은 파리떼처럼 속삭이는 자를 둘러싸고, 그가 멋진 마술을 보여주면 새끼 돼지들처럼 짹짹대곤 했다.

세월은 평화롭게 흘렀고, 속삭이는 자는 아이들 중 하나를 수습생으로 선택했다. 소년은 열정과 신앙으로 가득했고, 모든 이들을 돕고 싶어 했다.

그는 하늘에서 태양이 가장 오랫동안 빛나는 특별한 날을 기다려 속삭이는 자들의 주문을 외치며 세상을 흉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신들에게 부탁했다. 그는 계속해서 목놓아 외쳤고, 결국 흉물 중 하나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흉물은 그를 쫓아와 잡아먹고, 속삭이는 자와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삼켰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속삭이는 자만 주문을 외울 수 있다. 일반인들은 평범한 기도로 만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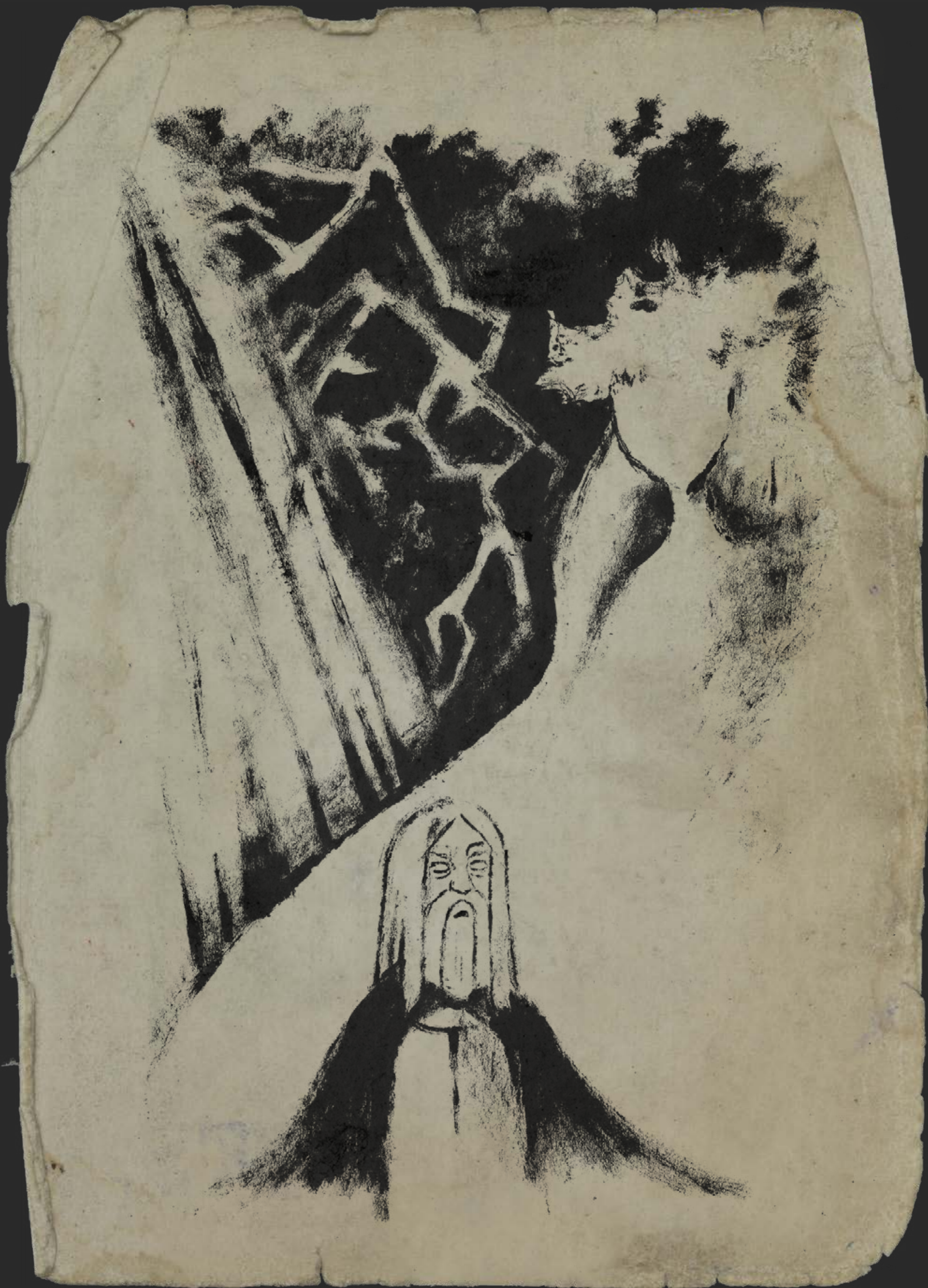


신다섯 주문

신들의 위엄은 영광스럽고, 그들의 선물은 불가해하다. 인간의 가장 큰 기도도 신들에게는 시냇물의 조잘거림과 같지만, 속삭이는 자의 비밀 주문은 신들의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진다!

아아, 다보와 페룬은 처음 주문을 듣고 어찌나 놀랐는지! 그들은 귀를 손으로 가리고 비명을 지르며 기도에서 벗어나거나 그 소리를 지워 보려 했지만, 주문의 소리는 잣아들지 않았다.

신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인간의 운명도 애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저승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 벨레스를 붙잡고 모코쉬를 해방시켜 프라보를 기쁘게 할 생각뿐이었다. 이 일을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남자와 여자는 믿음직스럽지 않았다. 인간은 메뚜기 떼처럼 무리를 지어 우글거렸지만, 그들의 호기심과 용기는 이제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신들도 감로주처럼 달콤하게 자신에게 힘을 주는 인간의 기도는 즐겼지만, 갈증을 채우려고 기적의 피를 마시는 말파리처럼 자신들의 힘을 앗아가는 주문은 불쾌하게만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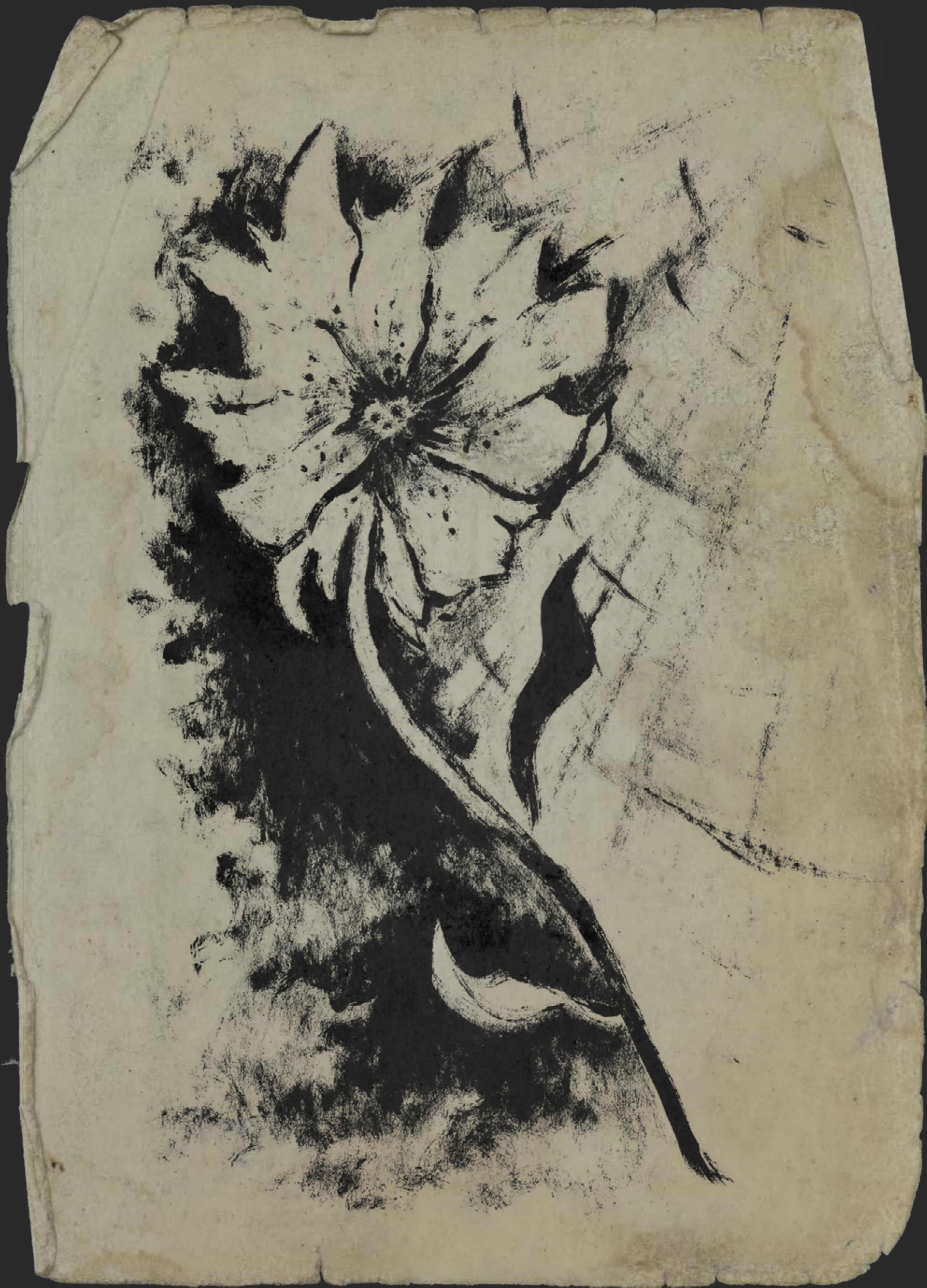
신여섯 대립

페룬과 다보는 인간의 건방진 태도에 분노했다. 감히 신들을 귀찮게 하다니! 감히 누가 신의 힘을 흠친다는 말인가! 인류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따라서 파멸해야 마땅했다!

그리하여 신들은 인간의 발에 짓밟힌 지상으로 내려왔고, 금단의 속삭임이 입술에서 춤을 추는 불경한 자 앞에 섰다. 하지만 다보의 빛은 그의 눈을 빼앗지 않았고, 페룬의 험악함도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속삭이는 자는 신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두 눈은 무자비하고 잔혹했으며, 분별 있고 열정이 가득했다. 처음의 우리는 참으로 용기가 가상했다!

그리고 신들이 기생충을 없앨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자, 한 여자가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열정에 휘말린 그들은 그녀를 필멸자로 착각하고 전력을 다해 자비 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나지도, 몸을 움츠리지도 않았다. 속삭이는 자 또한 그들의 힘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

그때 그들은 프라보가 언급한 힘을 인지하고, 지상을 걷던 것이 모코쉬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스스로 저지른 폭력에 수치심을 느끼고, 그녀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신일곱 불신

다보와 페룬은 프라보의 갈망과, 그가 모코쉬라는 이름과 그에 걸맞은 아름다움으로 창조한 여자의 형체에 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모코쉬를 실제로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돌랴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그들이 인지할 수 없는, 바위처럼 생생하고 어둠처럼 심오한 그 힘은 프라보와도 인간 남자와도 달랐다.

그리하여 신들은 그녀가 벨레스의 딸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고, 그녀를 쉽사리 믿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저승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돌랴는 그들이 세상의 운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프라보에게 명령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계획을 실현하는 걸 도와주면, 보답으로 그들에게 벨레스의 왕국 입구를 가르쳐 주겠노라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자신들의 힘에 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속삭이는 자들을 돕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했다.



신여덟 다보의 선물

다보가 먼저 약속을 지켰다. 과거에 그는 인간들에게 자기 심장 일부를 떼어 주고, 인간은 그걸 거짓 신으로 숭배했기에, 그는 자신의 크나큰 실수를 속죄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내 밧줄을 만들었고, 그 강력한 선물을 도랴에게 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팔의 살갓을 크게 한 조각 잘라내어 도랴에게 마법 방어구를 만들어 주었다.

세 번째로, 그는 새끼손가락을 붙잡고 나뭇가지처럼 잘라내 강력한 지팡이를 만들고 그걸 도랴에게 주었다.

네 번째로, 그는 눈꺼풀을 붙잡고 장미 꽃잎처럼 떼어내 도랴를 모두의 눈으로부터 보호해 줄 두건을 만들어 그녀에게 주었다.

다섯 번째로, 그는 손을 뺏어- [글이 흐릿해서 읽을 수 없음]



신아홉 페룬의 선물

다보의 선물을 보고, 페룬은 우쭐했다. 절대 그보다 못한 선물을 줄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자신을 따라다니는 검은 구름을 떼어내 거미줄 형상을 빚고, 그걸 도토리에 담아 강력한 부적으로 돌랴에게 주었다.

다음으로는 가장 아래쪽 갈비뼈를 뜯어내, 반짝이고 탄력 있는 뼈를 뒤쪽으로 구부리고, 팔에서 뜯어낸 힘줄을 감았다. 그리하여 그가 만든 활이 돌랴의 손에 놓였다.

돌랴는 그 선물을 받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고, 그 모습에 페룬의 심장에서는 자긍심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래서 그는 폭풍이 끓어오르는 하늘로 손을 뻗어, 맨손으로 번갯불을 붙잡고 손안에서 굳힌 후, 황금빛과 은빛 파도가 새겨진 구불거리는 칼날로 버려냈다.

그래도 돌랴가 놀라지 않자, 분노가 끓어오른 그는 자기 팔뚝을 뜯어내 모든 족쇄와 방벽을 으깨어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몽둥이를 만들었다.

돌랴는 그 모습에 놀라 할 말을 잃었다.



예순 유물에 관해

고대의 전설에는 막대한 힘을 지닌 ‘유물’이라는 물체가 언급되어 있으며, 이들은 신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강한 족장들도 유모에게 들은 이야기와 별처럼 늙은 현자들이 속삭이는 말에 현혹되어 수도 없이 불운한 원정을 떠났다. 그런데 그러한 유물이 몇 개나 발견되었을까? 그중 몇 개나 실제로 조사의 과정을 거쳤을까? 이런 고대의 신화가 적힌 문서를 읽어 봐도 이런 유물의 진짜 형태나 수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저 따분하고 허무맹랑한 기호들만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어리석은 이야기를 쫓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있는 경험이긴 했지만, 대부분 아무 성과 없는 모험이었다.

거대 요새의 주인인 나는 유물이라 칭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보았지만, 그중에 기적적인 능력의 징후를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괴물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늙은이에서 번지는 연기와 감로주에 취한 어리석은 정신의 산물이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전설을 조사하고 머나먼 땅을 거둬 여행하며 알아내는 모든 것들로 이 책의 빈 곳을 채우는 의무를 다할 생각이다.



예순하나 돌랴에 관해

대저주 이전의 고대 부족은 원시적인 믿음 속에서도 슬픔에 잠겨 인간의 비현실적인 본성을 고찰하는 돌랴의 형상에 매혹되었다. 어리석은 적대심이 초래한 잔혹한 불화가 환경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반향의 불꽃이었다.

신화에는 인간에 대한 애뜻한 애정을 품은 신이 존재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힘을 갈망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영원의 법률을 위반한다. 특히 이토록 큰 규모의 원시적인 무리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들 원시적인 무리가, 이들 야만인이, 우리 문명의 특징이라 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징조일까? 이러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는 행위가 불공정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의 흔적이 아무리 반짝거린다 해도, 이 땅의 흙 속에 파묻혀 아무것도 아니게 사라져 가야만 할 것이다. 야만인들은 원시적인 길을 버리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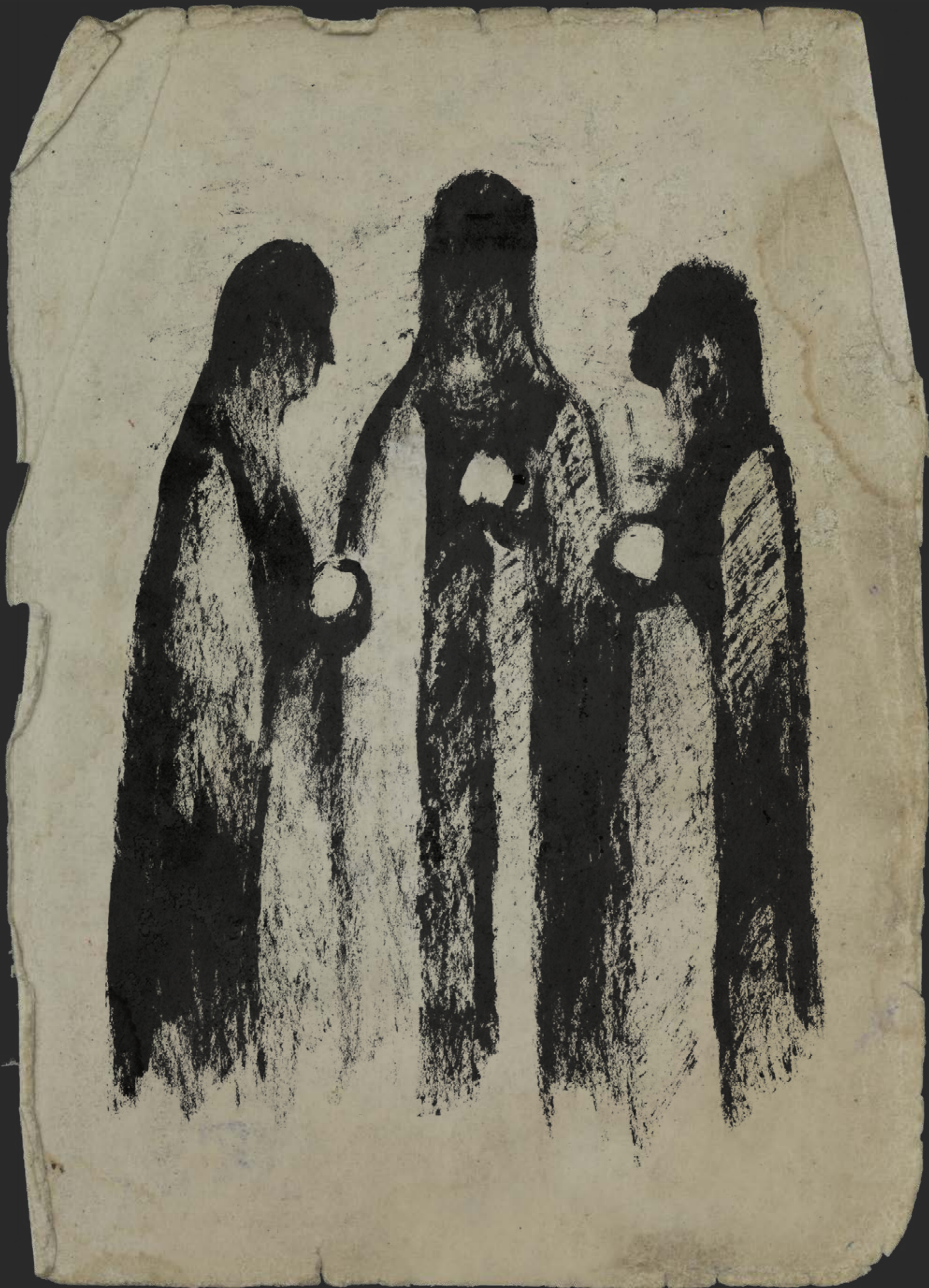
예순둘 대저주

고대의 전설에 따르면 돌라는 신도, 사람도 믿지 않았다. 신의 딸인 돌라는 탐욕스러운 인간과 교활한 신들로부터 숨기려고 유물을 봉인했다고 한다. 그들이 유물에 바람직하지 않은 힘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돌라는 유물에 온 힘을 쏟아부은 탓에, 저승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 모코쉬를 구할 힘이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 희생을 후회한 적은 없다고 한다.

그것은 축복이자 파멸이었는데, 돌라에게 한 맹세를 어긴 자는 끔찍한 저주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돌라는 속삭이는 자들에게 유물을 주고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 하였다. 그러나 신의 선물보다 속삭이는 자의 수가 더 많았고, 세상에서는 괴물과 흉물들이 득시글거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속삭이는 자들은 그들 중 누가 유물을 가질 것인지, 어느 마을이 지킬 가치가 있는지, 어느 마을을 부정한 짐승의 먹이가 되게 들지를 결정해야 했다.

마침내 속삭이는 자들은 모두가 함께 유물을 보살피며 흉물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면 신의 선물로써 도와주려 나서기로 합의했다.



예순셋 속삭이는 자의 명성에 관해

어찌하여 유물과 속삭이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는지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모종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확실하다. 고대 인류의 역사에는 명백히 안정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화에서 흉물이라고 일컬었던 존재(그것이 자연재해든, 야생의 짐승이든, 오래전 잊힌 위대한 부족의 족장이든)가 공격을 멈춘 시기였다.

고대 전설에서는 그것이 속삭이는 자들 때문이라 한다. 이들은 결코 세상의 균형을 해치지 않겠노라 맹세하고, 돌랴에게 받은 유물을 가지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다.

노래에서는 속삭이는 자를 기리고 찬양하였다. 그 노래 중에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도 있다. 비록 더 이상한 사건들이 뒤이어 일어나며 가사가 변하기는 하였으나.



예수넷 신적인 힘의 증거

세상 곳곳으로 흩어진 속삭이는 자들의 여정은 난항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흉물들과 세속의 역병에 맞서 싸웠으며, 이는 벨레스의 감시나 호전적인 스바로그 추종자들의 주목을 피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울한 신들과 그 못지않게 음울한 인간들은, 속삭이는 자의 명성과 은빛 하늘의 적색 별처럼 희귀한 강력한 유물을 시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속삭이는 자를 습격하거나 해하려고 했던 자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제압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을 앓곤 하였다. 풍문에 따르면, 속삭이는 자들은 공격을 받기 전에 그 이름에 걸맞게 조용히 주문을 읊조렸다고 한다. 이 속삭임은 독약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소리였을까? 아니면 혁신적인 신형 투석기가 돌을 날리는 소리였을까?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 불가피한 죽음을 선사한 그 무기는 대체 무엇이였을까? 그것이 그토록 강력하고 유명하다면, 왜 도둑맞은 적도 없거니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을까?

속삭이는 자들은 정녕 신의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일까? 학자들과 거대 요새의 석학들은 고대 기록의 파편들을 연구하며 이런 질문을 던졌다.



예순다섯 벨레스의 패배

신화에 따르면 마침내 속삭이는 자들의 주문을 알아낸 벨레스는, 그들이 유물을 사용해 자신의 흉물과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유물은 벨레스를 싫어했던 신들이 인간에게 준 것이었고, 그렇기에 놀랄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인간들이 유물을 사용해 맞서 싸웠던 흉물들은, 벨레스가 모코쉬에게 했던 약속에 반하여 그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 마을을 공격한 것이었다. 따라서 벨레스는 유물에 관해서는 분노하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속삭임은 달랐다. 어느 날 벨레스는 곱으로 변신하여 눈에 띄지 않게 지상으로 올라왔다. 거기서 벨레스는 속삭이는 자들의 목소리와 주문을 들었다. 한때 자신의 딸 돌랴에게 가르쳤던 것과 같은 구호와 진동이었다. 벨레스는 자신의 딸, 그리고 무엄한 인간들에게 배신당한 것이었다.

벨레스의 마음은 그의 영혼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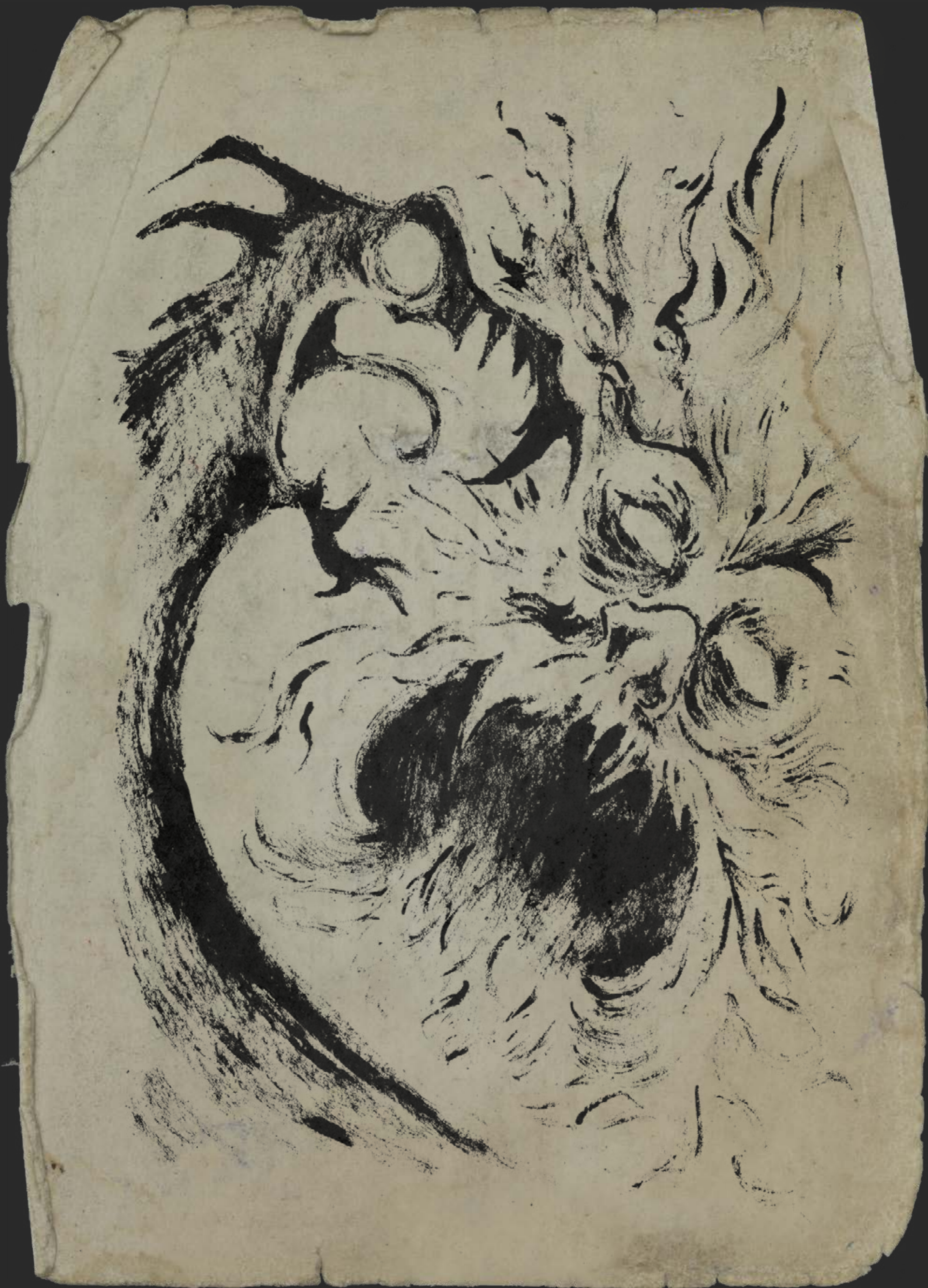
예수여섯 종말의 날

벨레스는 딸을 몹시 사랑했고, 그녀가 정의감에서 그 길을 택했음을 알았기에 돌랴를 용서했다. 그러나 인간은 믿지 않았다. 벨레스는 인간을 증오하고 경멸했다. 기적과도 같은 육신을 잃고 발가벗은 채로 그의 앞에 선 영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영혼들은 추잡하고 사악했으며, 순수성과 증오 사이의 어디에 있었다.

벨레스는 종말의 날이 다가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힘을 잃어버렸기에 그 일을 대신 해줄 자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코르스는 공기를 갈구하듯 인간의 공포를 탐했고, 스바로그는 추종자 없이는 빛을 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벨레스는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창조물, 구렁이의 대공이자 흙물의 장군인 즘미즈를 선택했다. 벨레스는 즘미즈의 구부정하고 흉측한 형상을 웃음과 함께 맞이했다.

그러나 벨레스는 교활했고, 즘미즈에게 떼어 준 자신의 심장이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즘미즈는 벨레스의 말을 경청하고 곱씹더니 비밀 조약에 응하였다.



예순일곱 두려움

즈미즈는 코르스와 자신을 가려 주던 밤을 저버렸다. 대낮의 빛을 받은 그의 모습은 실로 흉측했으니! 다리는 돌기둥 같았고, 몸은 단단한 바위 같았으며, 입은 바닥이 없는 동굴 같았다. 그를 본 자는 모두 그 자리에서 죽어 쓰러졌고, 즈미즈는 영혼을 물어 뜯어 육신에서 분리했다.

구렁이 대공은 스바로그를 찾아갔다. 스바로그는 즈미즈를 물리칠 힘이 없었기에 공포에 떨었다. 스바로그는 즈미즈가 더는 벨레스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조약으로도 즈미즈의 탐식을 피할 수는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가차 없는 왕인 코르스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밤의 짐승들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즈미즈가 먼저 조약을 제안했다. 스바로그는 곧 깨달았다. 즈미즈에게 두려워하는 것 또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코르스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거나,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고 싶지 않거나, 그 둘 중 하나라는 것을.

설령 스바로그가 함정이 아닐까 의심했다 하더라도, 벨레스와 즈미즈의 속셈을 꿰뚫어 볼 수는 없을 터였다.



예순여덟 최초의 속삭 이는 자의 몰 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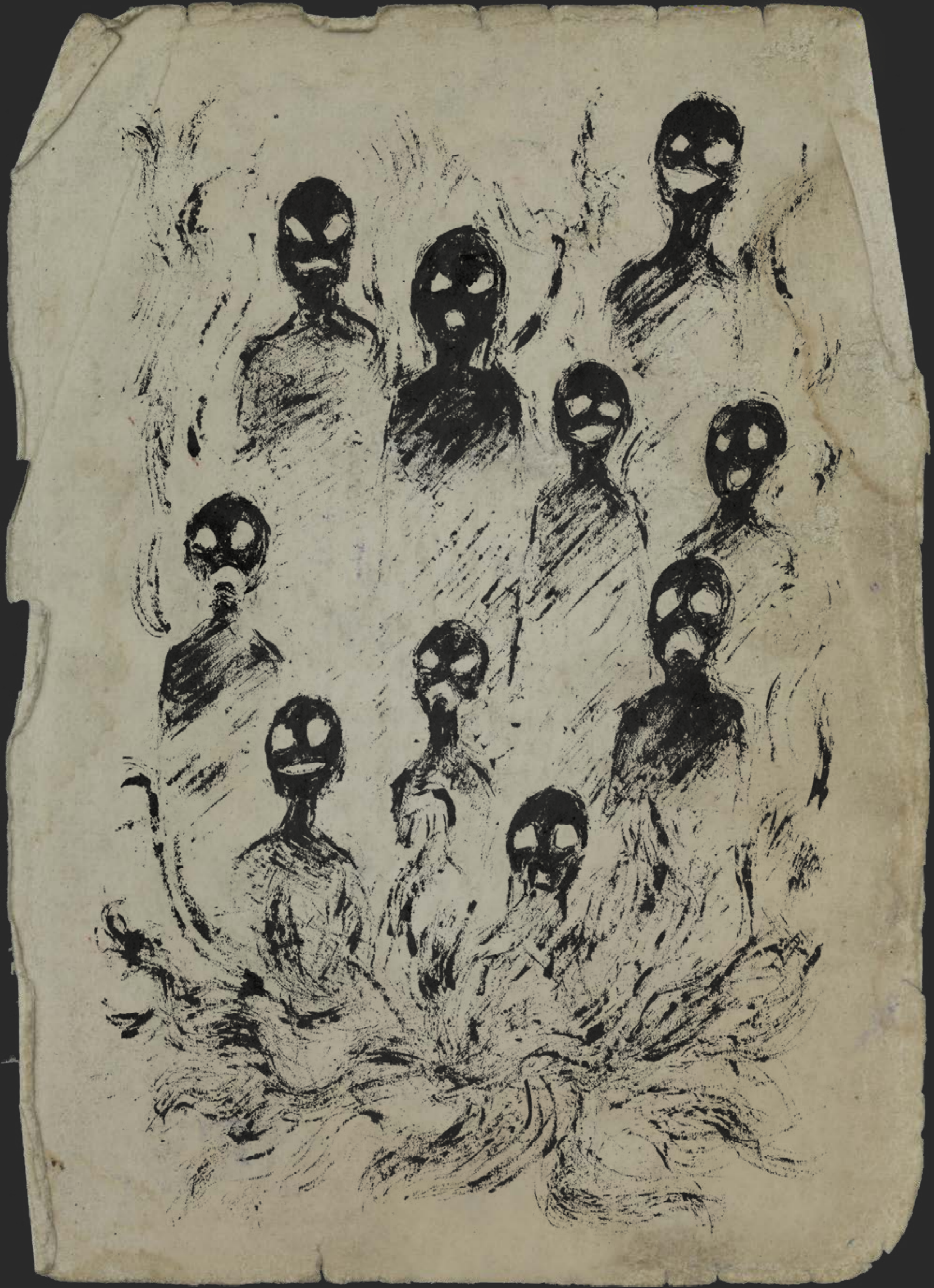
그리하여 스바로그와 즈미즈는 한 속삭이는 자를 찾아갔다. 살아 있는 불과 살아 있는 바위가 함께 걷자, 만물이 덜덜 떨며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오직 돌랴의 증복, 속삭이는 자만이 그들을 만날 용기가 있었다. 그는 입술에 속삭임을 머금고 손에는 유물을 든 채로 그들을 막아섰다.

그러나 주문으로 즈미즈를 해칠 수는 없었다. 돌랴의 속삭임은 벨레스의 심장이나 모코쉬의 피를 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즈미즈가 인간을 괴롭히거나 세계의 균형을 위협한 것도 아니었기에, 속삭이는 자는 돌랴와의 맹세를 어기면서까지 그에게 유물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즈미즈는 속삭이는 자의 손에서 유물을 빼앗아 집어삼키고는,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벨레스와 모코쉬의 창조물, 최초의 흙물이자 이 세상의 군주이다. 내 발밑에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기 싫다면, 나를 따르고 목숨을 부지해라.”

속삭이는 자는 그 말이 진실임을 알고, 즈미즈를 새로운
주인으로 섬겼다.



예순아홉 배신

스바로그와 즈미즈는 속삭이는 자로 이루어진 배신자들을 거느리고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 다녔다. 변심한 속삭이는 자들은 흥측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 부정한 무리는 집을 불태우고 영혼을 집어 삼키며 돌랴의 종복을 찾았고, 속삭이는 자를 찾으면 같은 방법으로 굴복시켰다.

힘과 권능, 죽음을 다루는 능력을 주겠다는 그들의 약속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학살을 자행하겠다는 협박과 집어 삼킨 영혼들, 영원토록 종속된 노예들도 그만큼 끔찍했다.

위험을 두려워한 이들이 많았지만, 즈미즈의 이야기에 유혹당한 자들도 여럿 있었다. 이처럼 속삭이는 자들은 무릎을 꿇었다. 힘에 대한 탐욕과 욕망에 빠져 굴복한 자도 있었고, 마을을 구하기 위해 굴복한 자도 있었다. 주인을 바꾼 그들의 속삭임은 마치 구렁이처럼 식씩거리는 소리로 변했다.

용감하게 구렁이 대공에게 대항한 속삭이는 자도 있었으나, 그들은 결국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전부 재로 변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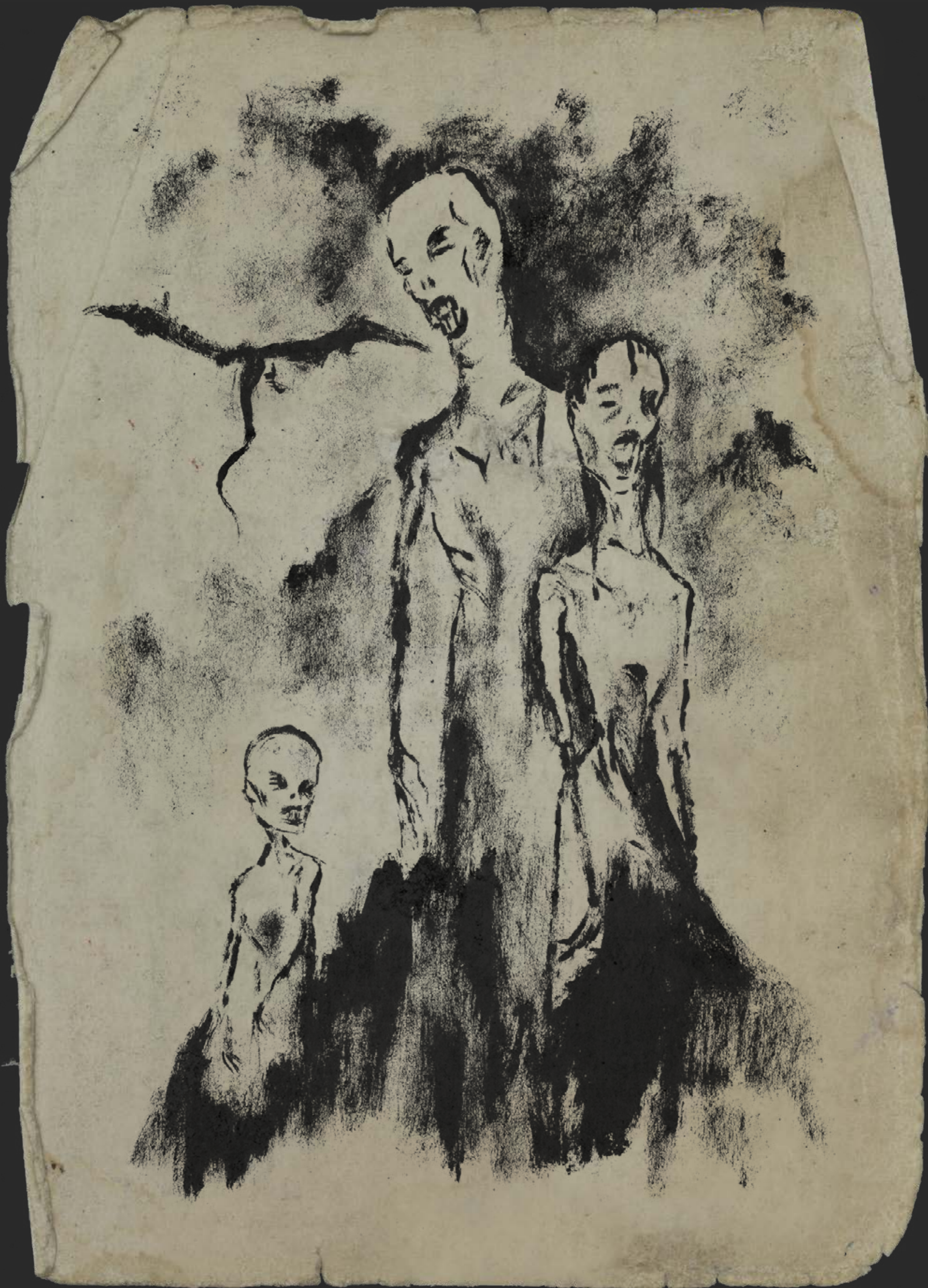
일흔 참혹함

유물을 삼킨 즘미즈는 갑자기 솟구치는 힘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는 고통 또한 느꼈다. 그가 몰래 유물을 뺏어냈을 때, 그는 유물이 신의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벨레스의 흉물에 맞설 무기로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즘미즈는 유물을 모조리 손에 넣고 싶은 마음에, 수행단에게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 명하였다.

유독 기만적이었던 한 속삭이는 자가 수행단에서 혼자 떨어져 나와서, 전령으로 위장하여 근처의 마을로 달려갔다. 그가 유물 수호자를 찾아 유물을 보여달라고 하자, 수호자는 그의 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수호자는 무시무시한 즘미즈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결국 배신자에게 신의 무기를 넘겨주고 말았다.

유물인 신비한 활을 얻은 배신자는 그의 수행단에게 그것을 겨누어, 자신을 거스른 자를 모조리 쏘고 동지들은 살려 주었다. 겁에 질린 수호자는 즘미즈가 영혼을 포식하며 힘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 활을 빼앗으려 하다가, 그 역시 배신자의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그 순간 정의로운 인간의 피가 뿜어져 나오며 유물의 봉인을 풀고, 주위에 있던 모두의 눈에 불사의 죽음이라는 장막을 드리웠다.



일흔하나 죽음의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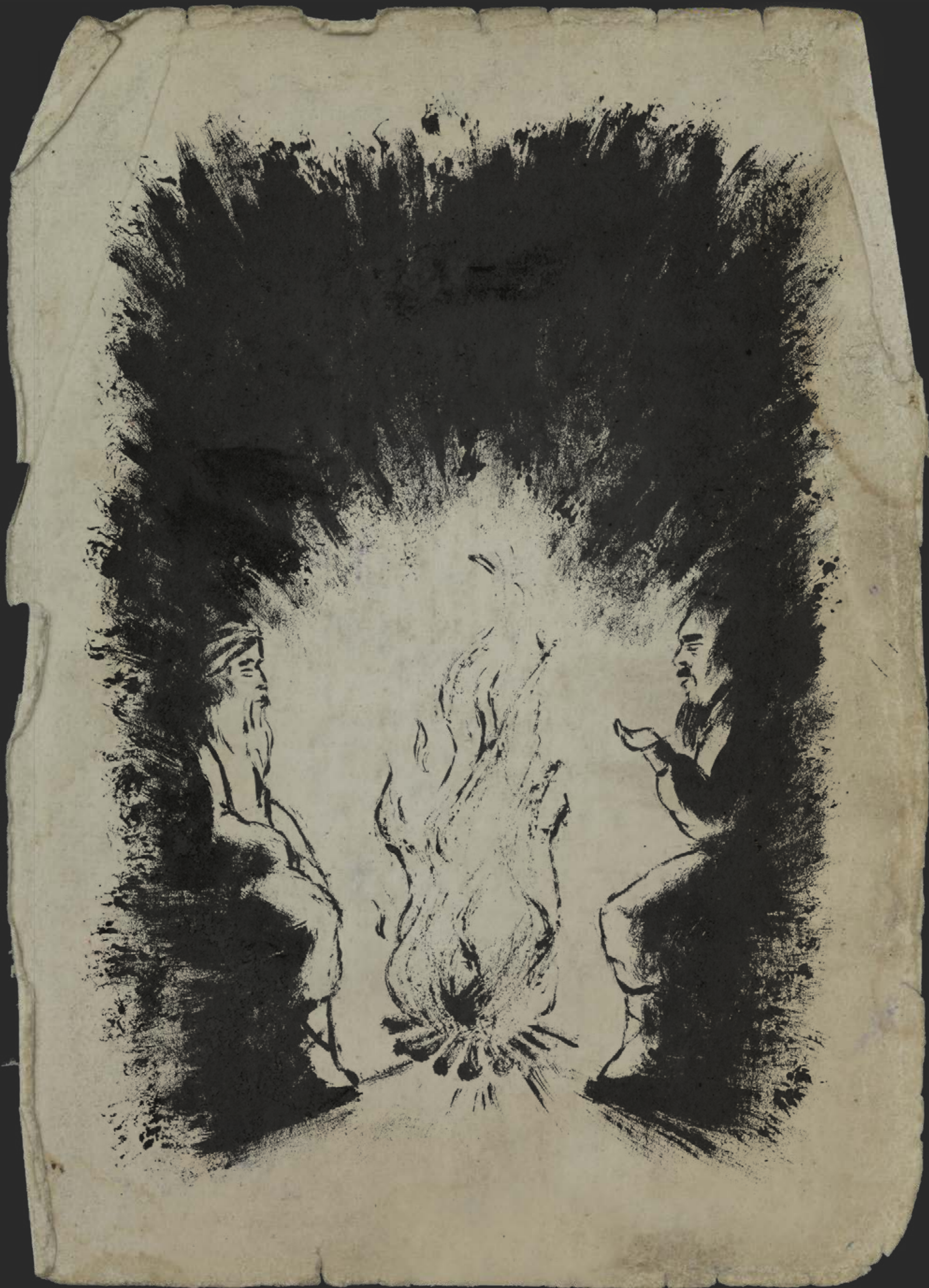
마치 해가 갑자기 꺼지고 밤이 덮친 듯, 실로 끔찍한 날이었다. 사람들의 눈에 장막이 드리워, 그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혀를 묶었다.

속삭이는 자가 살던 곳에 사는 이들은 모두 죽었지만, 동시에 또한 살아 있었다. 돌랴에 대한 맹세를 깨뜨린 죄로 이처럼 끔찍한 벌을 받을 줄이야! 세계의 균형을 흔든 대가가 이처럼 지독할 줄이야!

돌랴는 정의롭고 인류를 깊이 사랑한다 하나, 그 사랑이 아버지 벨레스의 창조물, 그리고 그곳의 동물들과 식물들에 대한 사랑보다 크지는 않았다. 창조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탐욕스러운 인간 남녀의 목숨은 주저 없이 희생할 것이었다.

인간은 하나같이 선 채로 대저주에 걸렸다.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그 안에 갇힌 채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그들은 불길에 끌리는 나방처럼, 아직도 속삭이는 자의 손에 들려 있는 유물을 둘러쌌다. 그들은 마치 회색 연기처럼, 무시무시한 힘에 검게 타 버린 바닥 위를 떠돌았다.

이 광경을 본 스바로그와 즈미즈는 유물의 힘에 경탄하며 물러났다. 더 가까이 갔다면 그들조차 당하고 말았을 정도의 힘이었던 것이다. 속삭이는 자들을 수없이 잃은 구렁이 대공은 유물의 힘이 가짜가 아님을 알았기에, 그들은 저주받은 부족의 운명을 영원에 맡기고 떠났다.



일흔둘 고뇌

전령들이 재빨리 마을에서 마을로 이 소식을 전했다. 곧 사람들은 저주받은 부족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속삭이는 자들의 명성은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스러졌다.

사람들은 족장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물었다. 왜 속삭이는 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영혼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즈미즈가 우리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우고 스바로그의 불길이 우리 발치를 훑으면, 우리의 운명은 어찌 되는 것인가? 당장 행복하고 고통받으며 죽어야 하는가, 아니면 저주에 운명을 맡긴 채 이성 없는 괴물로 변하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속삭이는 자들이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유물을 쥐고 우리를 협박하며 복종을 강요한다면? 그들이 너무 어리석고 무도하며 권력에 굽주렸다면? 그들에게 용기나 끈기, 기지가 없다면? 이 세계가 돌랴가 바람 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흔둘 추방

그리하여 중대한 선택의 날이 도래했다. 그 선택의 무게는 드물게 남아 있는 족장들의 회담 기록에서 잘 드러난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번역하자면 이러하다.

“우리 앞에 두려움과 불확실성, 두 개의 잘못된 선택이 놓여 있소. 속삭이는 자들을 받아들여 저주의 진노를 살 위험을 무릅쓰겠소, 그들을 추방하여 흉물들을 막아 주는 방패를 잃겠소? 어느 길을 택하든 죽음의 찍 벌어진 아가리가 우리를 기다릴 뿐이오.”

그러나 고대인은 사후에 영혼이 신들에게 간다고 믿었기에, 죽은 육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용감한 남녀를 동원하여 유물을 빼앗고 속삭이는 자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그들은 비밀스러운 주문을 알지 못하였기에, 힘을 지닌 물건들을 세상의 외딴 구석에 숨기기로 했다.

그때부터 속삭이는 자들은 인간의 마을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당했다. 병을 지닌 쥐를 집에 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다.

그리하여 속삭이는 자들, 돌랴를 섬기는 이들은 한때 그들을 복종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두려움에 짓눌려, 뿔뿔이 흩어져 영원토록 방랑하는 신세가 되었다.



일흔넷 방랑

그 후로 속삭이는 자는 어느 마을에도 발을 들일 수 없었다. 마을을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벌거벗긴 후 몸에 돌라의 비밀 징표가 없는지 살살이 뒤졌다. 몸에 야생의 눈빛을 닮은 점이나 그림이라도 있을라치면, 사람들은 경계하며 떠돌이를 쫓아냈다. 그것이 어머니의 포궁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든, 실로 속삭이는 자들의 비밀스러운 징표이든, 추방을 피할 수 없었다.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저주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죽거나, 교묘하게 공격당하거나, 화살에 맞거나, 뒤를 밟히거나, 자다가 비명횡사하는 자들도 많았다.

이처럼 속삭이는 자들은 침묵 속에서 홀로 세상을 떠돌았다. 육신이 강인한 만큼 수명도 길었기에, 그들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세상이 눈앞에서 시들어 가고 부정적인 힘이 속삭임과 신의 유물의 견제를 받지 않고 강해지는 만큼, 그들의 절망은 배가되었다.



일흔다섯 보한

속삭이는 자들이 수명이 길고 힘의 축복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래도 죽어서는 모코쉬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돌라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 새로 태어났다. 그러나 여신 돌라는 가르침을 주러 돌아오지 않았고, 세대를 거듭하며 속삭임은 기적적이었던 힘을 잃어 갔다.

그러나, 신들의 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한 사람 있었다. 그는 다보와 페룬이 신의 육신을 떼어 내 유물을 만들었고, 속삭이는 자들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유물을 나누어 가졌으며, 결국은 유물이 세계 곳곳에 숨겨졌다는 것을 알았다.

남자는 즘미즈를 길들일 힘을 지닌 것은 그 유물들뿐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영혼에 저주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적을 쓰러뜨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보한이었다. 고통받던 사람들의 구원자인 그 이름은 영원토록 노래로 전해질 것이다.



일흔여섯 다시 하나 되다

세계는 몰락하고 있었다. 인간의 가슴은 가시지 않는 공포와 증오로 가득했으며, 짐승이 포효하는 소리와 즘의 종복들이 식식거리는 소리는 그런 감정을 키울 따름이었다.

처음에 속삭이는 자들은 타인은 물론, 서로를 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방랑 생활에 지쳤다. 서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우연히 마주친 떠돌이가 그들을 노리는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마음 속에는 점차 용기와 긍지가 차올랐다. 인류가 몰락하고 괴물들의 발톱에 으스러지는 광경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

제일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보한이었다. 그는 오랜 여행 끝, 어느 황혼에 개울가에서 몸을 식히는 여인을 만났다. 여인은 갈대에 앉은 잠자리처럼 침착하고, 폭풍 후에 얼굴을 내미는 무지개처럼 곱고 밝았다.

그가 여인에게 속삭일 때 물이 그의 말을 메아리로 받았고, 여인이 그를 향해 얼굴을 돌릴 때 공기가 힘을 띠고 반짝였다.



일흔일곱 신적인 영 웅들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한 순간부터 함께 걸었다. 방랑자들은 그 둘을 보기만 해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들의 눈빛은 야생의 것이었으며, 신의 지혜로 가득했기에.

속삭이는 자들은 숲과 황무지를 지나고, 골짜기와 산을 넘고, 강과 균열을 건넜다. 마치 돌랴가 그들을 이끌듯이 보한이 그들을 이끌었고, 결국 많은 사람이 운집했다.

그들은 세상을 떠돌며 흉물과 사악한 인간들과 싸웠다. 인류의 편도 아니고 흉물의 편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세계의 균형을 위해 싸웠다. 이를 위해서는 탐욕이나 증오에 빠져 타인을 공격하는 자는 막아야만 했다.

속삭이는 자들은 추방당하고, 매를 맞고, 잊히고, 경멸받고, 학대당했으며, 버려졌다. 진창에 빠진 채 숨이 턱턱 막혀 갔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몸을 추스리고 실패의 품에서 나와, 다시금 긍지 높고 자유롭고 용서를 모르는 신의 영웅이 되었다.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러하리라!



일흔여덟 맹약단

속삭이는 자들의 행동은 고결하였으나, 그것에는 명성도 동지도 따르지 않았다.

새가 하늘을 빙빙 돌다 날아가고, 다시 돌아왔다. 꽃이 흙을 뚫고 나왔다가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무가 과실을 맺은 후에 잎을 떨구었고, 눈이 녹은 후에 다시 내렸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렀다. 그 와중에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은, 썩은 고기를 파고든 구더기처럼 인간의 가슴에 자리 잡은 고통뿐이었다.

속삭이는 자들도 나이를 먹었다. 힘이 빠져 조용히 숨을 거둔 이도 있고, 흉물의 발톱에 갑작스레 목숨을 잃은 이도 있었다. 온 세상을 뒤졌는데도 위대한 유물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함께 둘러앉아 말없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그것을 맹약단이라 칭하였다. 그들은 모두 맹약을 하여 선조들이 돌랴에게 했던 맹세를 새로 하고, 다시금 그 약조에 속박되어 후계자를 찾기 위해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



일흔아홉 세계의 몰락

야만인들의 설화는 회한으로 가득하고, 침입자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하다. 광기에 눈먼 무리를 상대로, 용감한 인간들 몇몇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판결을 받은 인간이 운명의 심판에 어찌 맞서겠는가?

신화적인 속삭이는 자들의 노력은 헛되었고, 그들의 희생은 무의미했다. 역병이 차례대로 인류를 덮쳤다. 흉물들은 코르스의 주문에 걸렸고, 여전히 벨레스에게 충성하는 흉물은 몇 되지 않았다. 끝이 나지 않는 전쟁의 늪에 빠진 부족들은 옛 신들에 대한 믿음을 버렸고, 그들에게 닥친 불행이 모두 신들 탓이라 여겼다.

인간의 눈에는 돌라가 신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다. 그들을 생령으로 바꾸고 영혼을 가두어 무한한 하늘로 달아날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었다.

유물들은 지상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속삭이는 자들과 함께 마을에서 추방당해 짐승에게 먹히고 진창에 끌려들어갔으며, 그 외의 방식으로 인간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와 함께 기적적인 구원에 대한 희망도 꺼졌다.

숭배, 신앙, 설화, 주문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리고 쇠, 무기, 글, 음모의 시대가 도래했다.



여든 신의 부재

인류는 살아남기 위한 싸움에 빠져 있었다. 설령 검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질병과 기근, 독, 광기 때문에 죽어 갔다.

이런 역병은 흉물들이 불러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부족끼리 갈등하고 싸우며 사람을 죽임으로써, 탐욕에 빠져 인간의 마을을 파괴함으로써, 그리고 인간을 광기로 몰아넣은 거짓 신들을 숭배함으로써 자초하는 것인가?

그러나 흉물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널리 공포를 퍼뜨리고 있었다. 그것은 코르스를 달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살육을 하거나 평화의 대가로 제물을 요구하여 스스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였다.

옛 신들은 입을 다물고 지상에서 시선을 돌렸다. 신의 사제들은 죽어 없어졌으며, 믿지 못할 물약을 만들고 거짓 조언을 일삼는 사기꾼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족장들은 흥망을 거듭했고, 시간이 갈수록 점차 잔혹해졌다. 그러나 그 모두가 신들의 선택받은 자, 신들의 자손을 참칭하다가 끝내는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였다.

그것이 새로운 문명의 토대이며, 이것이 그 통치자들의
터전이라! 이들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나쁜 징조가 있
을지니.

우리 민족을 칭송하라! 위대한 고르드의 문명을 칭송하
라!



여든하나 속삭이는 자 들의 황혼

그리하여 음유시인들의 혼이 희미해졌듯이, 전설도 빛을 잃었다. 과거의 영웅은 얼마 남지 않았고, 핏줄에 보한의 고귀한 피가 흐르는 자가 남아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제 그와 견줄 법한 전사, 신의 힘을 받았으며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고 싸울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다. 전설은 몰락했다. 신화는 잊힌 신들의 이상처럼 홀대받는다.

돌랴의 신뢰를 청하고 빌 사람이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돌랴께서 필멸자의 눈에서 각지를 벗겨 위대한 유물들이 숨겨진 곳을 보게 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아직 돌랴에게 기도하는 자가 존재하는가?

아직 야만인들 사이에 속삭이는 자가 있는가?

신의 말을 아직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목숨을 바쳐 약속을 지키겠노라 맹세할 사람이 있는가?

이제 영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야만인은 불평한다. 정의로운 사람도 없고, 신의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

람도 없다. 우리는 신들께 청해야 한다! 울며 빌어야 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늑대처럼 굶주리고 산속의 호수처럼 맑고 선명한 눈을 지닌 자손을 보내 주시기를.



여든둘 프라보의 몰락

프라보의 세상은 돌 더미처럼 무너지고, 모래 언덕처럼 흩어지고, 질풍에 산산조각이 난 나무처럼 곤두박질쳤다.

생명을 잉태한 사랑, 하늘을 채우고 인간의 가슴으로 흘러든 지혜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신들이 모이고 기쁨이 솟아나는 계곡이 되었어야 했을 대지는 피와 눈물을 뒤집어 썼고, 시기와 폭력이 대지의 소금이 되었다.

신의 눈물은 말라 버렸다. 신의 부름은 조용해졌다. 프라보는 고독하고 수치스러웠으며, 후회로 가득했다. 그는 움츠러들어 빛을 잃었으며, 그의 존재에 달린 줄을 움직이는 것은 오로지 슬픔뿐이었다.

그는 하늘의 외딴 구석에 숨고 싶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하늘은 무한하기에, 그는 영원토록 안식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를 안타까워하는 이도, 그를 기억하는 이도 없다. 최초의 신은 무너져 내려 영원한 낙오자가 되었다. 이제 그 이름조차 잊혀, 고대 신이라 불리기에 이르렀다.

전설이 이렇게 끝이 나다니 참으로 슬프지 아니한가. 나조차도 슬프다!

가슴 속에 인간성이 남아 있는 자는 아직도 프라보의 이
름으로 눈물을 흘리리라!

끝